

가족 및 가족관계의 개념 / 1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가족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가족과 유사한 용어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
3. 가족관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의 개념 - 가족의 정의, 고전적 정의, 현대적 정의
2. 가족과 유사한 용어 - 가정, 집, 친족, 가구의 개념
3. 가족관계의 개념

본 학습

1. 가족의 개념

1) 가족의 정의

- 가족은 인간이 가진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회제도이다.
-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은 역사,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므로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 인간은 본질적인 독립성, 개체화 욕구와 사회성, 반개체화의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가족은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집단이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15. 재인용).

2) 가족의 고전적 정의

- 가족은 공동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입양자 포함) 구성된 가족이다(Murdock, 1949).
- 가족은 동거동재 집단이며 가옥(家屋), 가격(家格), 가풍(家風)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문화 집단이다(이광규, 1974).
- 가족은 인간의 인성을 형성시키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이다(유영주, 1975)
- 가족의 기준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을 통하여 구성된다.

- 가족은 동거한다. 가족원의 거주 장소와 생활의 장소가 같다.
- 가족은 문화를 공유한다 등이다.
- 종합 - 가족의 '고전적 정의'
 -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동거동재(同居同財)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인 집단으로 인간형성 및 인간발달의 근원적인 터전이 된다.

3) 가족의 현대적 정의

- 슐츠(Schulz, 1977)는 「변화하는 가족(The Changing Family)」에서 '가족이란 하나의 복잡한 변수로서 생물학적 요구에 기인하는 보편적인 구조도 아니며, 종교적 또는 문화적 신조에 기반한 보편적 규범의 이념일 수도 없다. 가족이 사회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정도만큼 이것은 우리를 기성 문화에 적응시키는 한편, 무엇이 바람직한 가족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변화하는 개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유영주 외, 2015. 재인용)
- 올슨과 드프레인(Olson & DeFrain, 1997)은 '가족이란 둘 또는 이상의 가족원들이 서로 돕고 몰입되어 있으며,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을 나누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 종합 - 가족의 '현대적 정의'
 - 가족은 혈연, 입양, 혼인 등으로 연결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장기적인 헌신과 역할 수립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이다.
- 가족의 정의는 '가족(The Family)' 이라는 획일적인 형태보다는 다양한 '가족들(Families)'을 포함하는 사회적 단위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의 가변성, 다양성, 유연성이 강조된다.

4) 원가족과 생식가족의 개념

- (1)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출생하여 부모 밑에서 형제자매와 같이 자라며 생활하는 가족이다.
- (2)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은 성장 후 결혼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하여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이다.
- 독신 가족 등도 있지만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원가족과 생식가족을 경험하게 된다.

2. 가족과 유사한 용어

1) 가정(家庭, A Home)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한 가정생활 등

- '가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거주지) 또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지만,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물질적인 환경(Place)'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의 개념, 그 속에서 심신의

긴장을 풀고 휴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가족원간의 신념이나 애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만족을 얻는 심리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가족(Family)'은 집단(Group), 즉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가정(Home)'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Place)라고 구분되지만 가족과 가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집(House)

예: 우리 집안의 자랑, 우리 집의 아들, 딸

- '가족'은 학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집'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상용어이면서 복잡한 의미이다. 즉 '집'이란 개념에는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이 생활하는 거주지나 건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이나 기타 동족, 친척까지 포함된다.
- 집의 의미 - 물량적 개념과 구성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구분
 - 물량적 개념 - 한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 즉 건물과 경작지, 기타의 것들이 포함되며, 그 집의 소유로 된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 구성원으로서의 개념 - 집은 조상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원을 하나의 집단적 존재 내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 집은 각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번영하고 구성원의 실패로 쇠퇴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집은 구성원을 매개로 하여 현실사회에서 살아 존재하고 자체의 생성과 소멸과정을 갖는 관념적인 존재물이라 할 수 있다.
- 집의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되고 미래까지 포함한다. 집은 존속성을 목표로 하여 가족구성원 모두를 지배하는 초인간적 · 초시간적 개념체계로서, 모든 가족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유영주 외, 2015)

3) 친족(親族, Kinship)

예: 이분은 나의 친척인 사촌 형님이다.

- '친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혼인과 혈연 및 입양관계를 통해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서 생기는 집단이다.
- 혈연에 의한 관계를 혈족, 혼인에 의한 관계를 인척이라 하고 그 외에 입양이나 양자 등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도 친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종류와 범위는 혈족, 인척, 배우자이다.
 - 혈족(血族) - 부계,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있다.
 - 인척(姻戚) -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 배우자(配偶者)

4) 가구(家口, Household), 가구주(家口主, Household Head)

예: 1인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통계청)'를 의미하며 결혼관계나 혈연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주하는 공간과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한다.
- 가족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므로 가족을 전국 규모의 대량적 통계조사에 의하여 연구할 경우, 정확한 가족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량적 연구에서는 가족을 주로 주거 및 생활 집단으로 분류한 '가구(Household)'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한다.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규정한다. (통계청-통계용어)
- 가족원 수와 가구원 수 비교
 - 가족원이 전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족원수와 가구원수 일치
 - 가족구성원과 고용인, 동거인을 포함하는 경우: 가구원수 > 가족원수
 - 가구 내에 비가족구성원은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구성원 일부가 출타한 경우: 가구 < 가족원수
 - 비가족구성원이 가구에 포함되고 또한 가족구성원의 일부도 출타한 경우: 비가족구성원의 수와 가족구성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족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음

3. 가족관계의 개념

1) 가족관계의 개념

- (1)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 (2) 가족관계는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점유한 자가 부담하는 분업관계, 권리, 의무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유영주 외, 2015. 재인용).

2) 가족관계의 특성

- (1)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으로서 사회적 측면과 가족 개개인의 신체적·물리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인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 (2)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 형태 특성(interpersonal response traits)은 집단 내의 사회적 역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적 역할은 개인의 인간성, 성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
- (3)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개인적 특성은 유전적 형질이나 신체적 조건, 심리적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갖고

있다(유영주 외, 2015. 재인용).

학습정리

1. 가족은 인간이 가진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회제도이다.
2. 가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 집, 친족, 가구 등이 있다.
3.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 / 1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가족관계학의 학문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3.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가족관계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관계학의 학문적 특성
2.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적용 - 구조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론, 발달론, 체계론, 페미니즘

본 학습

1. 가족관계학의 학문적 특성

1) 학문적 개념

- 가족관계학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거시적(macro) 시각과 개인의 인간발달 측면에서 보는 미시적(micro) 시각이 있다.

- (1) 거시적 시각은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관점으로 가족에 관한 법률, 정책, 사회 및 가족복지 분야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 (2) 미시적 시각에는 사회심리학, 인간발달학, 가정학 등이 포함되며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분야의 연구 및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표 1> 가족관계학의 연구범위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
이론적(기술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제도적 접근 : 가족의 형태, 유형 - 역사적 변화 - 제도적 변화 - 비교사회적 변화 ○ 구조기능적 접근 : 가족 구조 및 기능,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적(관계적) 접근 : 적응, 애정, 역할, 권력, 의사소통, 만족, 갈등, 스트레스, 이혼, 재혼, 성인사회화 등 ○ 발달적, Life Course적 접근 :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 발달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조의 변화 - 가족 기능의 변화 - 구조기능의 변화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노인, 여성, 범죄 등) 	가족내 문제(심리·사회적 부적응)
실 제 적 (실 천 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관한 법률 ○ 가족에 관한 사회복지(가족복지) ○ 가족에 관한 정책 ○ 가족에 관한 국가·사회의 제시설·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교육 :결혼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중년기 교육, 노인교육 등 ○ 가족상담 및 치료 : 상담소,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출처: 유명주 외(2021),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2) 가족관계학의 특성

- (1) 가족관계학은 가족사회학, 가족심리학, 가족인류학, 가족복지 등 여러 학문을 기초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문이다.
- (2) 가족관계학은 가족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적·기술적 입장과 가족의 인간관계를 향상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응용과학적·실천적 입장을 갖는다.

2.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적용

1) 구조기능론 이론

(1) 구조기능론 관점

- 구조기능주의는 사회의 유지와 안정, 통합을 위하여 모든 사회 제도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사회의 각 부분은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각 하위 체계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평가하고, 사회가 잘 기능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핵가족'을 기본 단위로 보고, 핵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 어머니가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수행하는 것을 기능적으로 본다.
-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제한점: 보수성과 성차별적인 측면(성별 역할분리는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성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이 있고, 사회 질서와 화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의 변화, 갈등 등은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2) 구조기능론 적용

-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가족과 사회 전체, 가족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2) 갈등론

(1) 갈등론 관점

- 갈등을 어떤 정서나 동기가 서로 대조되어 일어나는 적대적인 상호작용으로 본다.
- 갈등의 원인은 불평등이며, 사회체계는 재조직을 통해 순환적인 갈등 생성을 겪고, 사회 변동을 일으킴, 가족원간에 희소자원에 대한 의식적 · 무의식적 갈등이 상존한다.

(2) 갈등론 적용

- 가족 내의 이해관계와 권력, 자원의 불평등, 가족갈등의 처리과정 등의 연구에 적용된다.

3) 상징적 상호작용론

(1)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 개인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주관적 입장에서 사회 현상을 파악하며, 사회 현상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행위자의 정신적 능력, 행위 및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 사람마다 독특한 상황에 따라 만드는 정신적 정의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행위자들은 의미 있는 상징을 사용하고, 상징들은 그 의미에 근거한 반응을 한다.
- 개인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를 파악하고 지위와 역할개념을 획득한다.

(2) 상징적 상호작용론 적용

- 가족 현상의 내면적인 과정, 의사결정, 갈등, 역할 이행, 지위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며, 가족 내 권력구조 형성, 부모-자녀관계, 역할과 지위, 결혼의 질과 의사소통 연구 등에 적용된다.

4) 교환론

(1) 교환론 관점

-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이 큰 행동은 피하고 투자한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 개인 간 상호작용과 집단에서의 교환 작용을 연구한다.

(2) 교환론 적용

- 배우자 선택과정, 가족 권력과 의사결정, 맞벌이 가족, 노인문제, 가족정책 연구 등에 적용된다.

5) 발달론

(1) 발달론 관점

- 가족의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기술(記述)한다.
- 가족의 시간(family time)은 내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 생리적 · 사회적 욕구에 의해 예견되고, 외적으로 사회적 기대나 생태학적 제재 등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예견된 일련의 단계로 규정한다.

(2) 발달론 적용

- 가족생활주기와 단계별 역할과업 수행, 가족생활주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의 지침을 제공한다.

6) 체계론

(1) 체계론 관점

- 체계는 하나의 통일적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관련 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체계의 한 요인이 변화하면 다른 요인도 변화하고 그 변화는 다시 처음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체계의 작동을 순환적 인과관계로 본다.
- 가족체계는 개방체계로서 끊임없이 내적 접합이 추구되는 동시에 외부로 향해 열려있다.

(2) 체계론 적용

- 부부, 부모자녀, 형제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의 특성, 권력구조, 역할의사소통, 가족상담 등의 연구에서 관계분석과 환경변수의 영향 탐색에 적용된다.

7) 페미니즘

(1) 페미니즘 관점

- 기존의 지식과 이론은 주로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예: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가정하는 구조기능주의를 비판함)
- 여성주의 이론의 기본 전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평가절하 되어 불평등한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고, 관점에 따라 자유주의적 관점, 사회주의적 관점, 급진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 건강한 가족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양성평등적 관계를 목표로 한다.

(2) 페미니즘 적용

- 성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 방안, 남녀 간의 조화를 위한 환경 조성, 가족 내 부부, 부모-자녀 관계 등에서의 자율성과 평등 실천 방안을 연구한다.

학습정리

1. 가족관계학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가족에 관한 이론적 관점으로 구조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론, 발달론, 체계론, 페미니즘 등이 있다.
3.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및 분석에 구조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론, 발달론, 체계론, 페미니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가족의 특성(1) - 집단적 특성, 기능, 유형 / 2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가족의 집단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의 특성 - 가족의 집단적 특성
2. 가족의 기능 - 가족의 고유, 기초, 부차적 기능
3. 가족의 유형 - 가족구성원의 범위, 권위소재, 가계계승, 거주규정, 부부 결합형태에 따른 가족의 유형

본 학습

1. 가족의 특성

가족의 집단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 공동사회 집단(gemeinschaft), 폐쇄적 집단(closed group), 형식적 집단의 집단적 특성을 갖는다.

1) 가족은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 이다.

- 일차적 집단은 성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내부에서 인성(personality)이나 태도(attitude)가 형성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반면 이차적 집단(secondary group)은 사회, 조합, 국가 등 간접적인 거리를 두고 접촉하는 결합관계를 갖는 집단이다(유영주 외, 2015).
- 가족은 성원간의 대면적 결합관계(face-to-face association)이다.
- 집단 성원 상호간에는 '우리의 감정(we-feeling)'이 발생하여 강한 일체감을 유지한다.

2) 가족은 공동사회 집단(gemeinschaft) 이다.

- 공동사회 집단(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 희생사회)은 성원 상호간의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외부적인 어떤 장애나 분리에도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합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이익사회 집단(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 집단)은 형식적인 결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로 정의되며 특정한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고 타산적으로 대등하게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개입된 집단이다.

3) 가족은 폐쇄적 집단(closed group)이다.

- 폐쇄적 집단이란 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의 획득이나 포기가 용이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하고 반면에 개방적 집단은 집단의 소속성이 자유로워 원하는 대로 그 집단 구성원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집단이다.
-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이나 혈연, 입양관계이어야 하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포기할 수 없으므로 폐쇄적 집단이다.

4) 가족은 형식적 집단(formal group)이나, 가족관계는 비형식적, 비제도적(informal)이다.

- 형식적 집단이란 객관적 조직과 특정의 습관적 절차 체계를 갖고 이것에 의하여 행동이 통제되는 집단으로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지위에 대한 역할행동이 요구된다.
- 가족은 결혼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성립되므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집단이다.
- 반면에 가족 상호간의 관계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인관계가 자유롭고 솔직하며 형식이나 예의에 얽매이지 않는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집단이다.

2. 가족의 기능

1) 가족 기능의 개념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이다

2) 가족 기능의 유형

(1) 고유 기능(proper function)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내적 기능으로 성·애정 기능과 생식·양육 기능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기능으로 성적인 통제 기능과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등이 있다.

(2) 기초 기능(basic function)은 경제적 기능으로 대내적으로는 생산·소비의 기능을 한다. 대외적으로 생산을 통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분업에 참여하며, 소비 기능을 통하여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 부차적 기능은 파생기능(derivative function)으로 대내적으로 가족은 교육·휴식·보호·오락·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대내적 기능 수행을 통하여 문화를 발달시키고 가족원에게 휴식과 보호를 제공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사회를 안정화를 돕는다. 또한 오락과 종교의 기능을 수행하여 문화적·정신적 안정화에 기여한다.

<표 1> 가족기능의 유형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대내적인 기능	(사회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기능
고유 기능	애정 · 성 생식 · 양육	성적인 통제 종족보호(자녀 출산), 사회구성원 충원
기초 기능	생산 소비	노동력 제공, 분업에 참여 생활 보장, 경제 질서의 유지
부차적 기능 (= 파생기능)	교육 보호·휴식 오락·종교	문화발달 심리적·신체적 사회의 안정화 문화적·정신적 사회의 안정화

3) 현대 가족의 기능

오늘날 현대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가족 간의 애정 도모, 안정감 부여와 수용, 만족감과 목적의식 부여, 지속적인 동료감, 사회적 지위 부여와 사회화, 통제력과 정의감 확립 등이 있다.

- 1) 가족원 간의 애정 도모 - 부부 및 부모 자녀 간의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다.
- 2) 안정감 부여와 수용 - 가족원에게 안정감을 주고 수용해준다.
- 3) 만족감과 목적의식 부여 - 경쟁 사회에서 결핍된 기본적인 만족감과 보람을 충족시켜주고, 부부가 자녀를 함께 책임지는 등 목적의식을 갖는다.
- 4) 지속적인 동료감 -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료감을 갖는다.
- 5) 사회적 지위 부여와 사회화 - 자녀는 출생 시 그의 부모가 지닌 가족의 지위, 사회계층에 속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유전적 · 신체적 요인 및 교육적 유산 등을 물려받는다.
- 6) 통제력과 정의감 확립 - 가족 안에서 개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 · 권리 · 의무 · 책임감 등을 배운다(유영주 외, 2015.)

3. 가족의 유형

다양한 가족형태를 결혼 전후, 가족 구성원의 범위, 권위 소재, 가계의 계승, 거주규정, 부부결합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따른 분류

(1)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가족과 대가족으로 분류한다.

-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른 분류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론 혈연관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므로 구성원의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를 모두 명시해야 명확하다.

- ① 소가족: 5인 이하 소인수 가족
- ② 대가족: 6인 이상 다인수 가족

(2) 혈연관계의 범위에 따라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분류한다.

① 핵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직계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 자녀들은 혼인하면 부모 집을 떠나 분가하고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 2세대로 한정된다.

② 확대가족(직계, 방계가족) - 핵가족이 종적 또는 횡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가족이다.

: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원가족)와 동거하는 가족유형이다.

* 가족이 종적으로 확대되는 예 - 우리나라 전통 가족에서와 같이 맏아들이 혼인 후 본가에 남아 부모를 모시고 그 외의 아들들은 분가하는 직계가족(stem family)

* 가족이 횡적으로 확대되는 예 -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의 형제들이 결혼 후에도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는 방계가족(collateral family)

2) 권위의 소재에 따른 분류

가장의 권위인 가장권, 즉 가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권과 대내적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과 가사관리를 하는 가사관리권의 소재에 따라 부권제, 모권제, 동권제로 분류한다.

(1) 부권제(patriarchy) - 가장의 권위를 부계가 가지는 경우이다.

(2) 모권제(matriarchy) - 가장의 권위를 모계가 가지는 경우이다.

(3) 동권제(equalitarianism) - 가장의 권위를 양계가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이다.

3) 가계(家系)의 계승에 따른 분류

가계의 계승에 따라 부계제, 모계제, 양계제로 분류한다.

(1) 부계제(patrilinal system) - 개인의 친족과 혈연집단의 소속을 아버지(=父系)를 통해서 규정받는다. (예) 가명과 친족의 계보가父의 혈통을 따름

(2) 모계제(matrilinal system) - 개인의 친족과 혈연집단의 소속을 어머니(=母系)를 통해서 규정받는다.

(3) 양계제(bilineal system) - 부모 양쪽에 걸친 혈연관계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중시하며, 그 조직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4) 거주규정에 따른 분류

거주규정에 따라 시가살이, 처가살이, 단가살이로 구분할 수 있다.

(1) 시가살이(부거제) -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입주하여 시가 식구들과 동거하는 제도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시가 근처에 살면서 시부모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처가살이(모거제) - 혼인 후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입주하여 처가 식구들과 동거하는 제도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처가 근처에 살면서 처부모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단가살이(신거제(新居制)) - 혼인한 부부가 새살림을 차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5) 부부의 결합 형태(배우자수)에 따른 분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배우자의 수에 따라 단혼제와 복혼제로 구분한다.

- (1) 단혼제(單婚制, monogamy) - 부부가 각각 한 명의 배우자와 혼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일부일처제).
- (2) 복혼제(複婚制, polygamy)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 ①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 남자가 1인이고 여자가 다수인 경우이다.
 - ②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 - 여자가 1인이고 남자가 다수인 경우이다.
- (3) 기타: 축첩제도, 연속적 단혼제(=연속적 일부일처제), 사실혼 등이 있다.
 - ① 축첩제도(蓄妾制度) - 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② 연속적 단혼제(=연속적 일부일처제(serial monogamy)) - 단혼제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과 혼인할 수는 없으나 이혼, 재혼 등이 성행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여러 명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③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로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 여부와 혼인생활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 관계이다.

학습정리

1. 가족은 일차적 집단, 공동사회 집단, 폐쇄적 집단, 형식적 집단 등의 집단적 특성을 갖는다.
2. 가족은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가족의 유형을 가족구성원의 범위, 권위소재, 가계계승, 거주규정, 부부 결합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족의 특성(2) - 가족 계층, 가족가치관 / 2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가족계층의 개념과 계층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가치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의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계층의 개념과 계층별 가족생활의 특성
2. 가족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3. 가족의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본 학습

1. 가족 계층의 개념과 계층별 가족생활의 특성

1) 계층과 계급의 의미

-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얻고자 하는 가치의 대상(권력, 재산, 사회적 지위, 만족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가치의 대상은 원하는 사람에 비해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갖는데 있어서 불균등한 결과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 사회적 불균형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계층(strata), 계급(class), 신분(estate), 서열(rank), 위계(hierarchy), 카스트(caste), 지위(states), 반상(班常) 등이 있다.

(1) 사회 계급(Social Class) : 사회성원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서로 대립되는 사회집단이다.

- 이질적, 비연속적 집합체이다.
- 사회에 실재하는 실체적 개념이다.
- 주관적 · 심리적 요인, 귀속의식에 의한 사회적 범주이다.

예) 마르크스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분류

(2)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 : 사회 분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산물이다.

- 분화된 역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생겨난다.
- 사회를 식별하기 위한 조작적 · 분류적 개념이다.
- 수입, 교육 등과 같이 객관적 속성에 의해 구분된 사회적 범주이다.

예) 직업 및 지위에 따라 권력, 재산, 위신 등을 비슷한 정도로 소유하게 되고, 이를 하나의 층(stratum)으로 묶을 수 있다.

2) 사회계층의 측정

(1) 주관적 접근법(subjective approach) :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평가를 알아보는 방법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소속감 또는 계층의식을 알아보는 측정 방법이 있다.

- 자기평가를 할 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약점이다.

(2) 평판적 접근법(reputational approach) : 주관적인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주위 사람들(특히 지역공동체 내)의 평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 사회성원들 간에 서로를 평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관계가 밀접한 소지역 사회에 적용함이 적절하다.
- 개인들이 그 지역이나 사회성원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때 신빙성이 낮아진다.

(3) 객관적 접근법(objective approach) :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 실제 조사에서는 직업, 학력(또는 교육수준), 소득(또는 수입) 세 변수를 많이 사용한다.
- 그 외에 가족이 소유한 재산과 자산, 거주지, 누구와 사교하고, 어떤 클럽에 속하는가 등 사회적 상호관계망이 포함되기도 한다.
- 직업, 학력, 소득 등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의 지표로 보기도 한다.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을 3개의 범주(상, 중, 하), 5개의 범주(상의 상,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7개의 범주(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中의 中,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등으로 나눈다.

3) 계층 구조와 가족생활

-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가족의 계층에 따라 많은 삶의 기회가 결정된다. 계층에 따라 기대수명, 개인의 지능발달, 신체적 발달조건, 교육의 기회 등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갖기도 한다.
- 가구의 대표자(=가구주)의 사회적 지위가 가족원의 지위로 평가받기도 한다.

4) 계층별 가족 생활 특성 (Langman,1987))

(1) 하류계층 (lower class)

- 농촌 이주 가족, 학력이 낮고 직업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단순노동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
-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범죄나 비행 발생에 노출되기 쉽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적고

쾌락주의적 소비형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 가족생활은 한정된 자원에 적응하기 위해 모계중심의 확대가족을 이루기도 하나 성역할 구분이 뚜렷하나 남성의 직업이 유동적이거나 가족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가장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
- 주거 공간은 사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성관계가 개방적이어서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빈곤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이혼율이 높다.
- 육아는 여성의 영역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고父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母-자녀 관계가 父-자녀 관계보다 중시된다.
- 사회활동과 친구관계는 동성 위주로 형성되며 공식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저조하다.

(2) 노동자 계층 (working class)

- 건설, 공장노동자, 정비사 등의 노동자 계층이다.
- 안정성과 복종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권위주의적이 되기 쉽다.
- 가부장적 태도와 남성적 가치 존중하며 보수주의, 민족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희망 없는 생활로 장기 계획이 부재하고 쾌락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강조한다.
- 조직화된 지역사회 활동보다 친척, 친구, 이웃관계를 중시한다.

(3) 중하류 계층 (lower-middle class)

- 소규모 자영업자, 공무원, 중소기업 사무원, 영업사원 등이 포함되며 평판과 성취가 주요 가치를 이룬다.
- 근면, 정직 등 도덕적 자질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성관념이나 보수적 가치, 독립과 성취를 존중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교육에 투자한다.
-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 성역할 부담이 뚜렷하고 자녀중심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활동이 많다.
- 친족 구조 내에서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이 비형식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육아정보 등을 교환하면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4) 중상류 계층(upper-middle class)

- 법률, 회계, 의약 계통의 전문가, 사업가, 중견 간부 등이 속하며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 습득한 직업적 기술이 자원이다.
-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중심 가치이고 저축, 투자 등에 미래지향적이고 장기 계획을 추진하며

개인보다 가족지위 향상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 부부간에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부인의 사회활동이 남편 경력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 결혼 연령이 늦고 이성적 행동을 통해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고 자녀는 성취 압력을 받기도 한다.
- 가족은 핵가족 중심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의무로 결합되고 성인자녀-부모 간에 교류나 협력, 부모의 재정적인 보조 등이 있다.
- 직업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회 활동이 많으며, 전문 단체나 지역사회, 종교, 여가 단체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상호 긴밀한 친교를 맺는다.

(5) 상하류 계층(lower-upper class)

- 전문가, 경영자, 기업가로서 경제적 기술이 주요 자원이며, 이를 통해 부(富)와 지위의 급격한 상승을 이룬 계층이다.
- 과시 소비를 통해 상류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화려하고 가식적인 경향이 있다.
- 보수적이고 개인주의, 자신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므로 자존감 높다.
- 부부간의 친밀감 높으며 남편은 일에 몰두하고, 기타 일은 아내가 전담하여 부부역할은 전통적이다.
- 아내는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
- 상승욕구로 인해 친족관계는 미약한 경향이 있다.

(6) 상류 계층(upper class)

- 유산상속이 주요 자원이며, 부(富)는 가족생활과 확대 친족 체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와의 연계를 통해 중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사회적 지배력, 부, 혈통 등을 유지하려고 하며, 자선사업 등을 통해 지도력을 유지한다. 특히 자선사업 등은 상류층 여성의 주요 역할인 경향이 있다.
- 결혼은 법적, 정서적 유대이고 집단 내 결속을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 전통적 성역할 개념이 뚜렷하여 여성은 가사, 자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관계는 핵가족 중심이나 유산관리를 위해 친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며 가족 내 권위는 연령, 재산 및 재정적 영향력, 통솔력 등으로 결정된다.

2. 가족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1) 가족가치관의 개념

-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혹은 가족생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식을

말한다.

2) 가족가치관의 특성

- 한국의 가족가치관은 부모에 대한 효와 조상숭배 이념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성격을 가진 '유교적 전통'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 유교적 영향을 받은 이후 한국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특성을 '효' 사상, 가부장제, '집'의 관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효' 사상

- 한국인의 생활지도 원리이며,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 부모에 대한 존경, 시중, 부양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제사 등을 중시한다.

(2) 조선 후기의 가부장제

- 가부장제는 사회제도와 문화적 차원의 기제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억압, 불평등, 지배를 뜻한다.
- 가부장제의 질서 위에 기존 신분제와 정치, 경제의 지배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3) '집'의 관념

-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미래의 후손에게 연결되는 영속적인 집단으로서의 '집'을 중시한다.
- 조상의 유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제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가산(家産)을 유지와 확대하고, 아들을 낳아 이를 계승하려 한다.

→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남녀평등, 개인주의 사상 등의 영향으로 가족집단은 제도적·법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전통적 유교적 가족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족원리가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3. 가족의 가치관 개념과 특성

1) 가족의 가치관의 개념

-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의 존속을 위해서 가족 행동의 기초가 되고,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가족원간의 일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가족 간의 일치되는 가치를 말한다.

2) 가족의 가치관의 특성

-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의 설립자(=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부부의 가족철학에서 유래하며 각 개인의 미래, 교육적 배경, 경험, 사회적 유산 등에 의해 결정된다.
-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가족원을 묶는 이념·태도·신념에서 발견되는 바람직한 개념이며, 가족이 가족으로 존재하기 위해 가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행동·방향·목표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의 생활 스타일을 결정하고 가족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제공해 준다.

학습정리

1.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은 사회 분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산물로 분화된 역할 및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생겨난다.
2. 가구의 대표자(=가구주)의 사회적 지위가 가족원의 지위로 평가되며, 자신이 출생한 가족의 계층에 따라 기대수명, 개인의 지능발달, 신체적 발달조건, 교육의 기회 등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특징적인 가족생활 양식을 갖기도 한다.
3.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혹은 가족생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의식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부모에 대한 효와 가부장제, 영속적 집단으로서의 '집'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다.
4.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남녀평등, 개인주의 사상 등의 영향으로 가족집단은 제도적 · 법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5. 가족의 가치관은 가족의 설립자(=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가족이 가족으로 존재하기 위해 가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행동 · 방향 · 목표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가족의 생활스타일을 결정하고 가족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제공해 준다.

가족의 특성(3) - 가족생활주기 / 3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분류할 수 있다.
3. 현대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4. 미래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유용성
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3. 현대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특성
4. 미래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변화

본 학습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유용성

1)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의 개념

- 가족생활주기는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 결혼 · 출산 · 육아 ·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한다.
- 가족은 부부의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 · 확대' 되었다가 자녀의 결혼 · 분가로 '축소'되면서 가족을 형성했던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2) 가족생활주기의 유용성

-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취하는 방법으로, 가족생활이 지속되고 연속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 가족생활주기 관점은 가족의 생활주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국면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취약점과 강점을 시간적 차원과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유영주 외, 2015).

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1)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라운트리(Rowntree, 1906)가 개인의 발달처럼 가족 생활에도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이후,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다양한 관점이 나타났다.

- 특히 1930년대 미국의 농촌사회제학자인 소로킨, 짐머만, 갤핀(Sorokin, Zimmerman, Galpin, 1931)이 가족생활주기라는 개념을 정식 제안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각기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제시하였다.(유영주 외, 2015).

(1) 2단계 분류

- 2단계 분류는 가장 간단한 분류이며, 너무 광범위한 것이 단점이다.
 - ① 확대기 - 부부의 결혼부터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
 - ② 축소기 -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족을 떠나 독립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는 시기부터 부모 세대 중 하나 또는 양쪽이 사망하여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

(2) 소로킨(Sorokin, 1931)의 4단계 분류

- 가족원들의 구성과 가족크기에 따른 4단계 분류
 - ①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단계
 - ②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단계
 - ③ 1-2명의 자녀가 자립하여 부모를 떠나는 단계
 - ④ 노인부부만 살아가는 단계

(3) 비젤로(Bigelow, 1936)의 7단계 분류

- 가족의 수입 · 지출의 재정적인 유형의 변화와 자녀의 교육상 위치를 기준으로 7단계로 분류
 - ① 가족형성기(establishment)
 - ② 자녀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child bearing and preschool period)
 - ③ 초등교육기(elementary school period)
 - ④ 중 · 고등 교육기(high school period)
 - ⑤ 대학교육기(college period)
 - ⑥ 회복기(period of recovery)
 - ⑦ 은퇴기(period of retirement)

(4) 두블(Duvall, 1957)의 분류

- 첫째 자녀 출생에서 독립까지의 연령과 학교 교육상의 위치에 따라 8단계로 분류
 - ① 신혼부부 가족 (부부확립기, 무자녀)
 - ② 자녀 출산 및 영아기 자녀 가족 (첫 아이 출산~30개월(2.5세))
 - ③ 유아기 자녀 가족 (첫 아이 2.5세~6세)
 - ④ 아동기 자녀 가족 (첫아이 6세~13세)
 - ⑤ 청년기 자녀 가족 (첫아이 13세~20세)
 - ⑥ 독립기 자녀 가족 (첫아이가 독립할 때부터 막내 자녀 독립까지)

- ⑦ 중년기 가족 (부부만 남은 가족~은퇴기)
- ⑧ 노년기 가족 (은퇴 후~사망)

(5) 유영주(1984)의 분류

- 우리나라 도시 가족의 생활실태를 근거로 6단계로 분류
 - ① 형성기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출산 전까지 약 1년간)
 -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 ③ 자녀 교육기 (첫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
 - ④ 자녀 성년기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군 복무 중이며,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
 - ⑤ 자녀 결혼기 (첫 자녀의 결혼부터 막내 자녀의 결혼까지)
 - ⑥ 노년기 (막내 자녀 결혼으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2) 전이와 발달과업

(1) 전이(transition)

- 전이는 전환이라고도 하며, 가족이 가족생활주기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발달과업

- 발달과업은 가족생활주기의 특정 시기에 직면하는 과업이다.
- 발달과업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요구와 사회문화적·가족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책임과 행동 규범들이다.
- 발달과업을 성취하면 이후의 발달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의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표 1>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 및 개인의 발달과업 예

가족생활주 기 단계	가족 발달과업	개인 발달과업
신혼부부가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수립 • 상호 만족스러운 애정표현과 성생활체계 수립 • 임신과 부모됨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
자녀출산 및 영아기 자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자녀의 부모역할 적응 • 시간과 가사의 재조정(일가정양립 방안모색) • 부부관계 친밀감 유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역할 익히기 • 집장만 또는 이사
유아기 자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 • 공간, 시간, 에너지, 재정의 재조정 •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가정경제) 안 정
아동기 자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배려 • 자녀의 학업 성취 지원 •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갖도록 환경조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관리
청년기 자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진로선택 준비, 부모 로부터의 독립 준비를 도움 • 재정 계획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점검 •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의 균형
독립기 자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독립 지원, 부모자녀관계 재정리 • 중 · 노년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준비, 여가계 획
중년기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관계 재정비 • 조부모역할 수행, 노년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 건강관 리
노년기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화 및 은퇴 적응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죽음에 대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적응

출처: 최규련(2014), 가족관계론, p23 ; 재구성

3. 현대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특성

1) 가족생활주기의 시대적 변화

- 가족생활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현대 사회에서는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 및 단산연령이 낮아졌다.
-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자녀 독립 후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만이 남게 되는 시기부터 은퇴 후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다.

2) 가족생활주기 변화 예시와 전망

1935년부터 1985년 기간 중 우리나라 기혼 여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가족생활주기의 변동을 조사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 (1) 가족생활주기 쉼 기간은 1935년~1944년에 혼인한 기혼 여성의 경우 44.5년이었으나,

1975년-1985년에 혼인한 기혼 여성은 51.8년으로 약 7년 정도 연장되었다.

- (2) 출산율 저하로 결혼부터 막내 자녀 출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자녀 출산기간은 단축되었지만 자녀들의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기가 늘어났다.
- (3)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자녀의 결혼 기간이 줄고 막내자녀 결혼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남편사망 후 부인이 혼자 남는 기간도 길어졌다.

<표 2> 기혼 여성의 결혼 시기에 따른 가족생활주기 비교

주기별 특성	부인의 결혼 시기(코호트)		
	1935~44년	1955~64년	1975~85년
초혼연령	16.1세	20.4세	22.6세
첫 자녀 출생 시 연령	20.2세	22.3세	23.8세
막내 자녀 출생 시 연령	35.7세	31.4세	26.0세
첫 자녀 결혼 시 연령	45.0세	48.5세	50.0세
막내 자녀 결혼 시 연령	60.5세	57.6세	52.2세
남편 사망 시 연령	54.7세	59.0세	67.2세
사망연령	60.6세	66.6세	74.4세
결혼기간 (결혼~사망)	44.5년	46.2년	51.8년
자녀 출산기간 (첫 자녀 출산~막내 자녀 출산)	15.5년	9.1년	2.2년
자녀 결혼기간 (첫 자녀 결혼~막내 자녀 결혼)	15.5년	9.1년	2.2년
노부부 기간 (막내 자녀 결혼~남편 사망)	5.8년	1.4년	15.0년
부인 홀로된 기간 (남편 사망~부인 사망)	5.9년	7.6년	7.2년

출처: 공세권 외(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p27-30 재구성;
이정우 외(2001), 현대 결혼과 가족 문화. p17, 재인용.

4. 미래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변화

1)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전망과 발달과업

- 미래의 가족은 자녀를 독립시킨 후 부부만의 중·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와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 가족과 개인의 주요 발달과업이 될 것이다.

<표 3> 미래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예(가상)

가족생활주기 단계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	2005년생
초혼연령(신혼부부 가족)	28세	32세	35세	
첫 자녀 출생 시 연령(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30세	33세	36세	
막내 자녀 출생 시 연령	32세	35세	(37세)	
첫 자녀 결혼 시 연령	60세	65세	72세	
막내 자녀 결혼(독립) 시 연령	62세	67세	73세	
사망연령(평균수명 기준)	80세	85세	90세	
혼인기간(결혼~사망)	52년	53년	55년	
자녀 양육기간(첫 자녀 출산~막내자녀 결혼/독립)	34년	35년	38년	
중·노부부 기간(막내 자녀 결혼~남편 사망)	18년	18년	17년	
배우자 홀로된 기간(배우자 사망~ 홀로된 배우자 사망)	약 7년	약 6년	약 5년	

2) 미래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주기

- 독신 가족, 사별 가족, 이혼 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였고 미래 사회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생활주기를 다양한 가족에 응용·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 이혼 가족의 생활주기

- 가족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이혼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회복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4> 이혼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단계 및 정서적 과정

단계		전환의 정서적 과정: 태도
이혼결정		부부의 긴장이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없음을 수용한다.
가족해체 계획		체계의 모든 부분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자녀양육권, 경제문제, 확대가족과의 관계 등)
별거		· 협조적인 공동부모관계를 지속하고 자녀에 대한 재정원조를 함께 한다. ·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혼		정서적 이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상처, 분노, 죄의식을 극복한다.
이혼 후	한부모 (자녀양육)	재정적인 책임감의 유지, 전배우자와의 부모적인 접촉, 전배우자의 자녀와 그 가족과 지지적 접촉을 한다.
	한부모	전배우자와의 부모적인 접촉을 유지, 자녀에 대한 보호적인 부모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2) 재혼 가족의 생활주기

- 재혼 가족은 가족의 구조, 기능, 가족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초혼 가족과 다른 특징과 발달단계를 갖는다.

<표 5> 재혼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단계 및 요구되는 태도

단계	요구되는 태도
새로운 관계의 시작	첫 번째 결혼의 상실을 회복한다.(적절한 정서적 이혼)
새로운 결혼생활과 가족에 대한 개념화와 계획	자신의 두려움 및 재혼과 복합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새 배우자 및 자녀의 두려움을 수용하며, 역할 · 경계 · 정서적 문제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새롭고 다양한 역할 · 경계: 공간, 시간, 멤버십, 권위 · 정서적 문제: 죄의식, 부모들에 대한 충성과 관련된 갈등, 상호관계에 대한 바람,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
재혼과 가족의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배우자와 이상적인 '완전한' 가족에 대한 애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 침투 가능한 경계를 가진 다양한 가족모델을 수용한다.

학습정리

1.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 결혼 · 출산 · 육아 ·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하며, 가족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취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주기 상 나타날 수 있는 각 국면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취약점과 강점을 시간적 차원과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2.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한 학자 중 Duvall은 가족생활주기를 신혼부부 가족, 자녀 출산 및 영아기 자녀가족, 유아기 자녀 가족, 아동기 자녀 가족, 청년기 자녀 가족, 독립기 자녀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의 8단계로 분류하였다.
3. 현대 가족의 가족생활주기는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 및 단산연령이 낮아졌으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부터 은퇴 후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다.
4. 미래 가족은 자녀를 독립시킨 후 부부만의 중 ·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와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사는 삶을 영위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 가족과 개인의 주요 발달과업이 되었다.
5. 독신 가족, 사별 가족, 이혼 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여 가족생활주기를 다양한 가족에 응용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 3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이성교제의 일반적 성격, 기능, 단계,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배우자 선택 이론을 알고 배우자 선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이성교제 - 이성교제의 일반적 성격, 기능, 단계, 문제점
2. 배우자 선택 이론(교환이론, 공평이론, 동질혼이론, 보완적 욕구 이론, 여과망 이론, SVR이론)
3. 배우자 선택 기준과 적용

본 학습

1. 이성교제 - 일반적 성격, 기능, 단계, 문제점

1) 이성교제의 일반적 성격

- 인간이 사춘기에 도달하면 이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양상과 남녀의 교제에 대한 태도는 사회마다 다르다.
-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이 부모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이성교제가 있을 수 없었다.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배우자 선택권이나 결혼결정권이 부모에게서 점차 당사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결혼을 전제로 부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성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
-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감소하고, 젊은이 자신에게 새로운 책임감이 부여되면서 점차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청소년기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배우자 선택의 권한이 당사자에게 부여되며 결혼 전의 이성교제는 사회생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에 대해 개인의 평등과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올바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성숙을 지향하면서 즐거움과 함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

2) 이성교제의 기능(Stineett & Walters)

- (1) 배우자 선택의 기능 : 이성교제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결혼 상대자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사회화의 기능

- 자신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 이성교제를 통해 자기의식과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자신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자신을 성찰할 자기평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 이성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오락의 기능 :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친밀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3) 이성교제의 단계

(1) 그룹데이트(group date)

-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룹데이트는 동성 간의 우정에서 이성간의 만남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기능을 한다.
- 일반적으로 이성교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룹데이트를 주로 한다.

(2) 일시적 데이트(casual or random date, 자유교제)

- 여러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한다.
- 다양한 이성교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게 된다.

(3) 지속적 데이트(steady or serious date, 진지한 단계)

- 일시적 데이트의 단계가 지나면 가장 매력적인 특정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 특별히 상대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자신과의 관계만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자신도 상대방에게만 집중한다.
- 지속적인 데이트는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고 자아 욕구를 충족시키며 원활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애정을 느낀다.
- 안정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인 데이트를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상대방의 장래성과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 오락적인 측면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자신들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성적 욕구가 강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4) 결정적 데이트(pinning)

- 지속적 교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된다면 구혼을 하게 되고 결혼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약속하게 된다.
-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결정적 데이트는 당사자들에게 다른 이성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약속하는 구속적인 속성을 갖고, 커플은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고 육체적인 친밀도도 높아진다.(약혼의 시험적 단계)

4) 이성교제의 문제점과 대안

(1) 일 · 학업의 지장

- 이성 교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 일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혼전 성의 통제 문제

- 혼전 성행동에 대한 기준과 가치는 각 사회,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다. 혼전 성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 되면서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상황에서나 기대되는 행동이 다른 이중기준이 존재하기도 한다.
- 혼전 성행동 관련된 압박감, 죄책감, 성병, 임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압박감의 예: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받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죄책감의 예: 자신의 성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험을 할 때, 미래의 성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혼전 성행동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다. 성행동 결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행동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3)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

- 데이트 폭력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 아래 행한 모든 행위로 언어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 데이트 폭력의 경우 호감을 가진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피해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데이트 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폭력을 쓰는 사례가 많으므로 폭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점검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4) 관계의 종결

- 이성교제는 일방 혹은 상호간의 의견불일치나, 애정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 이성교제를 종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한다.
 - ② 관계를 끝내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③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야 한다.
 - ④ 원하지 않는 헤어짐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을 없애거나 여행을 하고 환경을 바꾸는 등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헤어짐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거나 관계 종결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도움이 된다.

2. 배우자 선택 이론

1) 사회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

- 시장거래를 근거로 한 사회교환론은 고전 경제학적 행위원리를 바탕으로, 사랑은 심리적인 끌림이지만 배우자 선택은 상호거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 거래과정에서 보상과 비용의 균형이 맞을 때 교환이 공정하고 상호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며 모든 가능한 상대방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지닌 정서적 · 사회적 자원을 근거로 거래한다.
-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 사회계층이나 신분, 사랑, 성, 신체적 매력, 직업, 학벌, 가문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2) 공평 이론(Equity Theory)

- 교환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평은 공정성을 의미한다.
- 인간은 상호관계에서 준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이 되는 교환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중시하며 공평성은 서로가 각기 다른 자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양과 질에 상호형평성이 있는 동등한 결합(공정교환)을 원한다.
- 교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판단 기준이 서로 유사할 때 공평성 측정이 용이하다.

3) 동질혼 이론(Homogamy Theory)

- 자신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람 또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동질적인 기준으로 연령, 교육수준, 지능, 기타 사회적 지위나 종교, 인종, 흥미, 태도, 가치관의 유사성, 신체적 외모의 유사성 등이 있다.

4) 보완적 욕구 이론(Complementary Needs Theory)

-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매력을 느끼고 배우자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성향의 파트너와 순종적인 성향의 파트너, 서로 다른 소질을 가진 파트너 등이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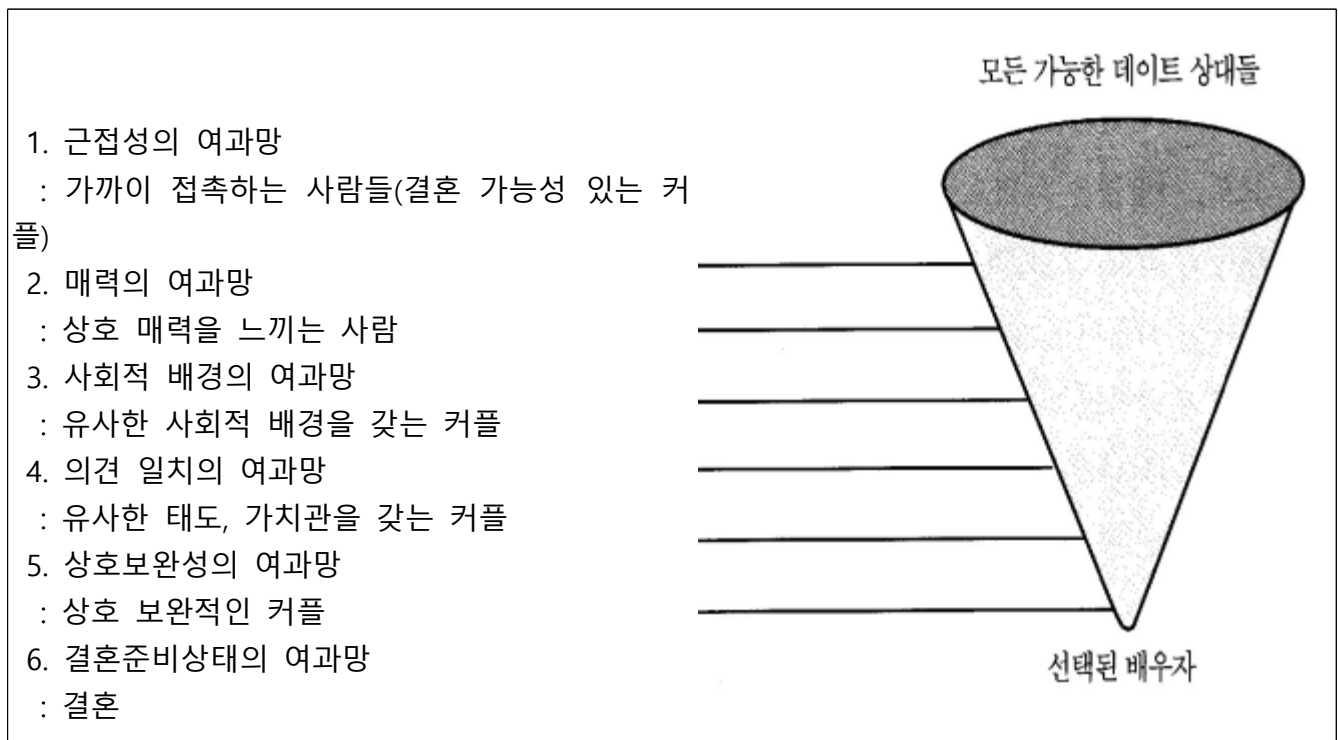
5) 여과망 이론(Filter Theory)

- 커코프와 데이비스(Kerkoff & Davis, 1962)는 약혼단계의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

요인을 중단 연구한 결과, 관계의 초기 단계에는 인종·연령·종교·사회계층 같은 사회적 특성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관계가 진전되면서 가치관의 공감각이 중요해지며, 좀 더 오랫동안 사귀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호보완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드리(Udry, 1971)는 연구를 발전시켜 모든 가능한 데이트 상대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기까지 6개의 여과망(filter)을 거치면서 점차 그 대상이 좁아지고 제한되어 마지막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6개의 여과망은 근접성의 여과망, 매력의 여과망,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의견 일치의 여과망, 상호보완성의 여과망, 결혼준비상태 여과망이다.

<그림 1> 여과망이론



출처: Udry, R(1971),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p212, 유영주외(2015), 가족관계학, p134, 재인용

6) 자극-가치-역할 이론(Stimulus-Value-Role: SVR 이론)

- 머스테인(Murstein, 1970)은 배우자 선택이 자극, 가치, 역할의 3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고 보았다. 세 단계가 연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일어나지만, 전(全) 단계에 걸쳐 이 세 요인이 다 같이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① 자극(Stimulus) 단계

- 상호매력을 느껴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단계로,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의해

상호매력을 느낀다.

- 상대방의 외모·사회계층·지적 능력·장래성 등이 기초가 되어 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 서로 총체적 매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진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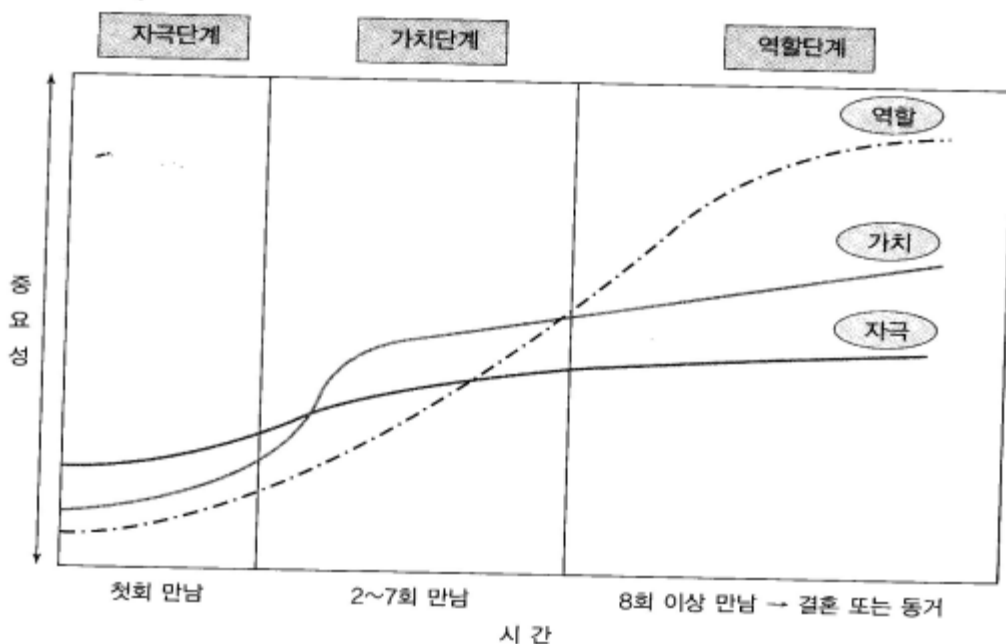
② 가치(Value) 단계

- 인생관·성·결혼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이 서로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 가치 측면에서 상호유사성이 느껴지면 관계는 더욱 발전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③ 역할(Role) 단계

- 두 사람이 부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에 얼마나 적합할지 예측해 보고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혼으로 발전되고 기대에 적합하지 못하면 관계가 중단된다.

<그림 2> Murstein의 배우자선택 단계(자극-가치-역할이론)



출처: Murstein, B.I.(1987), A Clar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SVR theory of Dyadic Pairing. Journal of family 49, p931 - 유영주 외(2015), 가족관계학, p136

3. 배우자 선택 기준과 적용

- 현명한 배우자 선택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전제 조건이므로 배우자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배우자 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배경(개인이 자라온 양육과정 중의 심리적·감정적 배경), 외모, 건강, 경제력, 공동의 관심, 행동 등이 있다.

-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동질적·상호보완적 요인과 함께 애정, 매력 등 배우자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올바른 선택이 요구된다.

1) 배우자 선택 기준

(1) 동질적 요인

- ① 사회적 지위 : 직업, 수입, 거주지, 학력 등이 유사한 계층의 사람들 간에 접촉의 기회가 많고 흥미나 취미, 생활감정이나 태도가 비슷하여 서로 친숙해지기 쉽기 때문에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지역적 근접: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경우,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고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비슷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연령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연령 범위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며, 또 비슷한 연령인 경우에 적응하기가 용이하다.
- ④ 인종: 인종 · 민족 등이 같은 경우, 생활습관이 비슷하고 언어소통이 쉽고 애정표현도 자유롭다.
- ⑤ 종교: 종교는 전반적인 가치개념이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교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2) 상호 보완적 요인

- ① 지배-순종 욕구 : 지배성과 순종성은 이질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 성격 요인으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② 양육-의존 욕구 : 양육적인 사람은 동정심이나 온정 또는 도움을 베풀면서 만족을 얻고, 의존적인 사람은 그것을 받는데 익숙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 ③ 성취-대리성취 욕구 :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과 대리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참고 1> 배우자 선택 체크리스트

<배우자선택 체크리스트 : A ~ Z까지 체크해보세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A(AGE) ~ Z(ZEST)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1), 중요하다(3), 매우 중요하다(5)

A (AGE, 나이)	B (BEAUTY, 외모)
C (CHARACTER, 인품)	D (DEGREE, 지위)
E (ECONOMY, 경제력)	F (FAMILY, 집안)
G (GAP, 격차)	H (HEALTH, 건강)
I (IDEA, 사고방식)	J (JOB, 직업)
K (KNOWLEDGE, 학력)	L (LEADERSHIP, 지도력)
M (MANNER, 매너)	N (NAIVE, 천진난만한)
O (ORGANIZATION, 단체)	P (PAST, 과거)
Q (QUALIFICATION, 조건)	R (RELIGION, 종교)
S (SENSE, 분별력)	T (TALENT, 재능)
U (UNDERSTANDING, 이해심)	V (VISION, 비전)
W (WILL, 의지)	X (X, 미지수)
Y (YAK, 유머)	Z (ZEST, 흥미)

2) 배우자 선택 기준의 적용 - 배우자 선택 유형과 고려할 점

(1) 배우자 선택 유형

- ① 자유혼: 결혼상대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부모의 간섭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자유결정형이다.
- ② 중매혼: 배우자 선택의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의견이나 조건은 무시되고 가문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시하며, 정혼과정에서 중매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혼형식이다.
- ③ 절충혼 - 자유혼과 중매혼의 중간 형태로 절충혼의 유형에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결혼 상대를 선택한 후 부모에게 소개하고 동의를 얻는 방법과 부모가 상대자를 선택하여 자녀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있다.

<표 1> 자유혼과 중매혼 비교

제측면	자유혼	중매혼
이성교제	매우 중요함	고려되지 않음
사랑	매우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상대방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있음	거의 없음
함께 하는 시간	많음	거의 없음
혼전 성관계	있을 수 있음	거의 없음
부모동의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출처: David H Olson, John DeFrain, Amy K.Olson지음,
21세기 가족문화연구소편역(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양서원. P22

(2)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점

- 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결혼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결혼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현실임을 안다.
- ②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와 같은 신체적 매력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며, 상호 애정·존경·신뢰감·인생관·결혼관 등 기본적인 가치관이 상호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상대방의 결점·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약점 또한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나 상황이 변화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서로에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④ 특정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관계를 통해 관계를 재검토한다.
- ⑤ 충분한 교제 기간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
- ⑥ 부모나 친구·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부모나 주변 사람이 반대한다면 반대 이유를 냉정히 검토하고 결정을 재고한다.

학습정리

1. 이성교제는 사회생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개인의 평등과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올바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성숙을 지향하면서 즐거움과 함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
2. 이성교제는 배우자 선택, 사회화, 오락의 기능이 있다.

3. 이성교제의 단계에는 그룹데이트, 일시적 데이트, 지속적 데이트, 결정적 데이트 단계가 있다.
4. 이성교제의 문제점으로 일과 학업의 지장, 혼전 성의 통제 문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종료되기도 한다.
5. 배우자 선택이론으로 교환이론, 공평이론, 동질혼이론 보완적 욕구 이론, 여과망 이론, SVR 이론 등이 있다.
6. 배우자 선택 시, 동질적 요인, 상호 보완적 요인 등이 기준이 된다.
7.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 결혼은 현실임을 알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를 점검해보고, 충분한 교제기간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

가족의 형성(1) - 사랑 / 4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사랑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랑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3. 성숙한 사랑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랑의 구성 요소와 특성
2. 사랑의 유형
3. 성숙한 사랑

본 학습

1. 사랑의 구성 요소와 특성

1) 사랑의 구성 요소

- 스톤버그(Robert Sternberg, 1986)는 '사랑의 삼각이론' 연구에서 낭만적인 사랑, 우정,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 매혹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여러 애정관계들을 분석하여 사랑은 세 가지 요소, 즉 '친밀감', '열정' 그리고 '약속/책임감'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1) 친밀감 (intimacy, 정서적 요소)

-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가깝고,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맺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사랑할 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의 체험이다.
- 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처음에는 꾸준히 상승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점차 속도가 줄어들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며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 친밀감의 특성
 - 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망
 - ②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 ③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
 - ④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
 - 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이해
 - ⑥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은 것

- ⑦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음
- ⑧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서적 지원을 보냄
- ⑨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함
- ⑩ 자신의 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등

(2) 열정 (passion, 동기적 요소, 감각적 특성)

- 로맨틱한 감정을 일어나게 하거나, 신체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性的) 결합을 이루게 만드는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생기게 하는 욕망이다.
- 성적 욕구가 열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욕구들, 예를 들어 자기존중 욕구, 다른 사람과의 친애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복종욕구, 자기실현 등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친밀감과 달리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 금방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열기는 식어버리고, 사람은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강도가 둔화될 수 있다.

(3) 결심/헌신 (commitment, 인지적 요소, 의지적 특성)

- 결심/헌신은 단기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 결심/헌신 요인의 두 가지 측면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그 사랑을 계속 지키겠다는 헌신을 수반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론 사랑하겠다는 결심은 없고 헌신만 있는 경우도 있다.
- 결심/헌신 요인이 생기고 증가하는 과정은 비교적 직선적이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없음(0)' 상태에서 시작하여 서로가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정비례로 증가한다. 관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헌신의 수준은 증가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정착한다.

2) 사랑의 특성

(1) 사랑은 현실 생활에 존재하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 사랑은 객관적인 진실성을 갖고 있다.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사랑의 경험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다.

(2) 사랑의 능력과 표현방식은 개인의 성장 환경 및 사회 문화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 인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사람간의 사랑이나 애정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

(3) 사랑은 여러 단계로 존재한다.

- 단지 좋아하는 막연한 호의부터 아주 강렬한 애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4)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다.

-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 청년기의 낭만적인 사랑, 동료적인 사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다.

(5) 사랑은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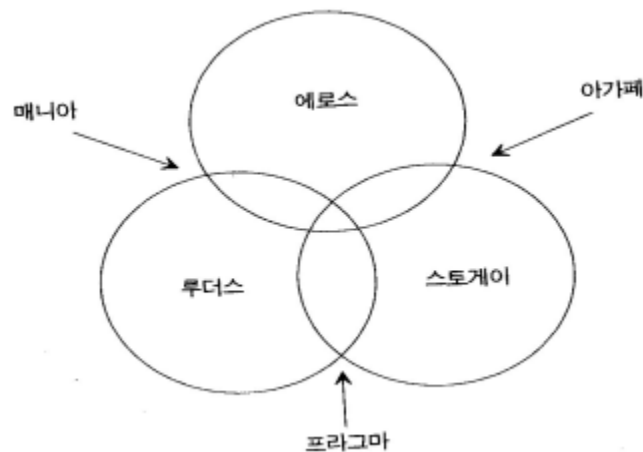
- 사랑은 섬광과 같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일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사랑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발달된 개인의 성격이나 인성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그의 타인에 대한 사랑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 (6) 이성과의 사랑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 이성과의 사랑은 다른 사랑에 비해 강한 매력과 집착, 배타성, 상대방을 이상화, 극단적 고저와 하강 상태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2. 사랑의 유형

1) 리(Lee)의 사랑의 유형

- 리(Lee, 1988)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과 사람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랑이야기 카드분류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사랑을 다양한 색깔에 비유하고 사람마다 색에 대한 선호가 다르듯이 사랑 또한 하나의 이상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호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색에 삼원색이 있듯이 사랑의 유형에도 세 가지 기본색 에로스(Eros, 낭만적 사랑), 스토게이(Storge, 동료적 사랑), 루더스(Ludus, 오락적인 사랑)가 있고 기초색이 각 두 종류씩을 결합하여 사랑의 이차색인 프라그마(pragma, 실용적 사랑), 매니아(Mania, 소유적 사랑), 아가페(Agape, 이타적 사랑)로 나타난다. 이차색 속에는 기본색의 속성이 남아 있으나 각 유형의 독특한 증후와 특성이 있다.

<그림 1> 리(Lee)의 사랑의 유형



출처: 유영주 외(2000), 현대 결혼과 가족, P 65

(1) 에로스(Eros) - 낭만적 사랑, 에로틱한 사랑, 육체적 사랑

-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속성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린다.

-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 강렬한 육체적 매력은 사라져 버리기 쉽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동반자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

(2) 스토게이(Storge, 스톨지) - 동료적 사랑

- 친구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르익는 사랑의 감정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Storgay(스토게이)에서 유래하였다.
- 극적으로 고조된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애정을 느끼며 사이좋은 친구나 오래된 동료 같은 관계의 사랑이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중시하고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 우연히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3) 루더스(Ludus) - 오락적인 사랑, 유희적 사랑

- 루더스(Ludus)는 '놀이' 또는 '게임'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 루더스식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형이 없고, 방랑자이며, 사랑의 체험들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한사람에게 몰입하지 않는다.
- 한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사랑을 놀이로 간주하여 재미를 추구한다.

(4) 매니아(Mania) - 소유적 사랑 / 에로스와 루더스의 조합

- 고대 그리스어 'theia mania(신으로부터 나오는 광기)'에서 유래하였다.
- 매니아(소유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항상 필요하다. 동시에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전에는 너무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5) 프라그마(Pragma) - 논리적 사랑 / 루더스와 스토게이의 조합

-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다.
- 쇼핑 목록을 작성하듯 상대방에게 원하는 실용적인 자질의 목록을(육체적인 특성, 정치, 종교, 사회적 배경이 같은 사람이나 취미나 좋아하는 개인적 관심사 등이 포함된 목록) 작성한다.
-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자질 목록을 기준으로 상대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조건이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될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
- 만약 서로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관계거래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결별하게 된다.

(6) 아가페(Agape) - 이타적 사랑 / 에로스와 스토게이의 조합

- 아가페는 타인 중심적이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만족감을 가지는 사랑이다.
- 아가페는 가슴이 아닌 머리가 더 많은 작용을 하며, 감정이 아닌 의지의 표출이다. 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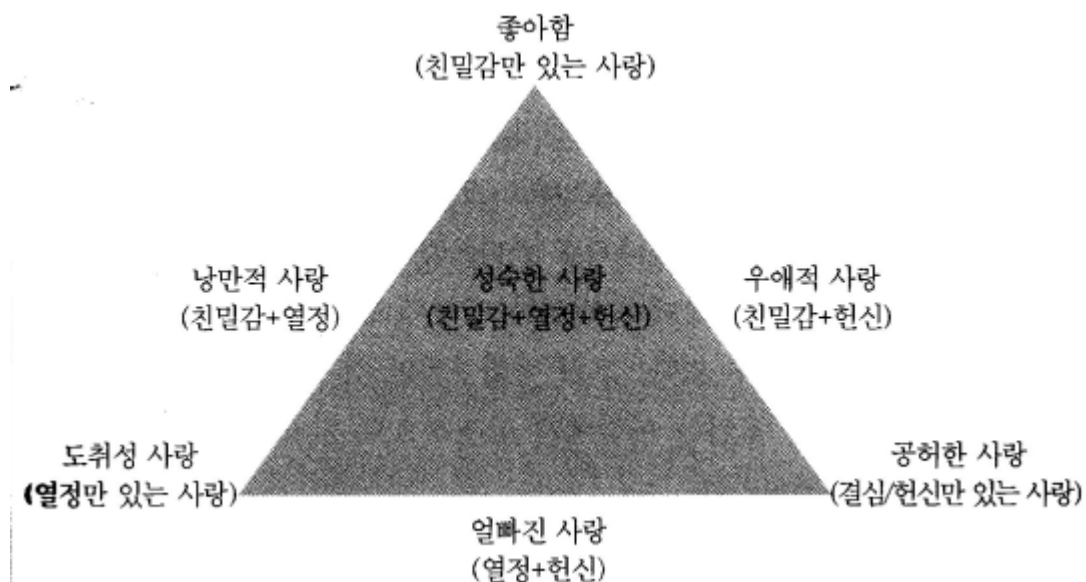
예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 의무적이며 베푸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이웃, 충직한 봉사, 헌신적인 친구로서의 행위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물러날 수도 있다.
-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 어린 보살핌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느끼며, 배우자는 그러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2) 스톤버그(Sternberg)의 8가지 사랑의 형태

- 스톤버그(Sternberg)는 사랑의 세 요소를 조합하여 여덟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림 2> 스톤버그(Sternberg)의 8가지 사랑의 형태



출처: 로버트 스톤버그 외 지음/ 고선주의 편역(1994), 사랑의 심리학, 교문사, p71

(1) 사랑이 아님(Non-love) - 모든 요소들의 부재

-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없는 상태는 사랑이 아닌 상태이다.

(2) 좋아함(Liking) - 친밀감만 있는 경우

- 열정과 결심/헌신 요소가 결여된 채 친밀감만 경험한다.
- 열정이나 장기적인 헌신 없이 상대를 향하여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3) 도취성 사랑(Infatuation) - 열정만 있는 경우

- 친밀감, 결심/헌신 요소가 결합된 열정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다.
- '첫 눈에 사랑에 빠짐' 혹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화시켜서 보는 망상으로 치우친 사랑이다.
- 도취성 사랑의 문제점
 - ① 도취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화된 모습에 기초하여 본다.
 - ② 홀린 듯한 상태가 되어 다른 일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정력, 동기 등을 잃게 되고 이러한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사랑하는 사람)의 욕구가 투사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 ③ 도취성 사랑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성이 클수록 관계가 더욱 긴장에 노출되기 쉽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빠지기 쉽다.

(4) 공허한 사랑(Empty love) - 결심/헌신만 있는 경우

- 공허한 사랑은 친밀감이나 열정이 없이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생긴다.
- 몇 년 동안 서로 감정적인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체된 관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오래된 관계의 끝 무렵,) 중매결혼에서 관계가 시작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 공허한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일 수 있으며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밀착과 유대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결심/헌신만 느낄 수도 있다.

(5)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 친밀감과 열정의 결합

- 육체적인 매력이나 그 밖의 매력들이 첨가된 좋아함의 감정이다.
-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나 '관계의 지속, 영원성'에 대해서는 미래의 언젠가 다루어야 할 문제로 단순히 생각하며, 결심/헌신은 낭만적 사랑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

(6)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 - 친밀감과 결심/헌신 요소의 결합

- 친밀감과 결심/헌신 요소의 결합으로 생긴다.
-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이다.
- 대부분의 낭만적인 사랑은 점차 우애적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즉 열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나 친밀감은 남아있고 열정은 장기적이고 깊은 결심/헌신으로 대체된다.

(7) 열빠진 사랑(Fatuous love) - 열정과 결심/헌신 요소의 결합

- 열정과 결심/헌신 요소가 결합되어 생기고 친밀감 요소가 결합된 상태이다.
- 결심/헌신이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친밀한 몰입 없이 열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도취성 사랑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 (8) 성숙한 사랑(Consummate love) - 친밀감과 열정과 결심/헌신 세 요소의 결합상태
-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할 때 생긴다.

<표 1> 사랑의 8가지 형태

	친밀감	열정	약속/책임
사랑이 아님	X	X	X
좋아함	O	X	X
도취성 사랑	X	O	X
공허한 사랑	X	X	O
낭만적 사랑	O	O	X
우애적 사랑	O	X	O
얼빠진 사랑	X	O	O
성숙한 사랑	O	O	O

3. 성숙한 사랑

- 1) 성숙한 사랑의 의미
 -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정서적 요소인 친밀감, 동기적 요소인 열정, 인지적 요소인 결심/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할 때 생긴다.
 -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가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고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곧 사랑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를 알아보고 서로 알릴 필요가 있다.
 - 커플 중 한 사람은 상대방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2) 성숙한 사랑의 요소(Erich Fromm)
 -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책임, 존중, 지식 등이 필요하다.
 - (1) 관심과 배려 -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상대방을 돌보아주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의 배려
 - (2) 책임 - 상대방으로부터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 (3) 존중 -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
 - (4) 지식 -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상태 혹은 행동
- 3) 성숙한 사랑의 적용 - 사랑의 조화
 - 두 사람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어떤 유형의 사랑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사랑의 유형을 알고 어떤 사랑의 유형이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사랑하는 사람 간에 사랑의 유형이 같다면 조화가 잘 되지만, 때론 너무 비슷하여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갈등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때 지루함이나 싫증이 적을 수도 있다.
-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랑의 유형간의 결합이 사랑의 조화를 이룬다. (김중술, 1994)

학습정리

1. 사랑의 구성 요소는 친밀감, 열정, 결심/헌신의 3요소이다.
2. 사랑의 특성은 1) 현실 생활에 존재하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2) 사랑의 능력과 표현방식은 개인의 성장 환경 및 사회 문화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3) 사랑은 여러 단계로 존재한다. 4)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다. 5) 사랑은 성장한다. 6) 이성과의 사랑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등 이다.
3. 리(Lee)는 사랑의 유형을 에로스, 스토게이, 루더스, 프라그마, 매니아, 아가페의 6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스텐버그(Sternberg)는 사랑의 세 요소를 조합하여 사랑이 아님, 좋아함, 도취성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열빠진 사랑, 성숙한 사랑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 성숙한 사랑은 사랑의 정서적 요소인 친밀감, 동기적 요소인 열정, 인지적 요소인 결심/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의 형성(2) - 건강한 성(性) / 4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성의 특성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체적 성 및 사회적 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건강한 성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성(性)에 대한 이해 - 성의 특성, 성의 개념
2. 신체적 성
3. 사회적 성
4. 건강한 성

본 학습

1. 성(性)에 대한 이해

1) 성의 특성

- 인간의 성은 생식과 본능의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결산물이다.
- 인간의 성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인의 성 특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제도, 관습 및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개인에게 내재된 성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사회의 성 의식에 영향을 미쳐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성과 사회의 성은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평등한 인간으로서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갖고 건전한 성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성(性)의 개념

(1) 섹스(sex)

- 일반적으로 성적인 행동,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나, 선천적인 생물학적 남녀구분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 인간의 성(sex) 구분은 생물학적 및 유전인자의 구성(성염색체 XY 혹은 XX), 성호르몬

분비(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 생식선(고환과 난소), 외부적인 생식조직(음경과 음핵) 등으로 분류된다.

(2) 젠더(gender)

- 사회문화적 · 심리적으로 남성성(masculinity) 혹은 여성성(femininity)의 상태로 사람이 태어난 후 사회 · 문화적 환경에 의해 학습된 후천적인 성을 의미한다.
- 젠더는 사회가 변화되면 그 시대에 적합한 여성 · 남성으로 구분되는 젠더의 실체가 재정의 된다.

(3) 섹슈얼리티(sexuality)

- 성욕, 성애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꿈, 행동,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전성(全性)적인 의미이다.

2. 신체적 성

1) 신체의 차이

-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관에서 차이가 나고 이는 임신 3개월 말경 분별된다.
- 출생 시 남아가 여아보다 크고 강하지만, 이후 신체적 성장과 감정적 성숙의 속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빨라 사춘기에 이르면 여성이 2년 정도 앞선다.
- 신생 여아는 남아보다 말하고 걷는 것을 먼저 배우고 움직임이 세련되고 집중력이 있는 반면, 신생 남아는 몸을 크게 움직이는 자발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
- 두뇌기관의 성차는 크지 않다.
- 성인 남성은 여성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우며 근육이 크고 강하다. 여성은 골반이 넓고 얇아 임신하여 태아를 출산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 체내 에너지 사용에 있어 신체 질량 단위당 에너지 요구량의 남녀 차이는 없으나 남성의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요구량, 칼로리 섭취량이 남성이 더 많다.
- 출생률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고, 사망률도 남아가 높다.

2) 생식 구조의 차이

(1) 남성의 생기관

- 남성의 생식기 계통은 고환, 부고환, 정관, 음경 및 세 개의 부속성선(전립선, 정낭, 카우퍼선(Cowper's gland)) 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외생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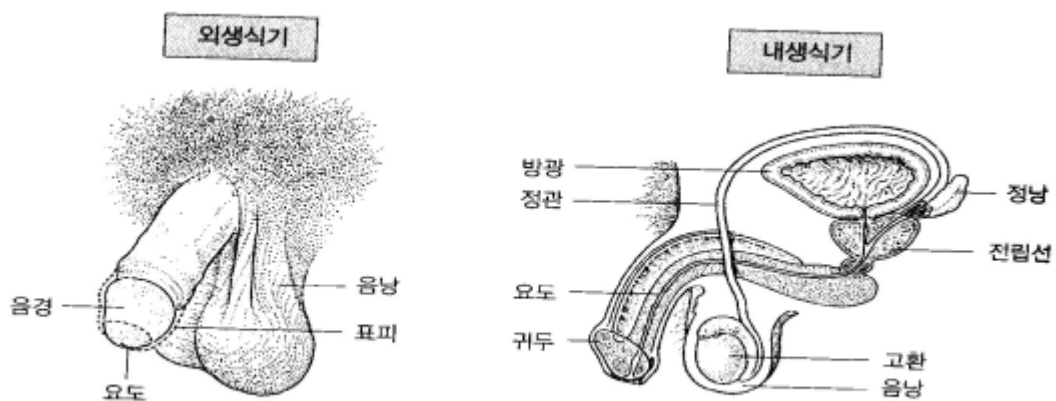
- 생기관 중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 -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 등
- 음경 : 오줌과 정액의 통로이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발기현상이 일어난다.
음경 끝에 표피기관이 있다.
- 음낭 : 음경의 뿌리에 위치한 피부주머니(불수의근)로 2개의 고환이 들어있다.

- 고환 : 정자와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② 내생식기

- 성기관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 - 전립선, 정관, 정낭 등
- 전립선 : 사정할 때 필요한 정액을 생산하며(정액의 1/3 생산) 방광 바로 아래 있다.
- 정관 : 생산된 정자를 보관했다가 사정과 함께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정낭 : 정낭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액을 만드는 곳이다.(정액의 2/3 생산)

<그림 1> 남성의 생식구조



* 자료 : Strong, V.B. & DeVault, C. (1995).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 Co.

출처: 유영주 외(2013), 가족관계학 p92

(2) 여성의 성기관

- 여성의 성기관은 외생식기인 대음순, 소음순, 음핵, 전정부 등과 내생식기인 질, 자궁, 난관(나팔관), 난소 등을 포함한다.

① 외생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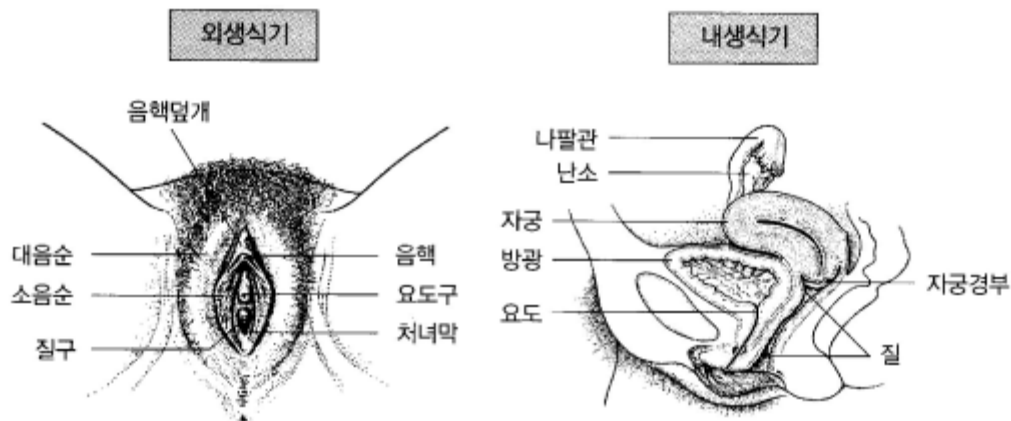
- 성기관 중 눈에 보이는 기관 - 질입구와 외음부(대음순, 소음순, 음핵)
- 외음부 :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며, 질과 요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대음순 : 회음부에 길게 융기된 지방 조직으로 아포크린(apocrine)선을 가지고 있어 이성을 성적으로 자극한다.
- 소음순 : 피부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분비물을 생산하는 피지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 음핵 : 수많은 감각 말단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민감한 막으로 덮여 있어 성감도가 높은 곳이다.

② 내생식기

- 성기관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 - 질, 자궁, 난관과 난소
- 질 : 길이가 9~10cm 정도로 후상방을 향해 자궁경부로 이어진다.
- 자궁 : 골반강 내에 위치하는 두꺼운 벽으로 된 장기로 질과 대략 직각으로 연결된다.

- 난관(나팔관) : 자궁에서 좌우로 뻗어 있는 두 개의 관으로 난소로부터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한다.
- 난소 : 난관의 끝에 좌우 하나씩 있는 회백색 타원형 기관으로 난자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림 2> 여성의 생식구조



* 자료 : Strung, B. & DeVault, C., (1997),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 Co.

출처:유영주 외(2013), 가족관계학 p93

3) 성 반응주기

- 성 반응주기는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경험하는 동안 일어난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의 단계 또는 주기이다.
- 마스터스와 존슨(Masters & Johnson, 1966)은 성인 남녀의 성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성반응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편의상 흥분단계(흥분기:excitement), 고조단계(고조기:plateau), 절정단계(절정기/극치기:orgasm), 회복단계(회복기/해소기:resolution)의 4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은 차이보다 유사성이 많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남녀간의 성반응의 차이는 남성만이 사정을 한다는 것과 여성은 짧은 시간 내에 일련의 오르가즘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2가지이며, 이러한 차이도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1) 흥분단계

- 성적 환상이나, 소리, 냄새, 신체 접촉 등이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성적인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주로 근육이 단단해지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증가하며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성행위 전의 흥분상태가 표현된다.

- 성적인 자극을 제거하면 성적인 흥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흥분단계가 멈춘다.

(2) 고조단계

-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적인 흥분상태가 높아지는 단계이다.

(3) 절정단계

- 남녀 모두 성기 주변의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면서 순간적으로 황홀한 느낌을 경험한다.
- 오르가즘의 감각은 주로 골반부근에서 느껴지나 몸 전체를 통하여 느껴지기도 한다.
- 쾌감의 정점과 성적인 긴장의 방출은 사정을 통해 극에 달한다. 남성의 오르가즘은 보통 사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오르가즘을 위해 반드시 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성적 긴장이 갑자기 방출되고 따라서 성적 흥분상태가 급격히 감소한다.
- 남성은 보통 한 번의 성행위에서 한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하지만, 일부 여성은 한 번의 성행위 동안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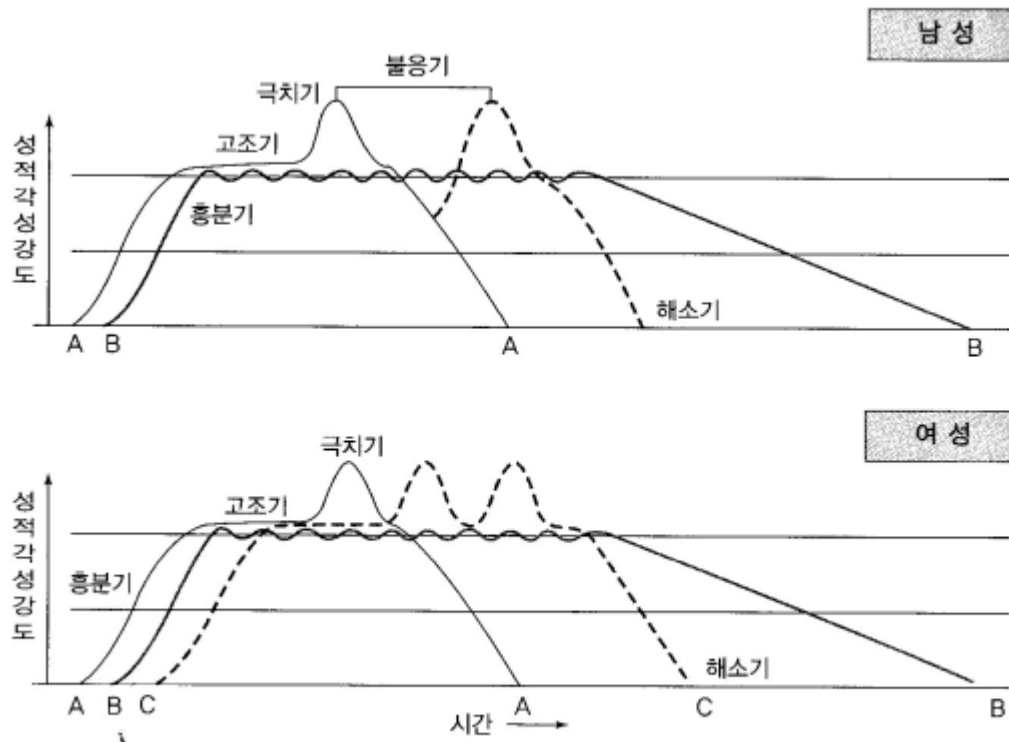
(4) 회복단계

- '폭풍 후의 고요'와 같은 상태로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적인 흥분상태와 흥조현상이 사라지며, 근육의 긴장이 감소하고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이 보통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온다.
- 남성의 경우 사정 후에는 발기된 음경이 이완된다.

(5) 비고 : 불응기(재흥분간격기, refractory period)

- 오르가즘을 경험한 경우, 회복단계의 남성들은 다음 오르가즘이 가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불응기라고 한다.
- 불응기는 개인에 따라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다양하며 대개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림 3> 성반응주기



* 자료 : Olso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 Co., p. 411.

출처:유영주 외(2013), 가족관계학 p94

3. 사회적 성

1) 성과 성역할에 관련된 개념들

(1) 성정체감(gender identity)

-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여기는 개인의 자각이다.

(2) 성역할(gender roles)

- 남성과 여성이 취할 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문화적으로 정의된 기대이다.

예) 과거 : 여성 - 자녀 양육, 집안일 / 남성- 가게 부양, 바깥일

현대 : 남녀 모두에게 부양자 역할과 가사 일을 공유하는 태도가 기대됨

- 성역할의 개념은 생식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심리적 ·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 개인의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시킨 정도는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역할 태도로 나타난다.

(3) 성역할정체감(gender-role identity)

- 남성성 또는 여성성으로 간주되는 특성에 대한 개인의 정체감으로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4)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 남성과 여성의 능력, 인성특성, 사회적 행동에 관한 신념(종종 부정확한 것으로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5) 성각본(sexual script)

-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나 교육, 경험 등을 통하여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문화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일련의 기대이다.

(6) 성차(gender differences)

- 연구관찰에 기초하여 본 남녀간의 실제 행동상의 불일치이다.

(7) 성지향성

- 섹스 파트너로서 이성, 동성 또는 양성에 관한 개인의 선호이다.

2) 성역할 이론

- 인간이 자신의 성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제에 대한 대표적 이론들로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동일시 이론 등이 있다.

(1) 사회학습 이론

- 아동이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지만 부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학습한다.
-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한다.

예) 여아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면 부모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하고, 안전하게 행동했을 때 여자답다고 칭찬하고 보상함으로써, 여아는 칭찬받은 대로 행동하며 성역할을 배운다.

(2) 인지발달 이론

- 아동은 자신의 정서적 성숙 여건 혹은 정신적 능력의 발달에 따라 성역할을 학습한다.
- 아동은 자신의 성(性)이 영구적인 것임을 인식하면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동성 또래 집단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하면서 성역할을 배운다.

(3) 동일시 이론

- 아동은 동성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같은 행동을 동일시한다.
- 예) 남아-외디푸스 콤플렉스, 여아 -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한다.

3)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족, 학교, 또래, 대중매체 등이 있다.

- (1) 가족 – 태몽, 부모의 양육태도, 형제 수, 출생순위, 형제관계 등
- (2) 학교 – 교과과정, 학교 조직, 교사의 성역할 태도, 진학상담 등
- (3) 또래 – 또래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적인 역할 등
- (4) 대중매체 – TV, 잡지, 인터넷 등
 - 대중매체를 통해 성역할 모델링이나 동일시 대상을 정하기도 하고,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대중매체에서는 건강하고 평등한 성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건강한 성

1) 건강한 성역할 - 양성성

- 양성성(androgyny)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뱀(Bem, 1975) -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양성성'을 주장하였다.
: 양성성을 갖도록 사회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는 것보다 기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양성성이 높은 사람(= 양성적인 사람)은 한 가지 성역할에 고정되지 않고,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동기, 결혼만족도, 도덕성 발달 및 자아수준이 높고, 독립적이면서도 부드럽고 기존의 성역할에 고정되지 않은 적응적인 성격과 행동을 하며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문제에 대한 이해

- 인간의 성(性)과 성행동은 충동과 본능에 의한 행위가 아닌 이성과 감성, 정신의 종합적인 작용이며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다.
-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고 성행동을 하며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건강한 성행동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두려움이나 불쾌감, 죄의식 등이 없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건강한 성행동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성병 감염의 위험이 없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신중한 선택에 의한 성행동이 아닌 경우 이후의 이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성폭력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주로 인정하였으나, 현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2) 혼전 성

- 혼전 성 경험은 성관계를 가졌던 당사자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리적인 부담이나 후회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 간에 혼인이 성사된다 해도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 혼전 성경험에 따른 문제점
 -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몰입하거나 사회적 · 지적으로 소외되기도 한다.
 - 성경험으로 인한 혼전 임신으로 계획되지 않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인생 목표가 지연되고 수정될 수 있다.
 - 성윤리의 이중 기준으로 인해, 여성들이 부정적인 평가나 대우를 받기도 한다.
 - 갈등이나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혼인 후, 부부간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습정리

1. 인간의 성은 생식과 본능의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사회 · 문화적 결산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생식기관에서 차이가 난다. 성 반응주기는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경험하는 동안 일어난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의 단계로 남녀 모두 흥분단계, 고조단계, 절정단계, 회복단계를 거친다.
3.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취할 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문화적으로 정의된 기대로, 성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제에 대한 이론으로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동일시 이론 등이 있다.
4. 양성성은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양성적인 사람은 한 가지 성역할에 고정된 사람보다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동기, 결혼만족도, 도덕성 발달 및 자아수준이 높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성 (3) - 약혼과 결혼 / 5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약혼의 기능과 특성을 서술할 수 있다.
2. 약혼 중의 문제점과 적응 방안을 분석할 수 있다.
3. 결혼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약혼의 기능과 특징
2. 약혼 중의 문제점과 적응 방안
3. 결혼의 의의와 절차

본 학습

1. 약혼의 기능과 특성

- 약혼(engagement)은 장차 결혼하려는 두 남녀가 당사자 사이에 결혼 약속을 하는 것이다.

1) 약혼의 기능

- (1) 약혼은 앞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리라는 것을 공표한다.
 - (2) 약혼은 이성 관계를 두 사람만의 관계로 한정한다.
 - (3) 약혼 기간에 상대방의 인격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진다.
 - (4) 약혼 기간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5) 약혼 기간은 앞으로 이룩할 가정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및 적응에 관해 의논하고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약혼기간에 상대방의 습관, 경제 문제, 생활관, 가족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은 약혼기간에 상호간의 적응이나 화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비적합성이 발견된다면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억지로 참고 결혼에 순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약혼의 특성

- (1) 약혼의 의미와 형식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 (2) 약혼은 결혼에 앞서 상호적응의 준비단계를 갖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3) 약혼을 결혼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여 결혼식 등 형식적인 준비에만 치중하기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혼 이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약혼의 성립 요건

: 약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약혼의사의 합치, 약혼연령 충족 등의 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 ① 약혼 의사의 합치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② 약혼연령(만 18세) 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근친간의 약혼이 아닐 것 -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5) 약혼의 효과

: 약혼으로 인하여 결혼의무의 부담 등의 효과가 생긴다.

- ① 결혼의무의 부담 -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신분관계의 변동 -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결혼준비자-결혼 및 약혼제도-약혼 및 파혼)

2. 약혼 중의 문제점과 적응

1) 애정 표현이나 성적 표현

- 약혼기간은 지금까지의 교제 기간보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애정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두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될 사이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애정을 느끼고,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게 된다.
- 약혼한 남녀는 곧 결혼할 사이라는 생각에 성행위를 받아들이기 쉬우나, 약혼기간은 결혼의 여부, 상호간의 적응여부를 검토해보는 시험단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혼전 성행위로 사랑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사랑이 약화되며 서로의 신뢰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결혼에 대한 열정이 식거나 결혼 후 성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신혼여행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현대 사회에서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배우자 선택에서 있어 당사자들의 결정이 부모의 의견보다 점차 중시되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결혼이 성공률이 높다.
- 결혼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결합되는 것이고 개인의 인성은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약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족과 융합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과거에 관한 문제

- 약혼자들 사이에는 서로 솔직하게 해야 하며 비밀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본다. 일시적인 이성과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경험은 서로 솔직히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문제 해결 능력

- 약혼한 두 사람은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장래의 계획

- 약혼기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장래 결혼 생활 계획에 관해 약혼자와 의논해야 한다.
- 약혼한 남녀는 장래를 계획하며 출산시기, 자녀수 등의 자녀 계획, 결혼 후 소득관리 및 직업, 주거, 직장 생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의 형태, 비용, 시기, 신혼여행의 규모와 장소 등 결혼예식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파혼

- 파혼은 약혼자와의 결혼 약속을 해제하는 것이다.
- 약혼 기간 중 결혼을 위한 탐색 과정에서 쌍방 또는 일방적으로 결혼상대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을 하거나 두 사람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결혼 약속을 해지하게 된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혼 해제 시에는 약혼 시 교환했던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파혼의 원인

- ㉠ 애정의 감소 - 약혼자 사이의 한 사람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어

파혼하기도 한다.

- ㉠ 격리된 생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혼자들이 장기간 헤어져 있는 경우, 애정이 식기 쉽고 새로운 사람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며 자신의 애정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 ㉡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 -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할 때 파혼하기도 한다.
- ㉢ 성격의 부조화 문제 - 약혼 기간 동안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어 파혼하기도 한다.
- ㉣ 가족과 친구의 영향 - 배우자 선택에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이지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치면, 주관이 흔들려 변하기 쉽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찬성한 결혼은 반대한 결혼보다 성공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 결혼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결혼생활이 보다 순탄하고 용이할 수 있다.
- ㉤ 기타 요인들 - 소비 패턴이나 경제관 등 경제적 태도가 상이한 경우, 약혼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독립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약혼자와 태도나 가치관이 다르고 상호 수용할 수 없을 때 파혼할 가능성이 높다.

② 파혼에 대한 적응

- 파혼은 당사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나 이혼만큼 고통스럽거나 비극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 결혼이란 동정이나 자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부부가 되어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파혼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파혼 역시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상대방과 미래의 결혼생활을 계획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파혼에서 오는 상처를 해소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방법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모임 등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해 보는 것이며, 파혼으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자살 시도 등은 회복과 적응을 어렵게 한다.

[참고 1] 약혼 관련 법

제 3장 혼인

제 1절 약혼

제 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 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 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 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 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제 3장 혼인, 제 1절. 약혼

3. 결혼의 의의와 절차

- 결혼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개인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 법적 결합이며 권리와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 즉 남녀 두 사람이 적령기에 달하여 이성교제를 하고 사랑을 배우면서 서로 배우자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결혼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결혼의 의의

- 인간은 결혼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은 제2의 탄생이라고 한다.
-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원 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고 가족 내 · 외적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 결혼의 의의는 시대적 · 역사적으로 변하였다.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획득, 자녀 출산 등 실용적인 필요성이 우선시 되고 도덕률과 사회규범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배우자간의 애정이나 동반자 의식, 공감, 인간적 성장, 행복감의 추구 등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 (1) 결혼은 정서적 관계이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삶을 함께 한다.
- (2) 결혼은 성적(性的)인 일부일처의 관계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정숙이 요구된다.
- (3) 결혼의 법적 책임의 관계이다. 결혼은 법적 약속이며,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 (4) 결혼은 자녀의 적출(嫡出)을 보장하는 관계이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결혼하는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를 적출로 인정되고 부모에게 자녀를 보살필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 (5) 결혼은 공적 의식의 관계이다. 결혼 의례를 통해 공적인 의식이 이루어진다.

2) 결혼의 절차

(1) 결혼 동기

- 결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기보다 하나의 제도이고 관례이다.
- 결혼은 관습, 도덕, 태도, 이념, 이상의 총체이고 사회적 · 법률적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 결혼은 사랑,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동반자와 함께 하기, 자녀 출산과 가족 형성, 성적 충족, 사회적 지위 획득 등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전통 가족의 결혼은 결혼당사자의 선택보다 가계 존속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나, 현대 가족의 결혼은 개인의 욕구 충족과 발전 및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결혼의 동기가 된다.

① 결혼의 개인적 동기

- 애정적 · 감정적 안정
- 성적 충족
- 자녀출산을 통한 자기존재감 확인
- 종족 계승

② 결혼의 사회적 동기

- 결혼을 통하여 사회적 공인을 받고자 한다.
- 결혼의 개인적 동기는 사회적 의의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성욕 충족은 혼인관계를 통해 통제되며, 종족계승의 기능이 달성된다.

(2) 결혼 준비

- 결혼은 개인 남녀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 법적 의미를 가진다.
-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부부가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 예비부부는 과다한 혼수와 분에 넘치는 호화 결혼식을 준비하기 보다는, 결혼 준비로 예비부부교육(결혼준비교육)을 받음으로써 결혼을 뜻있게 준비할 수 있다.

①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 근친혼(近親婚)과 중혼(重婚)이 아니어야 한다.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9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신고이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어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가 가능하다.

② 결혼준비교육

- 결혼준비교육이란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앞으로의 결혼생활이 일어날 어려움에 대비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준비하는 학습 과정이다.
- 결혼 전에 상상하는 결혼과 실제 결혼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혼은 현실임을 인식하고 두 사람의 노력에 따라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
- 결혼 전에 결혼준비로 예비부부가 함께 결혼준비교육을 받는 것이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결혼준비교육의 목표는 결혼 전의 남녀가 그들의 관계를 평가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은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여성단체, 평생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교양강좌로도 행해지고 있다.
-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로에 대한 이해증진: 성장과정에 대해 나누기, 성격의 이해, 남녀의 차이와 배경 이해
 - ㉡ 친밀감 발달: 올바른 성 이해, 애정의 표현, 공유의 감정도달
 -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적극적인 경청과 명확히 말하기
 - ㉣ 생활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재정, 친·인척관계, 가사노동, 육아, 정서적 행동 등에서 야기되는 갈등에 대처하기
 - ㉤ 가족가치의 인식: 사랑, 헌신, 배려 등과 같은 가족가치를 인식하고 내 속의 잠재력 찾기

등

③ 결혼예산

- 결혼날짜가 정해진 후 본격적인 결혼준비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혼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예산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함들이

- 함들이는 신랑 친구들의 놀이마당 형태로 행해지며 얼굴에 오징어를 쓴 함진아비, 말을 끄는 마부, 청사초롱을 든 사람들이 등장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녁 늦게까지 소란스럽게 함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함들이 행사는 점차 감소하였다.

- 함들이 행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함 값 실랑이로 신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전통 혼례에서 신랑의 집에서 신부집에 결혼식 전에 신부를 위한 예물과 혼서지를 보내 혼인을 준비하게 하던 납폐(納幣)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⑤ 혼수

- 혼수는 신혼의 생활필수품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단은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선물의 의미를 가진다.
- 주요 혼수로 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및 예물 등이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건전한 혼인의식을 갖고 허례허식, 과소비를 근절하고 근검하고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결혼식

- 결혼식은 경사이고 중요한 의식이다. 그러나 화려한 예식 등 부담스러운 형식 위주가 아니라 예비부부가 자신들의 개성과 형편에 맞춰 준비하는 실용적인 결혼식이 권장된다.
- 예식장은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와 지역, 예상 하객 수, 교통편의, 요일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현대 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대체로 개식(사회자 진행) → 신랑입장(혼자입장) → 신부입장(아버지 인도 하에 입장) → 신랑신부 맞절 → 신랑신부 서약 → 예물증정(반지교환) → 성혼선언 → 주례사 →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 신랑신부 행진 → 폐식(사회자 선언) 으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 최근에는 결혼식 절차를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결혼식장에서 기념 촬영이 끝나면 신랑신부는 다시 폐백을 드린 후 옷을 갈아입고 피로연 장소로 나가 친지, 친척 등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신혼여행지로 떠남으로서 결혼의식을 마친다.
- 결혼 예식 과정에서 여성의 종속성 및 삼종지도가 강조되는 것과 서구식 결혼식과 폐백을 이중으로 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가 팽배한 것 등이 문제점이다.

[참고 2] 우리나라 전통 혼례

우리나라 전통 혼례는 고려말 가례도입 이전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을 하였다.

조선시대 유교이념에 따라 지배층에 친영제(親迎制)를 장려하였으나 오랜 기간 존속되던 서류부가혼은 바뀌지 않고 조선 중기에는 두 의례가 절충된 반친영제가 행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의 육례(六禮)를 집약해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四禮)를 행하였다.

1. 의혼 - 중매가 들어오면 양가부모와 당사자의 됃됨이를 알아보고 신랑집에서 청혼하고 신부집에서 허혼서를 보낸다.

2. 납채 - 의혼 후 사주를 보내고 택일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집에서 길일을 혼인날로 잡아 신랑집에 보내는데 택일 날짜를 적어 보낸 종이를 연길(涓吉)이라 하고 연길을 받은 신랑집에서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 치수를 신부집에 알리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3. 납폐 - 신랑 측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혼서지와 예물을 넣어 신부집에 보내는 것이다.
4. 친영 - 신랑과 신부가 혼례를 치르는 절차이다.

(출처: 최규련(2014), 가족관계론 pp106-108)

(4) 신혼여행

- 결혼식을 끝마치면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을 간다.
- 신혼여행의 기능은 두 사람이 앞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될 때의 적응관계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전환기를 갖는 것이다. 또한 신혼여행은 휴식과 여행을 통해 생활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각자의 생활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며, 정신적 · 신체적인 친숙과 성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 신혼여행지는 관광 또는 휴양, 패키지여행 또는 배낭여행 등 여행의 목적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신혼여행은 나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로 전환, 독립적 사고에서 협력적 사고로 전환, 독신의 성생활에서 결혼생활을 위한 성생활로 전환, 낭만적인 사랑에서 현실과 관련된 책임감 있는 태도와 능력으로 전환, 독신의 관습에서 가족중심의 관습으로 전환, 개인을 위한 소비에서 가족을 위한 소비로 전환, 자녀의 입장에서 부부의 입장으로 전환, 자기 가족만의 관계에서 시가 · 처가와와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 상대방의 외모나 일시적인 매력에 끌림에서 즐거움과 신뢰의 부부관계로 전환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5) 혼인신고

- 법적 승인 절차인 혼인신고를 해야 완전한 혼인이 성립된다.
-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여도 혼인신고 미비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부로 인정받는데 제한이 있다.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 3] 혼인 관련 법

제 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 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 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 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 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 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 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출처: 법제처 종합법령 정보센터

(www.klaw.go.kr)

학습정리

1. 약혼은 장차 결혼하려는 두 남녀가 당사자 사이에 결혼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약혼의 기능은 두 사람이 결혼하리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성 관계를 두 사람만의 관계로 한정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또한 약혼은 정서적 관계를 발달시킬 기회가 되며 가정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검토하며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약혼의 의미와 형태는 문화마다 다양하고 약혼으로 인하여 결혼의무의 부담이 생긴다.
3. 약혼 중에 애정 표현이나 성적 표현의 문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문제, 과거에 관한 문제, 문제해결능력 적응 문제, 장래의 계획과 준비의 문제, 파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약혼자간의 적응이 필요하다.
4. 결혼의 의의는 배우자와 사랑하며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성적(性的)인 일부일처의 관계이고 결혼의 법적 책임의 관계이다. 결혼은 자녀의 적출을 보장하는 관계이며 공적 의식의 관계이다.
5. 결혼의 절차는 결혼에 대한 개인적 동기 및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두 사람이 사회적, 법적 과정을 거쳐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결혼 과정에서 결혼준비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부부가 된다.

가족관계의 이해(1) - 역할, 권력 / 5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역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부관계 특성 및 역할 역동을 분석할 수 있다.
3. 권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4. 부부 권력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역할의 개념
2. 부부관계 특성 및 역할 역동
3. 권력의 개념
4. 부부 권력의 유형

본 학습

1. 역할의 개념

1) 역할(role)의 개념

- 역할은 개인이 차지한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어지는 행동규준이나 문화적인 행동 양식이다. 역할은 구조적인 측면과 상호문화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구조론적 측면에서 정의하면 모든 개인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지위에 따른 권리, 의무를 수행하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개인과 관련된 사회적인 태도, 지위, 행동 등의 문화유형을 의미한다.
- 상호작용론적 측면은 역할의 가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이 차지한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기대되는 태도와 행동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

2) 지위(position)의 개념

- 지위는 한 개인이 사회구조 내에서 타인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과정 중 얻게 되는 보편적인 법적 · 사회적 혹은 전문적인 위치이다.
- 지위에는 출생과 더불어 지니게 되는 '아들', '딸'과 같은 고유지위(ascribed position, 생득지위)와 '남편', '아내', '선생님' 같이 개인의 노력이나 경쟁을 통해 성취한 성취지위(achieved position, 획득지위)가 있다.

3) 역할 취득 과정

- 개인의 역할 행동은 역할 기대(role-expectation), 역할 인지(role-perception), 역할 수행(role-performance), 역할 평가(role-evaluation), 역할고정(role-fixation)의 과정을 거쳐 취득(role-taking)된다.

- (1) 역할 기대는 역할 담당자에 대한 타인의 요구와 평가기준으로 타인과 상호작용 주로 모방을 통해 습득된다.
- (2) 역할 인지는 역할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자기가 수행해야 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 (3) 역할 수행은 역할 담당자가 기대와 인지와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다.
- (4) 역할 평가는 역할 담당자에게 부여되는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간의 일치나 불일치를 따져봄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인 충족감이다.
- (5) 역할 고정은 역할 평가를 통해 만족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역할 행동 유형을 자신의 역할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 역할 취득과정에서 역할 기대,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역할 평가의 단계가 불일치하면, 불일치하는 각 단계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피드백을 거친다.
- 역할수행 중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역할 갈등은 역할 취득 과정에서 각 단계가 불일치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즉 역할 기대와 수행, 역할 인지와 수행 간에 서로 일치하지 못할 때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역할내적 갈등(intra-role conflict)은 하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갈등으로 예를 들어 엄한 아버지 역할과 친구같이 편한 아빠 역할 수행 중 고민하는 것이다.
- 역할간의 갈등(inter-role conflict)은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다.

2. 부부관계 특성 및 역할 역동

- 부부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매우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하며, 가족의 하위체계로서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고유한 관계구조를 구축한다.
-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에 의해 맺어지는 비혈연적인 인간관계로, 너와 나의 단순한 합이 아닌 새로운 '우리'의 관계이며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유영주 외, 2013).

1) 부부관계의 특성

- (1)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중심 요소이다. 그러나 전통 사회에서는 친자 관계가 우선시 되기도 하였다.
- (2) 부부관계는 가장 가깝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 배우자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다.

- 부부관계는 지속되는 인간관계로 관계 양상에 따라 인격적 성숙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올바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3) 부부관계는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다(최규련, 2014).

2) 부부역할의 역동

(1) 부부역할의 개념

: 부부역할은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기대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2) 부부역할의 유형

: 부부 역할의 유형을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여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전통주의는 부부 역할이 성별에 의해 규정되어 분리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이다.
- ② 신전통주의는 전통주의와 여권주의의 절충적인 견해로 남녀 간의 기본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협조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여권주의, 즉 평등주의는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 간에 역할을 공유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부부역할의 역동

- 역할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부부역할이 변화한다.
- ① 전통적인 부부역할(Parsons,1955)은 남편은 도구적 역할,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 남편의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은 가족의 균형유지와 대외 목적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도구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 공급하는 역할이다.
 - ㉡ 아내의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은 가족구성원을 통합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 수행하는 것이다.
 - ② 현대 사회의 부부역할(Nye & McLaughlin)
 - 현대 사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부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가계부양, 가사,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오락과 휴식, 배우자에 대한 애정교환, 치료자 등의 역할이 있다.
 - ㉠ 가계부양 역할 - 경제적 소득을 얻는 것이다.
 - ㉡ 가사 역할 - 의식주 생활과 가사활동을 한다.
 - ㉢ 자녀 양육 역할 - 자녀를 신체적 . 정신적 . 물질적으로 보살핀다.
 - ㉣ 자녀 사회화 역할 - 자녀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교육한다.
 - ㉤ 오락 및 휴식의 역할 - 심신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한다.
 - ㉥ 배우자에 대한 애정교환 및 성적 역할 - 배우자와 애정을 교환하고 성적파트너이다.

㉠ 치료자 역할-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와 조언을 한다.

(4) 건강한 부부역할 수행

① 남편과 아내 각자가 여러 부부 역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가 일치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역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등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지가 일치하면 갈등이 적다.

②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부부가 역할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

④ 부부가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한다. 한 사람의 역할 과다 또는 역할 과소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3. 권력의 개념

1) 권력의 개념

: 조직체 내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권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블루드와 울프(Blood & Wolfe, 1960) - 권력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
- 스트라우스(Straus, 1964) - 권력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 주도, 변화, 수정하는 행동이다.
- 올슨과 크롬웰(Olson & Cromwell, 1975) - 권력은 사회 체계 내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 라마다와 리드만(Lamanna & Riedman, 1991) -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으로 개인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이 있다. 개인적 권력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으로 자율성(autonomy)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 권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가지면 자아발전에 도움이 된다.
- 사회적 권력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권력의 요인

: 권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권력의 기반인 자원과 권력의 과정인 상호작용 기술이 있고 권력의 결과로 결정권을 갖게 된다.

(1) 권력의 기반(자원)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이 있다.

① 경제적 자원은 화폐, 자산 등 물질적 자원을 의미한다.

② 비경제적 자원으로 규범적, 개인적, 감정적, 인지적 자원 등이 있다.

㉠ 규범적 자원 - 문화적 정의에 의한 자원, 특정 지위에 따라 가질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연령규범 등이 있다.

㉡ 감정적 자원 -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존의 특성이다.

㉔ 개인적 자원 - 개인이 갖고 있는 지능, 특성, 전문적 지식, 기술, 선택 대안 등이 있다.

㉕ 인지적 자원 - 영향력의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입 자체보다 수입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자원이 될 수 있다.

- 부부간에 교환될 수 있는 자원(Safilios & Rothschild, 1976)으로 사회경제적 자원(돈, 특권 등), 표현적 자원(이해, 관심 등), 동료적 자원(여가 등), 성적 자원, 서비스 자원(가사서비스, 자녀양육 등), 권력적 자원(관계에서의 권력 등) 등이 있다.

(2) 권력의 과정(상호작용)

: 상대방과 협상하거나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시적, 명시적 상호작용 기술이다.

- 일반적인 상호작용 기술로 설득, 주장, 절충, 논리적 진술, 위협 등이 있으며 상호작용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권력의 결과(결정권)

: 상호작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적인 결정권이다.

4. 부부 권력의 유형

1) 민주형과 권위형

: 부부간의 권력 유형을 크게 민주형과 권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민주형 - 가사에 대한 결정권이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융합하고 수용하여 상호보완적인 유형이다.

(2) 권위형 -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로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은 복종하는 유형이다.

2) 부부 권력 유형 - 허브스트(Herbst)의 분류

: Herbst는 오스트레일리아 백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4영역(가사, 자녀양육, 사회활동, 경제활동)에서 부부의 행동 유형을 남편 혼자 행동하는 형, 아내 혼자 행동하는 형, 부부공동으로 행동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할 분담을 분석하고, 역할분담 행동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분석하여 결정권 유형을 남편단독권, 아내단독권, 부부공동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행동유형과 결정권을 기준으로 9가지 상호작용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부 권력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부부 상호작용 유형 - 9가지

- ① 남편 혼자 결정 : 남편 혼자 행동 / 아내 혼자 행동 / 부부공동으로 행동
- ② 아내 혼자 결정 : 아내 혼자 행동 / 남편 혼자 행동 / 부부공동으로 행동
- ③ 공동으로 결정 : 공동으로 행동
- ④ 단독으로 결정 : 남편 혼자 행동 / 아내 혼자 행동

(2) 부부 권력 유형 - 4가지

- ① 부부 자율형 : 부부 각자가 영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남편 혼자

결정하고 남편 혼자 행동하는 유형과 아내 혼자 결정하고 아내 혼자 행동하는 유형이다.

- ② 부부 공동형 또는 협동형 :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 또는 각자 행동하는 유형으로 부부가 대등한 관계로 협동적 분업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행동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고 남편 혼자 행동, 아내 혼자 행동하는 유형이다.
- ③ 남편 지배형 : 남편의 지배하에 결정하고, 아내나 부부가 행동하는 유형이다.
- ④ 아내 지배형 : 아내의 지배하에 결정되고, 남편이나 부부가 행동하는 유형이다.

3) 부부 권력의 적용 - 평등 부부의 특징

- (1)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하고 가족 부양도 함께 한다.
- (2) 재산과 통장 등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동등한 대표권과 관리권을 인정한다.
- (3) 가정 내 의사 결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
- (4)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 문화를 정립한다.
- (5) 시가 · 처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 (6) 부부 모두 자기 개발의 기회를 활용한다.
- (7) 불평등한 혼인 관행에서 탈피한다.
- (8) 아들, 딸 차별 없이 양성적인 인간으로 키운다. (최규련, 2014)

학습정리

- 1.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중심 요소이고 가장 가깝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다.
- 2. 부부 역할은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기대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역할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부부역할이 변화한다.
- 3. 권력은 조직체 내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한다.
- 4. 부부권력의 유형으로 부부 자율형, 부부 공동형(협동형), 남편 지배형, 아내 지배형 등이 있다.

가족관계의 이해(2) - 갈등, 스트레스 / 6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부부갈등의 개념과 대처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 스트레스 이론과 대처자원을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부부 갈등
2. 갈등 대처
3. 가족 스트레스
4. 스트레스 대처

본 학습

1. 부부 갈등

1) 갈등의 개념과 특성

- 갈등(葛藤)은 쇠덩굴(갈, 葛)과 등나무덩굴(등, 藤)처럼 일이 엉망으로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켜 쓰는 말(Basic 국어용어사전, 2007)로, 개인 내적 갈등과 개인 간 갈등이 있다.
 - 개인 내적 갈등은 개인의 욕구가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이다.
 - 개인 간 갈등은 개인 간의 욕구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이다.
- 갈등은 협동의 반개념(反概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 대상을 획득하고자 투쟁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보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 갈등은 긴장을 유발하므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활기와 역동적인 자극을 주어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집단의 결속이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갈등 자체를 문제 시 하기보다는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부 갈등

-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부부 사이의 애정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어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협동적이면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상호기대가 어긋나면 불만과 실망 등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결혼생활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은 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터만(Terman)의 연구에서 행복한 부부집단과 그렇지 못한 부부 집단 모두 결혼생활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부부집단의 주요 불만은 친척관계, 친구선택, 여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단에게 다시 생을 시작하면 결혼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792쌍 중 80%이상이 결혼을 원했고, 특히 대다수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하였다(유영주 외, 2013; 재인용).
 - 부부 갈등은 부부간의 친밀감, 부부관계의 항구성과 경쟁, 가변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Blood).
- (1) 친밀감 - 부부관계는 친밀함으로 상대방에게 개인의 모든 특성을 노출하게 된다.
 - (2) 항구성 - 결혼은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갈등이 누적되거나 참기 어렵다.
 - (3) 경쟁 - 부부는 애정이나 충분치 못한 자원에 대해 경쟁한다.
 - (4) 가변성 -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한다.

3)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에는 접근-접근 갈등, 접근-회피 갈등, 회피-회피 갈등이 있다.

(1) 접근-접근 갈등 (+ + 갈등)

긍정적인 두 가지 욕구 중 하나의 욕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예) A안도 좋고, B안도 괜찮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까 갈등한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하는 경우에 휴가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갈등한다.

(2) 접근-회피 갈등 (+ - 갈등)

끌리는 목표와 싫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접근 경향과 회피 경향을 동시에 가질 때 갈등이 발생한다.

예) '결혼'을 할까 말까 - 결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한다.

애증관계일 때,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갈등이 생긴다.

(3) 회피-회피 갈등 (- - 갈등)

두 개의 부정적인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예)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것도 싫을 때,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한다.

설거지하기 귀찮고 주방이 지저분한 것도 싫을 때, 설거지를 할까 안하고 지저분하게 지낼 것인가 갈등한다.

4) 부부 갈등의 발생 요인과 영역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되어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갈등이 생긴다.

(1) 부부 갈등의 발생 요인

- 부부 갈등의 발생요인으로 ① 부부 상호간의 행동, 지각, 가치관, 규칙, 힘의 균형에서의 차이,

② 일 관련스트레스 ③ 의존과 독립의 부조화 ④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 ⑤ 비현실적 기대 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⑦ 정신 건강 문제 ⑧ 상호불신과 비협조적 태도 ⑨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등이 있다(최규련, 2014).

(2) 부부 갈등의 영역

- 성격차이, 대화방법, 여가생활, 친인척관계, 애정표현과 성생활, 직업관련 문제, 자녀문제, 가사분담,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과 부부관계 영역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 갈등 대처

- 부부 갈등의 대처 방식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 여러 연구에서(이선미.전귀연, 2005; 박경란.이영숙, 2005; 강학중.유영주, 2003 등) 부부 갈등의 대처 유형을 주로 이성형, 공격형, 회피형으로 구분하며, 이 외에 행동표출, 외부도움요청, 순응 및 체념, 의견강요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최규련, 2014; 재인용).

1) 부부 갈등의 대처 유형

- (1) 회피형 :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생기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해가거나 화제를 바꿔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유형이다.
- (2) 설득 및 언쟁형 :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여 말로 싸우는 유형으로 언어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겉돌기형 : 문제에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충분한 자각하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내면에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4) 타협형 : 부부가 양보하고 절충하여 타협점에 이르는 유형이다. 부부가 균등하게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 양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
- (5) 협동형 : 타협, 절충, 협상을 넘어서서 협동하는 유형으로, 협동하는 과정에서 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해결책을 찾거나 새롭게 만들게 되어 서로에게 win-win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부부 갈등 대처방법

- 부부 갈등의 대처방법으로 '협동적 해결방법'이 있다. 협동적 해결방법의 원칙과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적 갈등 해결의 원칙

- ① 갈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 ② 분노 조절을 한다.
- ③ 적절한 대화 시간을 갖는다.
- ④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다.
- ⑤ 상대방이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

- ⑥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성급한 결론을 삼가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⑦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 ⑧ 부부간의 대화하는 기본 태도와 기술을 갖춘다.
- ⑨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부부싸움 규칙을 지키고 마무리를 잘한다.
- ⑩ 경쟁적으로 이기려고하기 보다 협동하는 자세를 갖는다.

(2) 협동적 갈등 해결의 단계

- 1단계: 갈등 문제 확인하기
- 2단계: 대화 계획 세우기 - 논의할 주제를 정하고, 어떤 절차로 대화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준비과정으로 예를 들어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한다.
- 3단계: 문제에 대한 각자의 관점 이해하기 - 문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 부부 각자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과 감정 등에 대하여 말한다. 아직 자신의 소망, 해결책, 결론은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경청한다.
- 4단계: 바라는 것 확인하기
- 5단계: 자신의 행동대안 탐색하기 -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나의 대안 맞추기
- 6단계: 최선의 행동 선택하기 - 실천가능성 검토하여 자신이 실천할 행동과 기간 선택하기
- 7단계: 행동 계획의 실천 가능성 검증하기
- 8단계: 실행 결과 평가하기

3. 가족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 (1) 홀즈와 레에(Holmes & Rahe, 1967) -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인생사건 중에서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이 좋건 나쁘건 또는 기쁨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 (2) 셀리에(Selye, 1974) -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에 대한 보편적인 신체 반응이다.
- (3) 다일(Dahl, 1980)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무요함, 편안함, 흥분, 불편함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무요하고 동기유발이 안 되는 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퀵과 퀵(Quick & Quick, 1984) - 스트레스에는 부정적인 측면(역기능적 스트레스)과 긍정적인 측면(순기능적 스트레스)이 있다.
- (5) 라자러스(Lazarus, 1984) - 스트레스를 자극모델, 반응모델 상호작용모델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 ① 자극 모델 -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조건이나 내적요인
 - ② 반응 모델 -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환경이나 개인 내부로부터의 요구에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

③ 상호작용 모델 -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인의 인지과 정서적인 특성을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 변수로서 강조한다. 즉 스트레스 반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 스트레스의 개념을 과정상 분류하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스트레스원, Stressor), 매개체로서의 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행동),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디스트레스, Distress) 로 분류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13).

2) 가족스트레스 개념

- 가족 스트레스(family stress)는 스트레스원으로 인한 적응요구가 가족자원에 크게 부담을 줄 때 일어나는 긴장 상태이다.
- 가족스트레스는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의 긴장과 압력으로, 개인과 가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가족스트레스는 어느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는 곧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3) 가족스트레스 이론

- 가족스트레스 이론으로 ABCX 모델, Double ABCX 모델, 맥락적 모델 등이 있다.

(1) ABCX 모델(Hill,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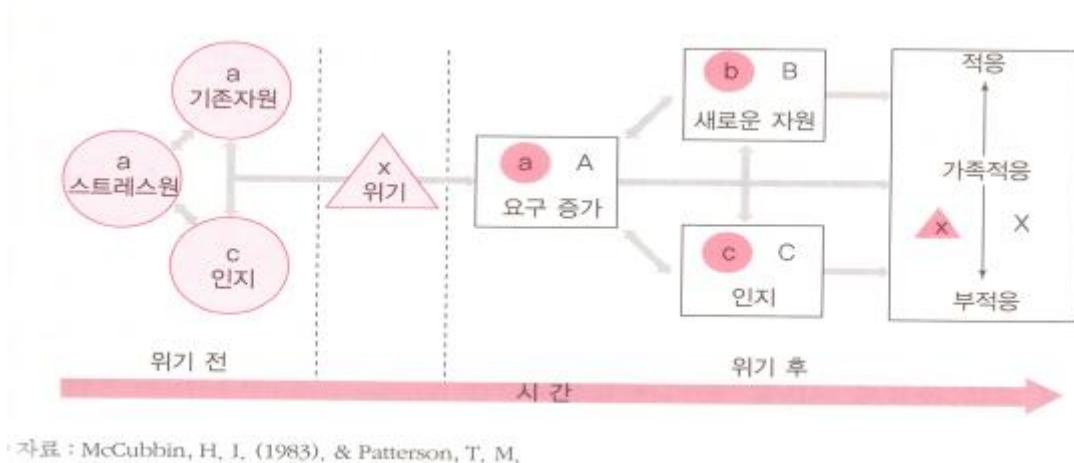
- A(스트레스원) - 가족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 B(자원) - 스트레스원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
- C(인지) -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들의 인지 및 평가
- X(위기상태)

(2) Double ABCX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

ABCX 모델의 위기 전 변수에 위기 후 변수를 추가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설명한다.

- aA(누적된 스트레스원) - 가족스트레스는 하나의 스트레스원보다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bB(자원) - 기존의 자원과 새로운 자원을 포함한다.
- cC(인지) - 처음의 인지에 새로운 인지와 평가가 추가된다.
- X(위기, 적응/부적응) - ABC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이 적응하거나 부적응하게 된다.

<그림 1> Double ABCX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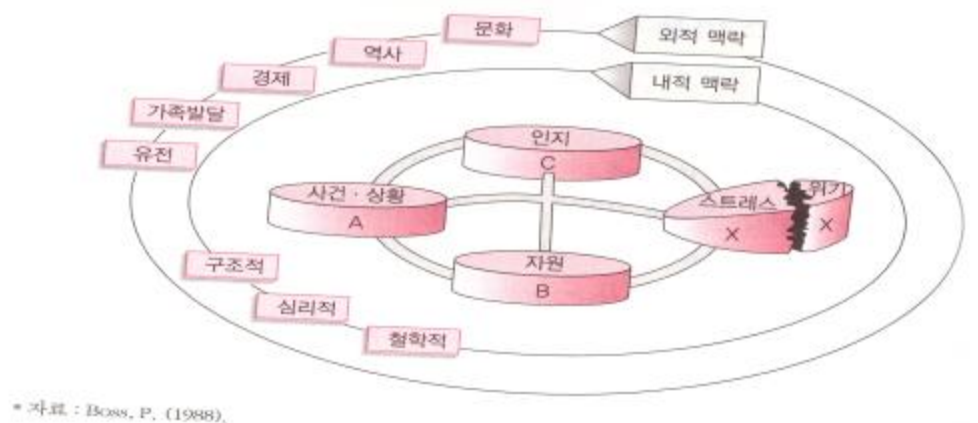


(출처: 유영주 외(2013), 가족관계, p179)

(3) 맥락적 모델(Boss, 1988) - Contextual Model of Family Stress

- ABCX 모델에 외적 맥락과 내적 맥락을 포함한다.
- 외적 맥락(문화, 역사, 경제, 가족발달 등)과 내적 맥락(가족의 구조적, 심리적, 철학적 체계 등)이 스트레스를 중재한다.

<그림 2> 맥락적 모델



(출처: 유영주 외(2013), 가족관계, p180)

4. 스트레스 대처

1) 스트레스원 -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들이 스트레스원이 된다.

- 내적 스트레스원(가족원의 자살, 음주) VS 외적 스트레스원(외부사건-지진 등)
- 규범적 스트레스원(예측가능한 사건-출산 등) VS 비규범적원 스트레스
- 확실한 스트레스원(예고된 일) VS 모호한 스트레스원(분명치 않은 사건)

- 자의적 스트레스원(원하던 임신 등) VS 비자의적 스트레스원(통제할 수 없는 사건)
- 만성적 스트레스원(오래 지속되는 사건-만성질환 등) VS 급성적 스트레스원
- 독립된 스트레스원(단독으로 발생한 사건) VS 누적되는 스트레스원

2) 가족스트레스 대처 자원 –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체계자원 등이 있다.

- 개인적인 자원 : 경제적 자원, 신체적 건강, 성격특성(자존감, 낙관적 사고, 감사하는 마음 등), 스트레스 인지나 문제해결 기술을 증진시키는 지적 능력 등
- 가족체계 자원 : 가족적응력, 가족응집력, 문제해결 능력, 경제력, 지지 등
- 사회체계 자원 : 친족, 이웃, 사회서비스 기관(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자조집단 등의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거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얻는 것

3) 스트레스 대처 행동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일련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

- 문제중심적 대처 : 문제되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의 근원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려는 행동.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반응
- 정서중심적 대처 :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조절하려는 행동.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반응 (유영주 외, 2013)

학습정리

1. 부부갈등은 개인의 욕구가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개인 내적 갈등) 또는 배우자간의 욕구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이다.
2. 부부갈등의 대처방식으로 회피형, 설득 및 언쟁형, 겉돌기형, 타협형, 협동형 등의 유형이 있으며 부부 갈등의 대처 방식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류하는 방식 또한 다양함
3. 가족스트레스 이론
 - ABCX 모델 - 스트레스원(A), 자원(B), 인지(C)가 상호작용하여 위기상태(X) 유발함
 - Double ABCX 모델 - ABCX 모델의 위기 전 변수에 위기 후 변수를 추가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설명함
 - 맥락적 모델 - ABCX 모델에 외적 맥락과 내적 맥락을 포함하여 설명함. 외적 맥락과 내적 맥락이 스트레스를 중재함
4.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 가족적응력, 가족응집력, 문제해결 능력, 경제력, 지지 등의 가족체계자원이 있으며, 개인적 자원, 사회체계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이해(3) - 부부 적응 / 6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부부간의 적응 요소와 적응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단계별 부부 적응 과제를 분석할 수 있다.
3. 결혼만족과 안정성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부부 적응
2. 발달 단계별 부부 적응
3. 결혼 만족과 안정성

본 학습

1. 부부 적응

- 자신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한다.
- 부부 상호간의 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는 만족과 안정을 찾는다.
- 부부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고 성장·변화하는 개체이므로 부부간의 적응도 성장·변화한다.
- 부부간에 변화를 성장과 발전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애정과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부부는 적응을 위해 자신이 성장·변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며, 자신 및 배우자와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유영주 외, 2013).

1) 부부 적응 요소

(1) 성격적 적응

- 부부간의 갈등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임을 알고 수용한다.
-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 부부 모두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을 함께 성장시킨다.

(2) 성적 적응

-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기대하며 주장할 권리가 있고 근친상간을 금한다.
- 부부간의 신체적 접촉은 신체 · 생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감정적 · 인격적 요인을 포함하므로 성적 적응을 위해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부부간의 성생활은 출산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성을 결합시키는 창조적인 것이다.
- 부부간의 성생활은 새로운 기술이며 예술이므로 적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부부간의 성적 적응을 위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부부간의 성생활에 표준적 기교란 없으므로 부부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 부부간의 성적 적응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 적응

- 부부간의 경제적 적응은 소득 액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사용하는 방법과 부부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부부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여 경제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 가정은 개인의 생활 장소가 아닌 부부공동의 생활터전이므로 부부 및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현명하게 경제 관리를 해야 한다.
- 경제 관리를 통해 얻는 물질적 만족은 부부간의 심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사회문화적 적응

- 성장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공동생활을 하므로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과 역할에 대한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5) 인척관계에 대한 적응

- 부부관계는 부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원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배우자의 원가족 및 인척 관계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 시가 식구, 처가 식구와의 관계가 원가족과의 관계와 동일하기를 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친족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다.
- 인척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며느리나 사위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 의존, 기대는 지양하고 '부부' 관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2) 부부 적응 유형

- 쿠버와 헤로프(Cuber & Harroff, 1980)는 이혼이나 별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한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남녀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1) 갈등이 습관화된 유형(the conflict-habituated mode)

- 부부관계에 긴장, 갈등, 말다툼이 계속된다.
- 모든 일에 견해 차이가 있고 함께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만, 싸움이 결혼을 해체시킬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생기를 잃은 유형(the devitalized mode)

- 결혼 초기에는 사랑하는 감정이나 적극적 관계가 있었으나,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고 서로를 의무적으로 대한다.
- 가족의 의례적인 행사 등에는 참여하나, 부부간에 특별한 불만도 활력도 없이 관계를 유지한다.

(3) 소극적-동조적 유형(the passive-congenial mode)

- 외형적으로는 생기를 잃은 부부와 비슷하나, 소극적-동조적 유형은 결혼 초기부터 서로 몰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특성이 다르다.
- 부부관계보다는 서로 각자의 관심이나 활동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4) 생기 있는 유형(the vital mode)

-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심리적 유대감이 강하며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 부부가 취미, 직업, 지역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생의 만족을 느낀다.
-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불일치점을 쉽게 발견하고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 적응한다.

(5) 통합적 유형(the total mode)

-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 생기 있는 유형과 비슷하나 보다 많은 부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성실하게 참여한다.
- 부부 간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타협과 양보하여 쉽게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유영주 외, 2013)

2. 발달단계별 부부 적응

1) 신혼기 부부의 적응 - 적응 과제

- 신혼기는 결혼 생활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로, 부부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부규칙을 정하며 인척관계에 적응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적응이 요구된다.

(1) 부부로서 정체감을 확립한다. 하나의 단위로서 함께 사는 것에 적응한다.

- (2) 부부 규칙과 역할 정립한다. 부부간의 애정표현, 성, 대화, 갈등관리, 경제, 역할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3) 상호 이해와 신뢰, 유대감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4)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태도에 관하여 합의 · 조정하고 준비한다.
- (5) 인척관계에 적응한다.
- (6)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부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한다.

2) 자녀 양육기 부부의 적응 - 적응 과제

- 자녀 양육기에는 부모됨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며 역할 변화 등에 적응해야 한다.
- (1) 부모로서의 정체감과 자녀 양육 기술을 습득한다.
- (2) 역할 확대에 의한 변화에 적응한다. 역할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간·에너지·재정 지출 증가를 관리한다.
- (3)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중년기 부부의 적응 - 적응 과제

- 중년기는 자녀가 독립하고 자녀양육에서 벗어나는 시기로 부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노년기 준비 등의 적응이 필요하다.
- (1)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부부공동의 활동을 개발한다.
- (2) 배우자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고 배우자에게 몰입하며, 배우자에 대한 수용과 연민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한다.
- (3) 자신의 중년을 받아들이고 노년기를 대비하여 자기개발을 한다.
- (4) 부부가 함께 성적 즐거움을 개발한다.
- (5) 부부대화 방법과 관계향상 기술을 배운다.

4) 노년기 부부의 적응 - 적응 과제

- 노년기에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손자녀 출생 등 여러 상황과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 (1) 부부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한다.
- (2) 자녀 독립, 손자녀 출생 등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정 및 노력이 필요하다.
- (3)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부부간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한다.

3. 결혼 만족과 안정성

1) 결혼 만족과 안정의 개념

- (1) 결혼 만족(marital Satisfaction):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목표나 기대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태도와 감정상태

- (2) 결혼 안정: 결혼생활이 흔들리거나 위협받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 (3) 결혼 행복: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
- (4) 결혼 적응: 결혼생활에 순응하고 배우자와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는 과정
- (5) 결혼의 질: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 객관적 평가

2) 결혼 만족에 관한 이론

(1) 역할이론에 기초한 명제

- ① 자신의 역할 수행의 질과 배우자의 역할 수행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각각 결혼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② 역할 기대의 중요도가 클수록 역할 수행의 질이 결혼 만족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크다.
- ③ 개인이 지각한 상대적 결핍은 결혼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부부간의 역할 기대의 일치 정도는 결혼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한 명제

- ① 개인이 결혼 생활에 유용한 결혼 전의 사회적 · 개인적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결혼 전 자원 – 건강, 자존감, 교제 기간, 친밀감, 가족의 지지 등)
- ②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서 받는 보상감이 클수록 결혼 만족이 높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보상감 – 의사소통, 애정표현, 배려, 정서적 만족, 성적 만족 등)
- ③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에 만족할수록 결혼 만족이 높다.
(생활양식 – 직업요인, 자녀요인, 경제수준, 가족구성 등)
- ④ 결혼 만족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다.
- ⑤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결혼 대안 요인과 결혼해제 장애 요인이 작용한다. 동일한 수준으로 결혼 만족이 낮은 경우, 결혼 대안 요인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 해제 장애 요인이 적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낮아진다.

(3) 행복한 결혼생활

- 행복한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갈등과 불안이 적고,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 일체감, 결속감, 친밀감을 느끼며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 성숙한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상호작용 요소
 - ① 개인적 요소
 - 정서적 성숙하고 결혼생활과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한다.
 -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진다.
 - 융통성, 책임감, 성실성, 친화성이 있다.
 - 자기반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환경적 요소

-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 and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입이 있다.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출방법을 사용한다.
- 배우자와 취미와 여가활동을 공유하고 대부분 종교가 같다.
- 집안일을 함께 한다.

③ 상호작용적 요소

- 효율적인 대화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이 있다.
- 친척, 친구, 일, 여가 등과 결혼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 감사, 격려, 지지 등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교환한다. (최규련, 2014)

학습정리

1. 적응은 자신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는 만족과 안정을 찾는다. 부부간에 성격적, 성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적응과 인척관계에 대한 적응이 요구된다.
2. 부부 적응 유형으로 갈등이 습관화된 유형, 생기를 잃은 유형, 소극적-동조적 유형, 생기 있는 유형, 통합적 유형이 있다.
3. 발달단계별로 부부 적응의 과제를 인식하고 수행해야 한다.
4. '결혼 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목표나 기대가 충족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태도와 감정 상태이고, '결혼 안정'은 결혼생활이 흔들리거나 위협받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 이해(4) - 부부 의사소통 / 7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2. 부부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
2. 부부 의사소통 촉진 방안
3. 부부 의사소통 방법 - 적용

본 학습

1.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

-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라틴어 '공유(communis)' 또는 '공동체, 공통성을 이룬다, 나누어 갖는다(communicare)'는 의미인 com(=together)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 의사소통은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어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 의미를 상대와 공유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상호반향적인 과정이다.(유영주 외, 2013)
-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style)이다.

(1) 부부 의사소통 형태

- 호킨스, 바이스버그, 레이(Hawkins, Weisberg & Ray, 1980)는 의사소통의 형태를 언어화 정도와 감정노출 정도의 2차원을 조합하여 차단형, 억제형, 분석형, 친숙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차단형: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언어화하지 않고, 감정노출이 적어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다. 가벼운 농담이나 날씨 이야기 정도를 하며 문제를 피하거나 숨긴다.
 - ② 억제형: 자신의 내적 상태를 분명하게 언어화하는 것은 피하지만, 감정 상태는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 많이 노출하는 편이다. 상호간의 의미탐색에 대해 폐쇄적이고 거부적이지만 타인이 감정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 ③ 분석형: 언어표현은 많이 하지만 사실을 분석하거나 이성적인 면에 치우치고 감정노출은 적게 한다.
 - ④ 친숙형: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해 분명하게 언어화하고 감정적 노출도 많은 편이다.

<표 1> 호킨스 등의 의사소통 유형

언어화 정도 \ 감정노출의 정도	폐쇄적	개방적
낮음	차단형(conventional)	분석형(speculative)
높음	억제형(controlling)	친숙형(contactful)

(2) 부부 의사소통의 유형

① 의사소통 방향에 따른 분류

- ㉠ 일방형: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쪽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유형이다.
- ㉡ 쌍방형: 부부 모두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이다.
- ㉢ 침묵형: 부부 모두 서로에게 말을 잘 하지 않는 유형이다.

② 의사소통의 기능성에 따른 분류(Gibb,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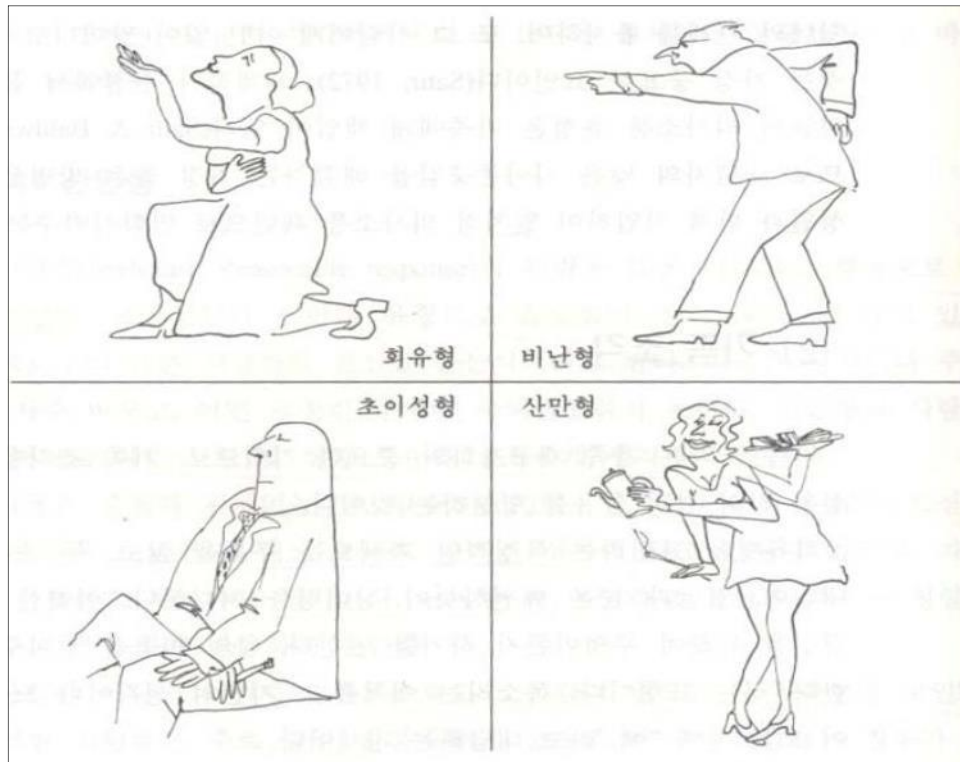
- ㉠ 지지적 의사소통(=순기능적 의사소통):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탐색하거나 제공한다. 솔직하게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 반응을 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
- ㉡ 방어적 의사소통(=역기능적 의사소통) : 방어적이거나 불분명하고 모순된 의사소통을 한다. 독단적이거나 통제, 비난한다. 비자발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③ 사티어(Satir)의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

- Satir는 사람들이 긴장할 때 보여 주는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을 관찰한 결과, 긴장을 처리하는 생존유형(Survival stance)으로 자존감이 낮고 불균형한 상태에서 역기능적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 나타나고, 자존감이 높고 균형 상태에서 일치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의사소통 시 자존감의 3대 요소인 '자기', '타인', '상황'이 순기능을 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기: 애착, 사랑, 신뢰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 타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질성이나 동질성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것
 - 상황: 주어진 여건이나 맥락
- ㉠ 회유형: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위에 맞추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듯이 말한다.
- ㉡ 비난형: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 · 명령한다.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하고 독재자로 행동한다. 목소리가 딱딱하고 날카롭다.
- ㉢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한다. 매우 이성적이고 침착하며 건조하다. 규칙과 옳은 것만을 절대시하는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인다.

- ㉔ 산만형: 자신,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한다. 주제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산만하게 행동한다.
- ㉕ 일치형: 기능적인 유형으로 의사소통의 내용과 내적 감정이 일치한다. 관계가 편안하고 솔직하다. 의사소통이 매우 진실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그림 1> Satir의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



출처: Satir.V.저, 성문선 역(1991), 사람만들기; 유영주 외(2009), 건강가족의 이해, 재인용 p155

④ 가트만(Gottman) 의 부부 대화 유형

- Gottman은 가족과 정서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의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4가지 부정적 대화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화법은 서로를 멀어지게 하므로, 부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못된 대화 습관을 고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Gottman이 제시한 4가지 부정적 대화법 >

- ㉑ 비난(criticism):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는 것
 - 불평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불평은 작은 일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으로 일 자체에 대한 불만이지만, 비난은 문제가 되는 일을 넘어서 상대방의 성품과 생활태도

전반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 ㉠ 경멸(contempt): 상대의 행동에 반발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
 - 배우자로부터 경멸하는 말을 듣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의 좋은 추억들이 퇴색된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상처를 주기도 하며, 때론 무례하게 행동한다. 경멸이 습관화될 경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다.
- ㉡ 자기방어(defensiveness):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시도
 -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이나 비난을 받게 되면 누구나 자기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방어가 지나쳐 자기 합리화가 될 경우,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서 상대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자신은 일어난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는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인다.
- ㉢ 냉담(stonewalling): 담쌓기, 대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한쪽이 입을 다물고 무시하는 것
 - 침묵 또는 무반응이나 대화 상황에서 벗어나는 도피반응 등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것이다. 부부 싸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침묵' 이라고 생각하고 신체적 거리감, 정서적 무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무시하고 덮어버림으로써 부부간 갈등의 불씨로 남겨두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2. 부부 의사소통 촉진 방안

1) 부부 의사소통의 영향 요인

- (1) 자기노출: 한 개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선별적인 자기노출이 필요하다.
- (2) 성별: 성별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문화의 차이
- (4) 물리적 · 상황적 요인

2) 부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 (1) 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의사소통 규칙의 차이
- (2) 성역할 학습의 차이
- (3) 간접적 의사소통
- (4) 단어 사용의 차이
- (5) 지나친 일반화나 불확실한 가정
- (6) 선택적 인지 - 경직된 태도로 바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임
- (7) 모순적인 의사소통 - 이중구속 메시지 등
- (8) 혼자 말하기
- (9) 방어적 의사소통

3) 부부 의사소통 촉진 방안

- (1) 긍정적인 마음과 자아상을 가진다.
- (2) 부부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한다. -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다.
- (3) 부부 공통의 준거틀을 갖는다. - 배우자의 문화적 배경, 생각 등을 이해한다.
- (4) 부부 공동의 활동을 많이 한다.
- (5) 민주적이고 개방적 환경을 만든다.
- (6) 듣기 기술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의미를 확인하고 공감한다. -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해주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될 수도 있다.
- (7)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 (8) 자기노출을 한다. -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이 필요하다. (유영주 외, 2013)
- (9) 결혼생활에 대하여 의지와 신념을 갖는다. - 건강한 결혼생활을 이루려는 의지와 의사소통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을 갖는다.
- (10) 감사, 칭찬, 인정하는 표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사랑의 방정식 5:1) - 부부관계를 증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비판, 불만, 단점, 단점 지적 같은 부정적인 언어 사용보다 많아야 한다. (최규련, 2014)

3. 부부 의사소통의 방법 - 적용(부부대화법)

1) 듣기 기술: 듣기 기술을 사용하여 경청한다.

- (1) 주의 기울여 듣는다. -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따라간다.
- (2)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반응을 한다.
- (3) 정보를 요청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4) 요약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은 내용을 요약한다.
- (5) 개방질문을 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가 불충분하거나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방질문을 한다.

[참고 1] 알아두기 Tip. 경청의 기본 자세

1. 상대방이 말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본다.
2. 상대방이 말할 때 중단하거나 자리를 뜨지 않는다.
3. 상대방의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과장 · 축소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미리 판단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나 다음 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

2) 말하기 기술 :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

- (1) 자신이 말하는 주인이 되어 말한다. - 배우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 다음,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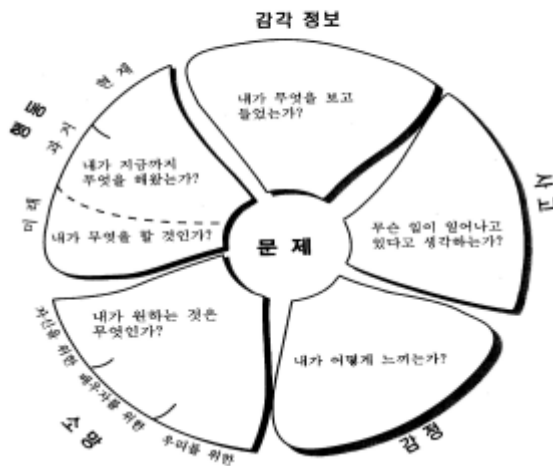
말의 주어가 “나는 ~ 하다” “내가~하다.”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말이 “당신은 ~”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2) 감각정보 - 자신이 보고 들은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 (3) 사고 -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 (4) 감정 - 자신의 감정을 말한다.
- (5) 소망 - 자신의 소망에 대하여 말한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
- (6) 행동 - 자신의 과거 행동과 미래 행동에 대하여 말한다. (최규련, 2014)

<부부대화법>

자각의 수레바퀴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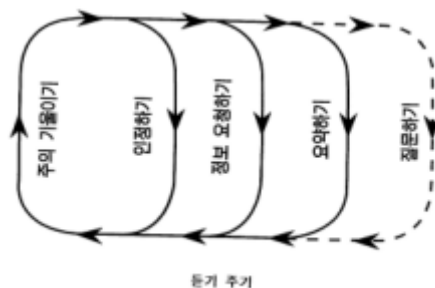
감각적 정보(외적 단서), 사고, 감정 또는 소망(내적 단서)과 당신이 기
대한 것이 차이가 날 때, 또는 앞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견될 때 문제
가 생긴다.



듣기 주기(The Listening Cycle)

다섯 개의 듣기 기술은 순서대로 또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따른 듣기 기술 활용은 듣기의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다. 그
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복잡한 문제일 때 때때로 특히 유용하다.

듣기의 목적은 배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능한 자발적으로 편안하
게 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듣기 주
기를 적용한다.



출처: Miller외 공저, 채규만 외 공역(1997), 부부가 함께 말하기 듣기

학습정리

1.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부부 의사소통의 형태를 호킨스 등은 언어화 정도와 감정노출의 2차원을 조합하여 차단형,
억제형, 분석형, 친숙형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하였고 사티어는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을 역기능적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기능적인 유형인 일치형으로 분류하였다.
2. 부부 의사소통의 촉진방안으로 1) 긍정적인 마음과 자아상을 가진다 2) 부부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한다 3) 부부 공통의 준거를 갖는다 4) 부부 공동의 활동을 많이 한다 5)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든다 6) 듣기 기술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의미를 확인하고
공감한다. 7)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8)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을
한다 9)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의지와 신념을 갖는다 10)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등이
있다.

3. 부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부부대화법을 적용하여 경청하는 '듣기 기술'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말하기 기술'을 사용한다.

가족관계의 이해(5)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7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촉진 방법을 분석할 수 있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특성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촉진 방법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실제

본 학습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특성

-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 긍정적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반면, 부정적 의사소통은 애착이나 적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 부모와 자녀는 가족 내의 위치가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1) 의사소통의 기본 현상

(1)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인간관계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메시지를 전달한다.
- 침묵도 의사소통 행위이다.

(2) 모든 의사소통에는 내용(content)과 관계(relationship)의 2가지 측면이 있다.

- 내용 -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보
- 관계 - 메시지를 통해 규정되는 의사소통자간의 상호작용 특성

(3) 의사소통자간의 관계는 계속되는 의사소통에서 일단락 짓기(punctuation)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 일단락 짓기는 연속적인 의사소통에서 누구의 행위가 자극이고, 누구의 행위가 반응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 일단락 짓기의 불일치가 관계투쟁의 근원이 된다.
- (4) 언어적 형태(verbal pattern)와 비언어적 형태(nonverbal pattern)로 의사소통한다.
- 언어적 형태(디지털 형태) - 말이나 글
 - 비언어적 형태(아날로그 형태) - 언어 이외의 음성, 몸짓, 표정, 접촉 등
- (5)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대칭적 형태(symmetrical pattern)이거나 상보적 형태(complementary pattern)이다.
- 대칭적 형태는 의사소통자간에 대등하고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반향 시키는 형태이다. 신분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경쟁한다.
 - 상보적 형태는 의사소통자간에 불평등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충하는 형태이다. 지배복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 대칭적 형태와 상보적 형태는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고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두 형태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유영주 외, 2013).

2)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

-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말하기 · 듣기의 의사소통 기술이 있다.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및 마음과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 (1) 배려는 있으나 의사소통 기술 없으면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 (2) 배려가 없고 의사소통 기술이 있으면 상대방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 (3) 배려가 있고 의사소통 기술이 있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4) 배려가 없고 의사소통 기술도 없으면 폭력적 언어를 행사할 수 있다.

3)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로는 발신자, 정보, 매체, 수신자, 상황, 효과 등이 있다.

- (1) 발신자 - 메시지를 주는 사람, 행위자를 의미한다. 개인 또는 집단일 수 있다.
- (2) 정보 - 발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객관적 사물, 사상, 개념, 감정 등 이다.
- (3) 매체 -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 글자, 몸짓 등이다.
- (4) 수신자 - 메시지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 (5) 상황 - 메시지가 일어나는 시간적, 지리적, 심리사회적 상태로 분위기, 장소, 시간, 송·수신자 간의관계,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포함된다.
- (6) 효과 - 메시지를 수신자가 받아서 나타내는 반응 중 발신자가 의도한 반응만을 말한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촉진 방법

- 부모 자신이 즐겁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 · 이해 · 경청 · 신뢰 · 존중을 보여준다.
- 격려 · 칭찬 · 제안 · 정보 제공 · 질문 · 유머 · 간결한 표현 · 긍정적 표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며, 명령 · 설교 · 훈계 · 비난 등의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용을 점검하고 자제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예로 악순환, 이중구속 메시지 보내기, 걸림돌 사용하기 등이 있다.

- (1) 악순환 - 의사소통은 자극과 반응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순환적인 관계이므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지 못한 채 끝없이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은 오해와 갈등 속으로 빠지기 쉽다.
- (2) 이중구속 메시지(Double-bind communication):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수신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 (3) 의사소통의 '걸림돌' - 걸림돌은 한 번 다친 마음을 한 번 더 다치게 하는 말로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자녀가 속상할 때, 부모들은 도움을 주고 싶거나 사실을 알아보려고 충고나 질문 등을 한다. 부모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가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자녀(상대)의 마음이 아플 때, 걸림돌이 되는 말은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게 반감을 갖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멀어질 때가 많다.
 - '걸림돌'을 사용하는 대화는 자녀의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자존심을 손상시켜 관계를 악화시킬 뿐 행동 수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녀와의 대화를 방해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말문을 닫게 한다.

< 의사소통의 '걸림돌'의 종류와 예 >

- (1) 명령, 강요: "___ 해야 할 것이다."
 - ➔ "빨리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라, 빨리! 하나, 둘, 셋!"
- (2) 경고, 위협: "만약 __하면," "만약 __하지 않으면"
 - ➔ "다음에 또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게임 못한다!"
- (3) 훈계, 설교: "너는 __해야 한다."
 - ➔ "네가 형이니까 형답게 양보할 줄 알아야지."
 - "너는 동생인데 어디 형한테 대드니? 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 (4) 충고, 해결방법 제시: "___하는 게 어떻겠니?"
 - ➔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니?"
- (5) 논리적인 설득, 논쟁: "무엇이 문제냐 하면, __ "
 - ➔ "아빠 생각에는 이 문제는 네가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한 거야." "그게 아니라 00야."
- (6) 비판, 비평, 비난: "너는 항상 __하는 게 문제야!"
 - ➔ "너는 어째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냐? 머리로 나쁘고 노력도 안하고... 하는 걸 보면 넌 공부 체질은 영 아니다."
- (7) 칭찬, 찬성: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

- "잘했다. 잘했어! 그 정도면 잘 한거야."
- (8) 욕설, 조롱: "바보야! 네가 잘 하는 게 뭐니!"
- "넌 생각이란 걸 하니? 멍청아!"
- (9) 분석, 진단: "네가 __하려고 한 거지?"
- "아빠가 볼 때 너는 침착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거야."
- (10) 동정, 위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 "이까짓 것 별거 아니야.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걱정하지 마라."
- (11) 캐묻기와 심문: "왜 __?" "누가__, 무엇을__?"
- "왜 늦었어? 누구랑 어디서 뭐하다가 왔어?"
- (12) 빈정거림, 후퇴: "자~알 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 "팽팽 노니까 좋지~. 계속 놀아!"
- (13) 반대 혹은 거부: "안 돼!" "하긴 뭘 해!"
-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 "네가 알아서 해. 아빠는 지금 피곤해."
- (14) 남과 비교하기: "너는 동생만도 못해!" "__는 다 잘하더라!"
- "어째 너는 00보다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잘하는 게 없구나."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실제

1) 문제소유 분석

- 상대방(자녀)이 고민이 있거나 문제를 인지한(=문제를 소유한) 경우, 상대방의 문제를 경청하며 듣고, 문제를 자신(부모)가 소유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표 1> 문제소유와 네모꼴 수용도식

자녀의 문제	(듣기)
문제없는 영역	
부모의 문제	(말하기)

- (1) 자녀의 문제: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
- 자녀가 문제 소유하였으므로 자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 예: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 (2) 문제없는 영역: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면서 자녀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 문제가 없을 때,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말과 기술이 필요하다.
- (3) 부모의 문제: 부모가 수용할 수 없는 자녀의 행동들

-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문제가 될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 자녀가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외출한다.

2) 듣기 - 반영적(적극적) 경청

- 문제소유를 자녀가 한 경우,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쓰지 않고 자녀의 표현 뒤에 감춰진 느낌을 가려내고 이런 느낌을 반영적(적극적) 경청한다.
- 반영적 경청을 하려면 감정표현 연습을 많이 하고, 상대방(자녀)의 언어적 · 비언어적 메시지에 집중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비언어적 수용 - 자녀가 말을 할 때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2) 언어적 수용 - 말문을 열게 하는 말이나 계속 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음.", "정말 신났겠다.", "참, 속상했겠구나!" 등

- 자녀의 감정 상태를 피드백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한다.
- 자녀의 감정 상태와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녀의 독특한 감정 상태와 감정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인정해 준다.
- 반영적 경청을 위해서 부모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표 2> 반영적 경청(예)

<p>학교에 갔던 자녀가 시무룩하게 들어오면서, “아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p> <p>라고 말한다면....</p>	
<p>< 사례 1 ></p> <p>아빠: “왜? 무슨 일 있었니?”</p> <p>“무슨 소리, 우리 딸은 언제나 제일 예쁘지.”</p> <p>자녀: (기가 죽어서) “아빠는 딸이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난 별로인 아이예요.”</p> <p>아빠: “예쁘다는 기준은 주관적인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p> <p>자녀: (짜증나기 시작한다) “아니라고요.”</p> <p>아빠: (자녀를 달랜다)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인성도 좋고... 정말 내면도 외면도 예쁜 아이야.”</p> <p>자녀: _____</p>	<p>< 사례 2 ></p> <p>아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p> <p>자녀: (기운 없이) “네, 학교에서 나만 남자 친구가 없어요. 나는 인기도 없어요. 난 못생기고 매력도 없는 것 같아요.”</p> <p>아빠: “그래서 기운이 없이 들어왔구나. 많이 속상했지.”</p> <p>자녀: _____</p>

3) 말하기 – 나-전달법(I-massage)

- 나-전달법은 자녀 때문에 부모가 문제를 가졌을 경우,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전달하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 나-전달법은 부모가 받아들이 수 없는 자녀의 행동이 무엇인지 상대방(자녀)을 비난하지 않고 서술하며, 문제가 되는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이다.
- 나-전달법의 3가지 구성요소인 행동, 구체적 영향, 감정이나 느낌을 활용하여 말한다.

- (1) 행동 –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 없는 서술
- (2) 구체적 영향 – 그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3) 감정이나 느낌 – 자녀의 행동이나 또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느낌

<표 3> 나-전달법의 예

5살 아이가 거실 소파에서 뛰고 있다면...	
<p>< 사례 1 ></p> <p>엄마: "멈춤! 소파는 앉아서 쉬는 거예요." / "그만 뛰고 내려와요. 그러다 다쳐요."</p> <p>자녀: _____</p>	<p>< 사례 2 ></p> <p>엄마: "똥똥아, 소파에서 뛰면 먼지가 생기고, 그 먼지가 똥똥이 코로 들어가서 콧물콧물할까봐 엄마가 걱정돼요." / (소파에서 뛰면... 아랫집에 쿵쿵 소리 나서 미안해요/ 시끄럽다고 화내실까봐 무서워요/ 소파에서 뛰다가 다칠까봐 엄마가 걱정돼요)</p> <p>자녀: _____</p>

- 아이가 거실 소파에서 뛸 때, 부모는 걱정되어 "멈추어라!" "다친다." "먼지 난다" "시끄럽다"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속으로 '헛, 엄마는 놀지도 못하게 해!' 하고 반감을 갖게 되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부모가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소파에서 뛰면(행동), 먼지가 생겨서 건강에 해로울까봐 (구체적인 영향), 걱정된다.(감정)" 말하여 부모 자신의 상황과 느낌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가 소파에서 뛰면 먼지가 내 코로 들어가서 아플까봐 걱정하시는구나.'로 해석할 수가 있고 부모가 주려는 메시지인 "네가 아플까봐 걱정 된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정리

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반면, 부정적 의사소통은 애착이나 적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격려 · 칭찬 · 제안 · 정보 제공 · 질문 · 유머 · 간결한 표현 · 긍정적 표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명령 · 설교 · 훈계 · 비난 등의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시,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 상대방의 문제를 경청하며 듣고 자신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듣기 기술로 반영적 경청이 있고 말하기 기술로 '나-전달법'이 있다.

부모-자녀관계 (1) - 부모됨, 부모 양육행동 / 9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부모됨
2. 부모 양육행동

본 학습

1. 부모됨

1) 부모됨(parenthood)의 의미

-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자녀를 낳기로 결정하는 동기도 본능이 아니며 획득된 동기이다.
- 부모가 되는 의미나 동기는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므로 부모됨의 의미를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 자아확장 - 후손을 남김으로써 자기 연장감, 자기 불멸감을 느낌

자신을 이어준다는 지속감(sense of continuity)

(2) 성취감 -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보람

자녀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자기보다 나은 후손을 남기려 함

(3) 사랑과 애정의 욕구 충족

(4) 사회적 기대 부응 - 부모됨의 지위 획득, 역할 수행

(5) 풍요로운 삶 - 자녀를 양육하며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되고, 자기를 완성하고 자아실현을 함 (최규련, 2014)

2) 부모 역할의 특성

- 부모 역할은 성인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 중 하나로 부모는 자녀가 성숙한 인격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물리적 · 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부모 역할은 자녀와 부모 양자에게 장기간 큰 파급효과를 지닌 중요한 일이며, 복잡하고 전인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임

- (2) 부모 역할에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만 둘 수 없음
- (3) 부모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지침이 없이 혼돈됨
- (4)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문화적 압력을 더 크게 받음
- (5) 부모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함
- (6) 대부분의 부모들은 준비나 훈련 없이 부모 역할을 수행함

3)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

- 자녀는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성장기를 부모의 영향 아래서 보내고, 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지식, 사회적 적응 능력의 토대가 가족 안에서 구축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1)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혹은 태내)부터 시작됨
 - (2) 부모-자녀 관계는 오래 지속됨
 - (3) 부모-자녀 관계는 많은 양의 상호작용을 함
 - (4)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문제해결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침
 - (5) 부모와 자녀는 광범위한 경험을 함께 함
 - (6)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짐 (유영주 외, 2013)

4) 부모 역할

-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자녀의 특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과거에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구분 되었으나(예: 엄부자모(嚴父慈母))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점점 공유되고 혼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1) 전통적 부모역할과 현대적 부모역할 비교

<표 1> 전통적 부모역할과 현대적 부모역할

전통적 부모역할	현대적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과 교육은 어머니 책임 • 아들이 대를 잇고 부모는 부양하므로 아들이 있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함 •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키워야 함 • 남자는 남자답게 강하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함 • 부모는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유 • 혈통 계승은 중요하지 않음 •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경험하고 자녀의 능력을 개발시켜 좋은 시민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보람 •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보다는 자신의 개성대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키움 • 부모는 자녀의 좋은 친구, 안내자가 되어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도움

출처: Duvall(1980), 최규련(2014), 재인용 p178

(2) 아버지 역할

- ① 도구적 ·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 담당, 가정의 경제적 담당자(생계부양)
- ②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됨
- ③ 자녀의 좋은 동료적 역할
- ④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 역할
 - 아버지 역할의 변화 :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 양육뿐만 아니라 태교, 출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아들이 성역할 습득과 남성성 발달 및 딸의 여성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양성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안정적 애착 관계는 자녀의 도덕성 발달, 인지능력 발달,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와 직장에서도 좋은 아버지 역할을 정립하고 지지하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어머니 역할

- ① 정서적,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 담당
 - ② 자녀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인성의 유형을 결정함
 - ③ 자녀의 사회화 과정 초기에 역할, 가장 장기간 대행자 역할을 함
 - ④ 교량적 역할을 함
 - ⑤ 자녀의 건강과 위생담당자, 도덕적 측면의 교육 담당자 역할을 함 (유영주 외, 2013)
-
-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모성본능' 의해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성본능은 타고난 자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며 여성은 자기발전보다 자녀양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자녀는 반드시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도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밝혀졌다.
 -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이 증가하면서 어머니 역할의 부담이 필요해지고, 융통성 있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커지며 어머니 역할에 변화가 왔다. 어머니는 시대 변화와 부모 역할 변화에 대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자녀 양육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교육철학을 갖고 소신 있게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양육과 양육비 부담으로 자녀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다.
 - 사회가 육아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어머니만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역할을 공유하고 가족, 이웃, 보육시설과 자녀 양육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최규련, 2014)

2. 부모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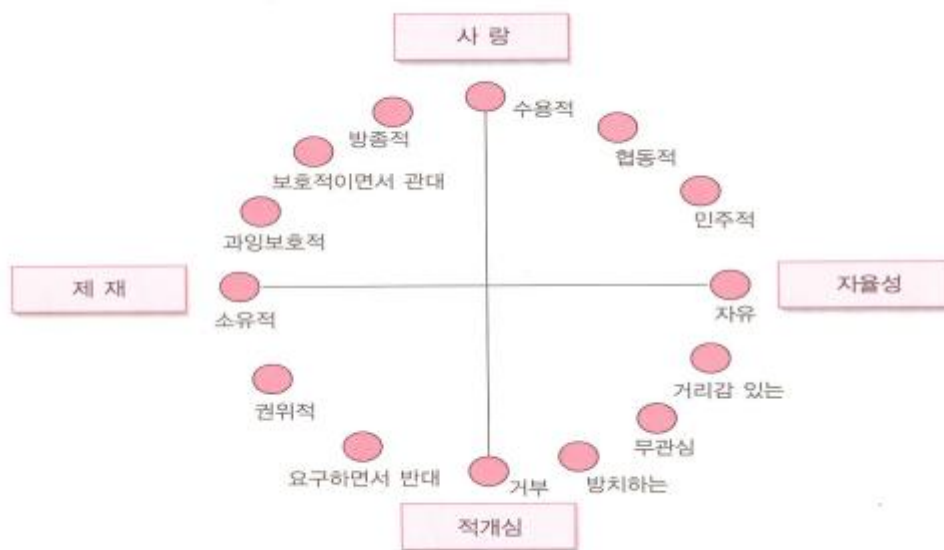
- 부모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류하는 2가지 방법으로 양극적인 몇 차원으로 구분 후, 이를 기준으로 여러 행동 요소들을 조합하는 방법과 양육 행동의 특성을 조사, 수집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1) 양육행동 유형

(1) 쉐퍼의(Schaefer, 1959) 양육 행동 유형

- 쉐퍼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소를 '사랑 대 적대감' 차원과 '자율성 대 제재' 차원의 두 차원의 양극적인 양육행동 요소를 조합하여 14가지 양육태도를 구분한다.
- 14가지 유형 - 수용적, 협동적, 민주적, 자유, 거리감 있는, 무관심, 방치하는, 거부, 요구하면서 반대, 권위적, 소유적, 과잉보호적, 보호적이면서 관대, 방종적

<그림 1> 쉐퍼의 부모행동 모형(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출처: Schaefer(1959), 유영주 외(2013); 재인용 p228

(2) 바움린드(Baumrind)의 양육방식 분류

- 바움린드(Baumrind) 는 부모의 유형을 애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민주적인 부모(Democratic Parent), 권위주의적인 부모(Authoritarian Parent), 허용적인 부모(Permissive Parent), 방임적인 부모(Uninvolved Parent) 4가지로 분류하였다(여성가족부 교육자료실, 2016).

<그림 2> 바움린드의 4가지 양육방식



출처: 여성가족부 교육자료실(2016), '아기가 처음 태어난 날, 그날의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리플렛

(3) 가트맨(Gottman)의 부모 양육방식 유형

- 가트맨(Gottman)은 오랜 동안의 관찰을 통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 표현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을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 자녀의 감정해결 능력 및 대인관계와 사회성, 성취도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바움린드(Baumrind, 1973)의 양육방식 분류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① 민주적(Democratic) 유형: 분명한 통제를 가하면서도 자녀에게 적절한 자유,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함
→ 자녀 - 독립적,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 형성
- ② 권위적(authoritarian) 유형: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자녀를 통제하고 권위에 무조건 순응, 강압적인 훈육방식 사용
→ 자녀 - 우울, 두려움과 적대적 태도
- ③ 허용적(permissive) 유형: 자녀에게 통제를 가하지 않고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녀의 욕구와 충동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 자녀 - 책임감 부족, 독립성 낮음
- ④ 방임적(Uninvolved) 유형: 부모가 자녀를 방치함
→ 자녀 -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함, 성취욕구가 낮음

(2) 가트맨(Gottman)의 감정코칭 유형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① 축소전환형: 자녀의 감정을 불편해 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아이의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축소시키려고 함

➔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감정 조절을 힘들어하게 만들 수 있음

- ② 억압형: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므로, 반드시 억제하도록 엄격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 자녀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며, 자녀가 부모의 말에 복종할 것을 강조함

➔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옴

- ③ 방임형: 감정 표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 위로해주나 감정표출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고, 감정 해결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감정을 표출만 할 뿐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음

➔ 자녀는 산만해지며 대인관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됨

- ④ 감정코칭형: 자녀의 부정적 감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함.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음.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감정표현의 한계를 알도록 함

➔ 자녀에게 자기감정을 신뢰하도록 하며,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

학습정리

1. 부모됨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아확장, 성취감, 사랑과 애정의 욕구충족, 사회적 기대 부응, 삶이 풍요로워지는 등의 의미가 있다.
2. 부모 역할은 자녀와 부모 양자에게 장기간 큰 파급효과를 지닌 중요한 일이며, 복잡하고 전인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준비나 훈련 없이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3. 부모 역할은 실수나 시행착오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만 둘 수 없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지침이 없이 혼돈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문화적 압력을 더 크게 받으며 부모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4. 쉐퍼(Schaefer)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소를 사랑 대 적대감 차원과 자율성 대 제재 차원의 두 차원의 양극적인 양육행동 요소를 조합하여 14가지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5. 바움린드(Baumrind)는 부모 양육행동을 민주적 유형, 권위적 유형, 허용적, 방임적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주장하였다.
가트맨(Gottman)은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 표현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을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자녀관계 (2) - 생애주기별 부모자녀관계 / 9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생애주기별(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적응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생애주기별(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
2.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적응과제

본 학습

1. 생애주기별(자녀발달단계별)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

- 부모-자녀관계는 전 생애동안 의존성과 독립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지원관계이고 심리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1)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자녀의 발달단계	부모역할	바람직한 부모상
영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자와 보호자로서의 역할 · 신뢰감 형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 애착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대상자로서의 역할 · 자율성 발달 조력자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있는 부모 -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 -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 - 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 - 사랑하는 부모
유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로서의 역할 · 훈육자로서의 역할 ·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 주도성 발달 조력자로서의 역할 ·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 	
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자로서의 역할 · 훈육자로서의 역할 · 근면성 발달 조력자로서의 역할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조력자로서의 역할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와 격려자로서의 역할 · 정체감 발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등 	

출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1), 나 · 우리, 희망아카데미 p22

2) 젊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큰 시기이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다.
 - 부부가 함께 의논해야 하는 주제
 - (1) 자녀 양육의 목표 및 자녀양육방식
 - (2)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
 - (3) 일과 부모역할의 조화
 - (4) 자녀출산 및 양육 등을 위한 경제적 준비/실직이나 이혼, 사별 시 부모역할
 - (5) 효과적인 부모역할

3) 중년 부모와 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

- 자녀는 부모로부터 개별화하여 성인으로 직업을 갖고 독립할 준비를 하거나 결혼하고 성인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 중년 부모는 청소년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자녀의 부모역할과 의존성이 높아진 노부모 부양 및 자신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노화 과정에 적응하고 은퇴와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4)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특징과 변화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녀독립 후 은퇴한 부모가 노년기를 보내는 기간이 연장되었고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관계를 맺는 기간도 늘어났다.
- 생애과정에서 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세대는 부모의 자녀부양에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으로 상호작용패턴이 바뀌는 시기이다.
- 노부모는 건강 및 경제력의 상실과 역할 상실을 겪으며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 반면 성인자녀는 성숙과 독립성이 증가하고 활발한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을 하면서 부모 및 자신의 생식 가족을 부양한다.

(1)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교류 및 지원관계

- ① 경제적 교류 - 생활비, 용돈, 선물교환
- ② 정서적 교류 - 애정, 친밀감, 존경심, 전화/대면 접촉
- ③ 도구적 교류 - 식사준비, 설거지, 통원치료, 간병, 손자녀 돌보기
 - 세대 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

(2)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 유형

- ① 쌍방향형 - 부모와 자녀 모두 지원 많음

- ② 자녀 수혜형 - 자녀가 지원을 받음
- ③ 자녀 지원형 - 부모가 지원을 받음
- ④ 무교환형 - 부모와 자녀간의 교류가 없음

2.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적응과제

1) 생애주기별 부모됨 - 6단계 적응과제

(1) 1단계 - 준비하기(임신~출산 전)

- 심리적 준비
- 신체적 준비
- 물질적 준비
- 관계의 재정립

(2) 2단계 - 돌보아 기르기(0세~만2세)

- 이미지를 현실과 일치시키기
- 애착과 돌봄의 과정
- 부모로서 자아정체감 형성하기
- 관계의 재정립

(3) 3단계 - 부모의 말 세우기(만2세~5,6세)

- 자율성과 주도성 발달시키기
- 권위 세우기
- 훈육하기

(4) 4단계 - 설명하여 깨우쳐 주기(초등학생)

- 신체적 양육에서 심리적 양육으로 전환
- 근면성과 자아개념 발달시키기
- 또래관계 지도

(5) 5단계 - 자녀를 존중해 주기(청소년기)

- 자녀의 변화 수용하고 인정하기
- 새로운 권위관계에 적응

(6) 6단계 - 독립시켜 내보내기(성인기)

-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
- 자녀가 떠난 상황에 대한 적응
-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2) 젊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적응과제

- 부모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한다.
-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민주적 · 수용적 양육태도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다.
-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의 원가족 부모에 대한 애착,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부모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성격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 부모가 원가족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많을수록,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에 만족할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잘 될수록, 부모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성격적 특성에 따라(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외향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많을수록 부모의 수용적,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2) 자녀의 기질, 개인적 특성, 자녀의 수

- 자녀의 활동성이 높고 반응성이 낮은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련, 2014)

3) 중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적응과제

- 자녀와 노부모와 자신에 대해 심리적 · 경제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한다.
- 노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노화에 대한 예비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
 -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1) 중년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제

-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 발달적 특성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 부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로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2) 중년 부모와 성인 자녀의 적응과제

- 부모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자녀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 부모 각자는 자기 계발과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부모 자신의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

4)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적응과제

(1) 성인자녀의 적응과제

- 부모의 의존성을 수용하고 부모의 건강상태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구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의 자원을 제공한다.
- 자녀 자신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 노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형제간 분담이나 사회적 지원방법을 모색한다.

(2) 노부모의 적응과제

- 노화를 수용하고 건강 유지와 자립적인 경제능력을 갖춘다.
자녀에게 의존, 효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고 호혜적인 관계유지
- 성인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과도하게 개입, 지도, 훈계하려는 고집을 삼가고 자녀를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며, 자녀와 심리적 결속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한다.
(최규련, 2014)

학습정리

1. 부모-자녀관계는 전 생애동안 의존성과 독립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지원관계이고 심리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 젊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특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큰 시기이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 중년 부모는 청소년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자녀의 부모역할과 의존성이 높아진 노부모 부양 및 자신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노화과정에 적응하고 은퇴와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 생애과정에서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는 부모의 자녀부양에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으로 상호작용 패턴이 바뀌는 시기이다.
2. 생애주기별 부모-자녀 관계의 적응과제로 젊은 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며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중년 부모의 적응과제는 자녀와 노부모와 자신에 대해 심리적 · 경제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노화에 대한 예비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
 -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적응과제로 성인자녀는 부모의 의존성을 수용하고 도구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의 자원을 제공한다. 노부모는 노화를 수용하고 건강 유지와 자립적인 경제능력을 갖추며 자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응과제이다.

형제자매 관계 / 10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형제자매 관계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와 적응을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형제자매 관계의 역할과 기능
2. 형제자매 관계의 생애주기별 변화와 적응

본 학습

1. 형제자매 관계의 역할과 기능

- 형제자매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가까운 혈연관계를 맺고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고 밀접한 경험을 나누므로 유사한 점도 많지만, 각자의 위치가 상이하고 영향을 받는 점도 다르므로 차이점도 존재한다. (유영주 외, 2013)
- 형제자매간의 위치에 따라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상이하고 그것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출생순위와 성격은 관련이 있다.
- 출생순위 외에 형제의 성별구성, 연령, 형제 수, 터울, 출생 시 부모나이, 다른 가족원의 부재와 건강, 성격, 가족관계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양육 태도가 달라진다.

1) 형제자매 관계의 특성

- (1)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에 속한 횡적 관계이다.
- (2)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또래집단과 유사하나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 (3) 형제자매는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며 순위 형제는 동생에게 지적·사회적 자극을 주는 존재이다.
- (4) 형제자매간에 애정과 사랑, 관심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경쟁, 질투, 미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 (5) 형제자매는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과 영역을 확대시키고 개방함으로써 가족원 각자의 사회화와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준다.
- (6) 형제자매간의 관계는 부모-자녀보다 훨씬 장기간 지속되고 일생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발달과정이다.

- (7) 형제자매간의 가족의 하위체계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 가족체계를 구성한다.
- (8) 형제자매 관계는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이 잦은 현대 사회 속에서 유동적이고 피상적인 다른 인간관계와 달리 비교적 고정적이고 영구적이며 어린 시절 가족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최규련, 2014)

2) 형제자매 관계의 역할

- (1) 친구역할 : 함께 지내고 놀고 의논하며 강력한 유대 형성
- (2) 교육자-학습자 역할 : 전 생애에 걸쳐 동생의 발달 촉진
- (3) 보호자-의존자 역할 : 동생을 돌보고 보호자 역할을 함 (역할과중)
- (4) 중재자 역할
- (5) 경쟁자 역할

3) 형제자매 관계의 기능

- (1) 자아정체감 형성 - 형제자매는 모방, 동일시, 비교의 준거
- (2) 성역할 발달 - 성별 구성(동성, 이성 형제), 상호작용의 지속정도와 강도에 영향을 받음
- (3) 사회성 발달 - 의사소통 기술, 협동성, 대인관계기술, 사회성 발달
- (4) 친밀감과 지지 - 형제자매 관계는 밀접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공정할 때 친밀함
- (5) 돌봄과 보살핌
- (6) 가족 내 역할 분담
- (7) 제휴관계 - 형제자매간 제휴하여 부모와 협상하기도 함
- (8) 권리관계 - 부모가 부여하는 합법성에 영향을 받음 (유영주 외, 2013)

4) 현대 사회의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

- (1) 부모들이 적은 수의 형제를 낳은 터울로 낳으므로 형제자매 수가 많았던 과거보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장과정의 유일한 준거대상 된다. 나이 차이가 적어 의존성과 경쟁심이 커지고 개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기도 한다.
- (2) 보육시설이 증가했지만,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의 보호와 감독 없이 자녀끼리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서로 돌보거나 순위 형제가 동생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다.
- (3) 부모의 이혼, 재혼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이별을 경험하지만 형제자매는 혈연을 매개로 삶의 연속성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이다.
- (4)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성취 압력이 가중되어 형제자매간에 비교의식과 경쟁이 강화되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규련, 2014)

2. 형제자매 관계의 생애주기별 변화와 적응

1) 성장기 형제자매 관계의 상호작용

- (1) 동성 형제자매가 이성 형제자매보다 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 (2) 출생 순위 및 가족관계 변인에 따라 성격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 ① 첫째 아이 - 성취욕 감함, 만이의 우월감, 사려 깊은, 가정 내 도구적 역할
 - ② 둘째 아이 - 사교적, 경쟁의식, 개인주의, 애정을 충분히 받은 경우 협동심과 적응력 높음
 - ③ 막내 아이 - 의존성 높고 남의 의견에 동조 잘함, 예술적 성향 높음, 친화력 높음
- (3) 부모 양육방식과 아동 성격에 따라 형제간 경쟁적/우애적 관계 형성이 정해진다.
 - 부모의 편애와 아동이 자기중심적 성격일 때, 경쟁적 형제자매 관계 형성됨
- (4) 성장기 - 긍정적 형제자매 관계를 위한 부모의 태도
 - ① 첫째가 동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킴
 - ② 자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비교하지 않음
 - ③ 형제자매간에 싸움이 발생하면 자녀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줌
 - ④ 형제자매간에도 서로의 사적인 공간과 물건을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하여 배려하도록 지도함
 - ⑤ 자녀의 연령에 맞는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준수함

2) 성인기 이후의 형제자매 관계의 상호작용

- (1) 학업, 직업, 결혼 등으로 독립하여도 형제자매간 접촉은 유지되며 유대감과 친밀감을 유지한다.
- (2) 형제자매의 관계 특성은 어린 시절의 관계 특성에 영향을 받고 성별구성, 출생시기의 경험, 문화적 기대, 형제자매 개개인의 인생경험, 교류의 호혜성에 영향을 받는다.
- (3) 어렸을 때 형제자매 관계가 친밀했던 경우, 성인기에도 친밀한 경향이 있다.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친밀한 경우가 많음)
- (4) 물리적 접근성이 가깝고, 공통 관심사가 많고, 경제 상태가 비슷하고, 호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3)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상호작용

- (1) 노후의 고독감과 소외감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긴밀한 유대감과 상호의존이 증가한다.
- (2) 형제자매 관계는 연령증가에 따라 경쟁심, 질투,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 친밀감, 일치감, 정서적 지지 등 긍정적 감정이 증가한다.
- (3) 성공적 노화의 역할 모델로 유용한 사회화의 도구가 된다.
- (4) 노년기 형제자매와 인생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통합감, 안정감, 자긍심 등을 경험하고 노화에 적응을 잘한다.
- (5) 노년기에는 이성 형제보다 동성형제와 자주 접촉하고, 이혼, 사별,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나 자녀가 없을 때, 형제자매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 (6) 우리나라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는 대면접촉보다 전화접촉을 많이 하고 상호도움이 많지 않고 상호 의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유형
 - :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를 친밀감, 적개심, 도구적 · 감정적 지원, 접촉빈도에 따라 구분

- ① 친밀형 - 특별하고 친밀한 감정, 감정적 지원과 빈번한 접촉, 시기심과 적개심이 적음 (주로 여성 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나타남)
- ② 근접형 - 적당한 수준의 친밀감과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이 있고 시기심이나 적개심이 없음 (주로 이성의 형제자매간에 많이 나타남. 형제간에 모두 기혼이고 학력이 높고 원가족이 적은 경우가 많음)
- ③ 경쟁형 - 적개심이나 시기심이 존재하고 약간의 도구적 지원과 낮은 정서적 지원이 있음 (본인은 기혼이고 상대방은 혼자된 경우가 많음)
- ④ 소원형 - 적개심과 시기심이 많고 접촉이 거의 없고 심리적 관여 정도가 낮음 (최규련, 2014)

4) 부모 부양에 참여하는 형제자매 유형

- (1) 일상형: 노부모에게 일상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광범위하게 주 부양자 역할을 수행함
- (2) 후원형: 주 부양자 역할을 하지 않지만 노부모나 주 부양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돕고 지원함
- (3) 제한적 지원형: 자신이 경계와 범위를 정하여 도움을 제공하지만 다른 책임은 맡지 않으려 함
- (4) 산발적 지원형: 정해진 일정에 따르기보다 자기 형편과 편의에 따라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함
- (5) 분리형: 자녀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부모 부양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형(최규련, 2014)

학습정리

- 1. 형제자매 관계는 같은 세대에 속한 횡적 관계이고, 가족의 하위체계로서 기능하며, 다른 가족관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 2. 형제자매는 상호간에 친구역할, 교육자-학습자 역할, 보호자-의존자 역할, 중재자 역할, 경쟁자 역할을 한다.
- 3. 형제자매 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 성역할 발달, 사회성 발달, 친밀감과 지지, 돌봄과 보살핌, 가족 내 역할 분담, 제휴관계, 권리관계의 기능을 한다.
- 4. 형제자매간의 관계는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성장기를 보내고 장기간 지속되고 일생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발달과정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한다.

친족관계 / 10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친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2. 친족관계(고부관계, 장서관계, 조손관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친족관계의 변화
2. 친족관계의 특성

본 학습

1. 친족관계의 변화

1) 친족의 특성 및 범위

- 친족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 범위의 인간관계로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 생기는 집단이다.
- 친족관계는 친족내에서 세대별, 연령별, 성별 기준에 의해 배치된다.
- 세대별 항렬(行列)은 상하관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촌수(寸數)는 친족관계의 가까움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 인척관계는 혼인이 지속되는 한 유지된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모계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 간에는 부양과 상속의 의무를 가진다.

* 참고: 8촌 이내 혈족으로 자연 혈족(출생을 통한 관계로 혼인 중의 출생과 혼인 외 출생 포함)과 법정 혈족(입양)이 있다. 4촌 이내 인척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 새언니, 매제, 이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예: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동서)도 포함된다.

2) 친족관계의 변화

- 친족관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에 대한 규정과 친족 제도는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아 공통의 성(姓)을 사용하는 남자 자손만이 포함되는 부계중심 체계였다. 그러나 1991년 가족법 개정, 2008년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부계, 부권 중심에서 양계적, 동권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 현대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친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친족관계가 잦은 왕래와 애정을 토대로 하는 사교적 기능보다 생일이나 명절, 관혼상제에 참여하는 의례적인 기능이 강조됨 (특히 시가나 부계친과의 관계에서 의례적인 기능이 나타남)
-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유대를 맺는 친족이 범위가 근친으로 축소되고, 친족과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여성 중심·모계 중심으로 친족관계가 유지된다(특히 젊은 세대)
- 시가와는 의무적·형식적 의례 활동 중심, 친가와는 자발적·사교 활동 중심, 도구적 수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의 처가 친족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최규련, 2014)

2. 친족관계의 특성

1) 고부관계

- 고부 관계는 결혼에 의해 시작되는 가족 내 인간관계로 기존 세대인 고(姑=시어머니)와 혼입 세대인 부(婦=며느리),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새로운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한다.

(1) 전통 가족에서 고부 관계의 특징

- 우리나라 전통 가족은 부계 직계가족으로 가부장의 권위와 통제에 의해 운영되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되는 지속성과 세대별, 연령별, 출생순위별 성별에 따라 엄격한 서열이 있는 수직구조이다.
- 이러한 부계 가족에서 여성은 매우 낮은 지위에 있으며 특히 혼입한 며느리는 최하의 지위이다.(권리보다는 의무가 많고 순종과 헌신적 가사노동, 가계를 계승할 아들 출산 여부에 따라 성취지위가 주어짐)
-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던 부계 사회에서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기표현의 수단이고 심리적 방패이며 장래의 희망이므로 매우 밀접하고 특수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 아들이 성인이 되어 혼인하면 며느리가 자신과 아들 사이의 애정의 줄을 끊어 놓고, 자신이 이룩한 가족 내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원천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시어머니-아들-며느리 삼각관계)
-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혼입 온 여성이고, 최저 지위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격한 지위가 차이가 있으며 절대복종의 관계이다.(시집살이)

(2) 현대 가족에서 고부 관계의 특징

-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며느리 권한이 증가하고 시어머니 권한이 축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자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많아졌고 가계관리권을 며느리가 가짐)
- 가치관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어머니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 며느리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현되지 못했던 전통 가족에 비해 현대 가족에서는 불만의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애정과 정서적 관계에서 고부갈등을 초래하던 전통 가족의 밀착된 모자 관계가 현대 가족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클수록, 아들(=며느리의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클수록 고부갈등이 심화됨)
-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악영향, 자관계,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단절 등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영주 외, 2008)

(3) 고부 갈등의 원인

- ① 권력 구조의 갈등 - 가사운영권, 경제권, 양육권 등의 주도권
- ② 역할 구조의 갈등 - 현대적 며느리 역할 vs 전통적 시어머니 역할
- ③ 애정 구조의 갈등 - 전통 가족에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밀착, 의존성 vs 현대적 며느리의 부부 중심의 동반적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 ④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 -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고, 생활환경과 경험이 다름

(4) 고부갈등의 표출방식

- 혼자 참음
- 갈등을 호소함(시어머니→ 아들에게/남편에게 ←아내),
- 접촉을 고의로 회피하기
- 상호간에 은밀한 언어적 공격(험담 등)
- 언쟁(비난, 항의 등)
- 고의로 상대방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
- 신체적 공격 등
→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감소되었음(유영주 외, 2008)

(5)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 고부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① 개인적 측면의 노력 방안
- ㉠ 시어머니
 -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대 사회의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
 -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이나 노인대학 등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함
 - 아들이나 며느리의 생활과 부부관계에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하지 않음

- 며느리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칭찬과 감사를 표현함
- 자신의 인격적 성숙과 자기 계발에 힘쓰고 독립된 생활을 위해 노력함

㉠ 며느리

-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모녀같이 지낸다는 환상을 버리고 남편을 낳아주신 고마운 분으로 인식하고 배울 점을 찾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짐
- 자신의 가치관만을 고집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함(공존, 타협)
- 시어머니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 권위를 인정하고 중요한 일 의논, 조언 구함
- 은혜에 보답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 일들을 실행함(최규련, 2014)

㉡ 아들 / 남편

- 어머니와 아내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각각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 줌
- 평소에 아내에게는 신뢰와 애정으로 결합된 동반자 역할과 아내가 본가 가족에게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힘든 점을 인정해 줌, 사위 노릇도 잘함
- 어머니에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여 가족관계를 증진함
- 가족 여행, 외식 등 가족구성원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가족 화목을 도모함

② 가족적 측면의 노력 방안

㉠ 거주형태를 검토 - 동거 또는 동거 외에 대안적 거주형태를 고려함

(수정 핵가족 형태, 딸과의 동거, 유료 노인주거/요양시설 등)

㉡ 시가 식구들은 며느리의 적응을 돕고, 며느리는 시가 식구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함

㉢ 융통성 있는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가사 역할분담 등)

㉣ 독립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음

㉤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 도우려는 의식과 협동과 의사소통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유영주 외, 2013)

③ 사회적 측면의 노력 방안

㉠ 시부모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확립

(연금제도 확충,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확대 등)

㉡ 노인들의 여가 생활과 평생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용한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상담실을 활용하여 상담과 고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 교육

㉣ 경로효친 사상 등을 현대적 의미에서 교육하고 대중매체 등에서 건강한 고부관계의 모습을 제시함(유영주 외, 2013)

2) 장서관계

(1) 장모-사위 관계의 특성

-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사위)은 '백년손님'이라 하여 처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장인, 장모의 대접을 받는 존대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처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처가의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처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자녀양육과 가사의 지원을 위해 장모와 동거하거나 매일 접촉하면서 장모-사위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2) 장모- 사위 관계 개선 방안

- ① 장모는 사위에게 정서적 지지와 경제, 육아, 가사 등의 도구적 지지를 적절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사위를 인정하고 지지함, 생일, 가사, 손자녀 양육 등을 지원함, 딸 편만 들지 않음)
- ② 사위는 장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논 상대가 되어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지지한다.
- ③ 딸은 친정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중간역할을 잘 수행하며 친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최규련, 2014)

3) 조손관계

(1) 조손관계의 특징

- 조부모는 가족의 관습과 가치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역할을 함
- 자녀 세대의 육아를 돕고 가족의 비상시나 위기 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함
-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부모역할보다 더 쉽게 적응함 (특히 조부(祖父)보다 조모(祖母)가 적응을 잘함)
- 좋은 조부모는 사랑을 표현해주는 좋은 모델이 되며, 질문에 응하고, 부모의 양육을 방해하거나 응석만 받아주지 않는 역할자가 되어야 함

(2) 조부모 역할유형 (Kivnick, 1983)

- ①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유형
- ② 어른으로서 도덕적 모델 역할을 하는 유형(예: 조언을 함)
- ③ 가족문화의 전달자로 상징적 역할을 하는 유형
- ④ 손자녀와 더불어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유형
- ⑤ 손자녀를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는 유형(유영주외, 2013)

학습정리

1. 친족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 범위의 인간관계이며,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 생기는 집단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모계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한다.
2. 친족관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우리나라 사회의 친족관계는 부계중심 체계에서 양계적, 동권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고부관계와 장서관계는 결혼에 의해 시작되는 가족 내 인간관계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4. 조손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하기도 하고 자녀세대의 육아를 대리하기도 한다.

다양한 가족(1) - 1인 가구, 분거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 11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1인 가구의 실태와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2. 분거가족의 특성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특성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4. 미래 가족을 전망하고 적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1인 가구의 실태와 적응
2. 분거가족의 특성과 적응
3.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특성과 적응
4. 미래 가족의 전망

본 학습

1. 1인 가구의 실태와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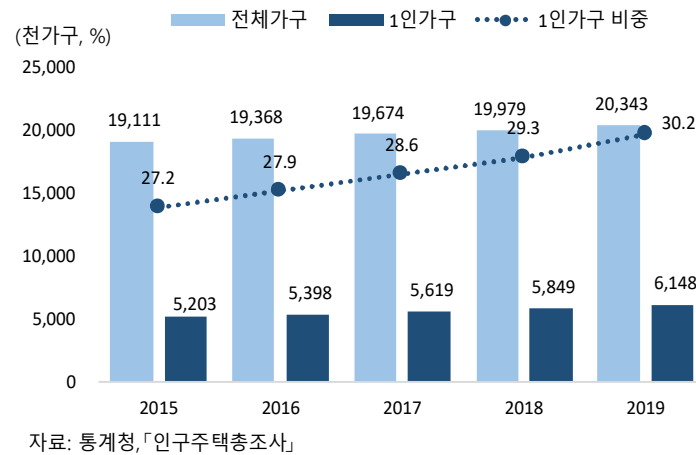
1) 1인 가구의 정의

- (1) 가구(家口):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
- (2) 1인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2) 1인 가구 실태

- 젊은 연령층은 결혼을 미루며 독립하여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노인들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증가하여 전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이다.
- 2019년 1인 가구는 전체 2,034만 3천 가구 중 614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30.2%) 차지한다.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 주요 연령 집단별 1인 가구 비율



<표 1> 가구원 수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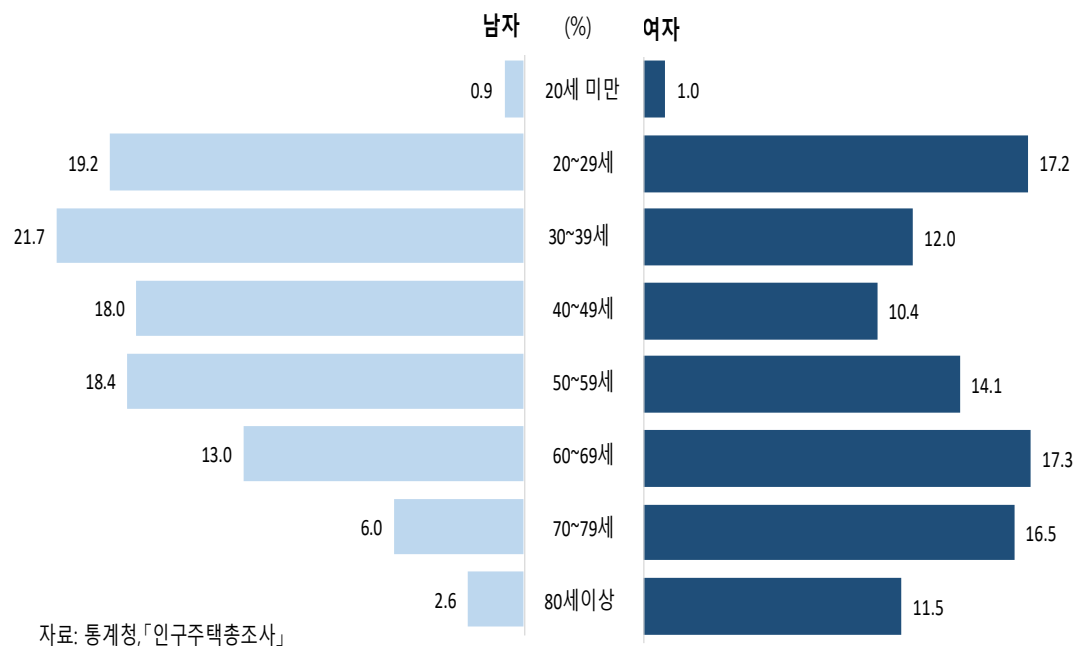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전체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전체 가구	비중	1인 가구	비중	2인 가구	비중	3인 가구	비중	4인 이상 가구	비중
2015	19,111	100.0	5,203	27.2	4,994	26.1	4,101	21.5	4,813	25.2
2016	19,368	100.0	5,398	27.9	5,067	26.2	4,152	21.4	4,751	24.5
2017	19,674	100.0	5,619	28.6	5,260	26.7	4,179	21.2	4,616	23.5
2018	19,979	100.0	5,849	29.3	5,446	27.3	4,204	21.0	4,481	22.4
2019	20,343	100.0	6,148	30.2	5,663	27.8	4,218	20.7	4,315	21.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성별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30대(16.8%), 50대(16.3%), 60대(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그림 2> 성 ·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3) 1인 가구의 적응

(1) 심리적인 적응

- 공동체나 동호회, 커뮤니티 등의 활성화 및 참여로 심리적인 돌봄 필요

(2) 생활 적응

-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생활 지원 정책이 필요
 - 식생활 : 소량 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소형주택의 보급 지원

- (3) 1인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참고자료 1> 1인 가구 지원 정책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혼인연령 증가,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인 가구'는 보편적인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와 소비패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혼밥('혼자 밥먹기'를 줄여서 부르는 말), 혼술('혼자서 술 먹기'를 줄여서 부르는 말), 쉐어하우스 등의 문화가 나타나고 기업에서는 기존 제품을 소량화, 소형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2021년 서울 성동구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정책 패키지 시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4%이며 이 중 청년층은 4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과 노년층은 각각 28.6%와 27.9%다.

성동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로 인해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20년 11월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청년층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고 주거 안전장치 미비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았다. 정신·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감을 경험하는 중장년 남성들과 건강돌봄을 우려하는 노년층까지 대상별 특성에 따라 원하는 욕구도 다양했다. 이에 구는 '청년 이사차량' 지원, '여성 4종 키트', 부동산 수수료 반값과 '청년통장'까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출처: 국민일보 (2021.7.18.))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66667&code=61111311&cp=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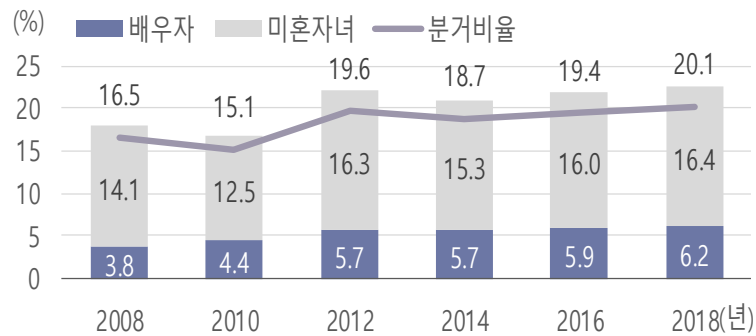
2. 분거 가족의 특성과 적응

1) 분거 가족의 특성

(1) 분거 가족의 정의와 유형

- ① 정의: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족(통계용어) 또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동거 생활을 6개월 이상 하는 가족
- ② 실태: 분거 가구 비율은 20.1%로 이중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가구는 6.2%, 미혼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가구는 16.4% 이다.(통계청(2019),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분거비율은 2008년 16.5%, 2010년 15.1%, 2012년 19.6%, 2014년 18.7%, 2016년 19.4%, 2018년 20.1%로 2014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그림 3> 분거비율 (2008~201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③ 유형: 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 해외 취업자 가족, 수형자 가족 등

(2) 분거 이유 및 동기

- ① 분거 가족의 분거 이유 조사 결과, 직장(62.9%)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29.4%), 군대(7.1%)순이다(통계청(2019), 2018 한국의 사회지표)
- ② 주말 부부의 경우, 경제적, 직업적 요소(여성 취업 증가)가 분거 동기로 작용한다.
-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 소재지, 자녀양육 장소에 따라 주 거주지 결정
- ③ 기러기 가족의 경우, 자녀교육 (자녀교육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도구적 가족주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입시경쟁, 사교육비 과점, 영어능력의 필요성 등), 내재된 부부갈등, 시가와와의 갈등이 분거 동기로 작용한다.(최규련, 2014)

<표 2> 따로 사는 이유(가구주, 중복응답)

(단위: %)

	분거가족	따로 살고 있는 이유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건강상 이유	자녀교육 지원 및 보육	군대	기타
2014	18.7	60.0	30.7	6.0	3.2	1.7	7.9	3.2
2016	19.4	63.1	28.9	5.2	2.6	2.1	9.7	2.4
2018	20.1	62.9	29.4	7.7	2.9	1.4	7.1	1.5
배우자	6.2	67.3	1.2	16.2	8.0	4.6	-	2.7
미혼자녀	16.4	57.3	35.6	3.9	0.5	-	8.7	1.0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 1) 한 가구주당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살고 있는 이유의 합이 100%를 넘을 수도 있음

2) 분거 가족의 적응

(1) 주말 부부의 어려움과 적응

① 주말 부부의 어려움

- 자녀양육과 훈육에서 아버지 역할 부재, 자녀의 정서불안 및 사기 저하, 집안일 의논 상대 없음, 부부간 각자 생활로 인해 친밀감이 낮아짐, 교통·통신비 증가, 외로움 및 성생활·건강 문제,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

② 주말 부부의 적응

- 직업에 충실, 부인의 가사가 역할이 적어지고 부부 각자의 자유시간 증가, 부부가 서로 중요성을 깨달음, 권태기가 적음

(2) 기러기 가족의 어려움과 적응

① 기러기 가족의 특성과 어려움

- ㉠ 자녀교육 문제가 부부관계나 가족응집성 보다 더 중시됨
- ㉡ 여성의 영향력이 증가 - 여성주도적으로 가족이 유지됨
- ㉢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하고 정보화의 실상을 확인시킴
: 대면적 관계 아닌 전화나 메일로 소통 -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면 갈등 심화
- ㉣ 동거 부부보다 부부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부와 모-자녀 관계로 분리됨
: 가족간 친밀감이 낮아짐, 아버지와 장기간 떨어져 지내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 ㉤ 장기간의 별거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와 자녀가 각자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을 갖기 쉬움

② 기러기 가족의 적응 과제

- ㉠ 가족 공동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 어머니 역할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여 자녀 뒷바라지 위주로 하면서 개인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뒷바라지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함
- ㉢ 자녀와 아버지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효율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고,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교감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최규련, 2014)

3.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특성과 적응

1)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특성

(1) 자발적 무자녀 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의 정의

- 생식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 ① 초기 결정자: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 ② 후기 결정자: 자녀 갖는 것을 연기하다가 무자녀 가족으로 남음

(2)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선택 동기

- ①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자유롭고 개인적인 자아성취 기회를 갖기 위함
- ② 부부 사이의 낭만적 요소를 유지하여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함
- ③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노후 준비를 위함

④ 부모 역할에 회의를 갖거나 양육 환경과 미래 상황이 불안한 경우

(3)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특징

- 대부분 학력이 높고, 직업성취 욕구가 높음. 평등한 성역할 태도 가짐.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자녀 있는 가족과 결혼 행복에 차이 없고, 부부 공동생활을 많이 하며, 평등한 부부관계 유지 함 (최규련, 2014)

2)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적응

(1)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어려움

- 무자녀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다.
 - '비정상이다', '이기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
- 자연스러운 부모됨을 포기한 결과, 노년기에 후회할 수 있고 부부관계가 깨지기 쉽다.

(2)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적응

-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부담과 비용 증가, 여성의 자녀출산 기피 풍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무자녀 가족이 늘어날 전망이다.
→ 무자녀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다양한 가족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규련, 2014)

4. 미래 가족 전망

- 미래에는 삶의 방식,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

1) 미래 가족 전망 - 다양한 가족의 증가

- (1) 결혼 선택의 다양성 - 결혼, 동거, 독신, 비혼, 이혼, 재혼 등
- (2) 가족 형성의 다양성 - 부모 자녀 가족, 부부 가족, 무자녀 가족, 1인 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등
- (3) 기타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 공동체 가족, 치매환자 돌봄 가족, 알코올 환자 가족 등

2) 미래의 다양한 가족

(1) 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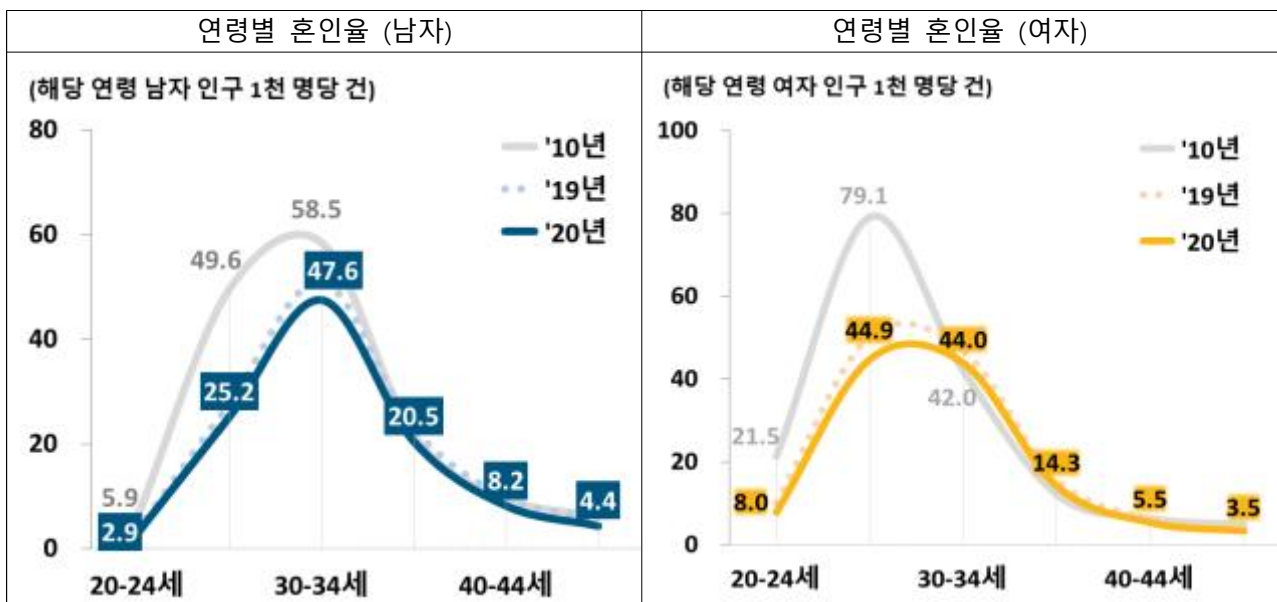
① 독신의 개념: 15세 이상인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

-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결혼적령기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

② 독신의 현황

- 독신의 현황을 연령별 혼인율로 살펴보면, 2020년 남자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함
 - 남자의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남자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0대 초반이 47.6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 20대 후반 25.2건임(2020년). 전년 대비 30대 초반은 3.6건, 20대 초반은 1.5건 각각 감소함
 - 남자의 연령별 혼인 구성비는 30대 초반(36.2%), 20대 후반(21.9%), 30대 후반(18.6%) 순으로 높음
 - 2020년 여자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함
 - 여자의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20대 후반이 44.9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대 초반으로 44.0건임(2020년). 전년대비 20대 후반은 5.5건, 30대 초반은 2.9건 각각 감소함. 여자의 연령별 혼인 구성비는 20대 후반(34.8%), 30대 초반(31.0%), 30대 후반(12.4%) 순으로 높음
- 남녀 모두 혼인율 감소 및 혼인 연령의 상승하여 20대 후반까지는 독신의 비율이 높음

<그림 4> 연령별 혼인건수 (2020년)



출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2021)

- ③ 독신의 유형(Stein, 1981) - 독신에 대한 자발성과 지속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 자발적인, 일시적인 독신 - 결혼 의사 없음(또는 향후 결혼 의사 있을 수도 있음), 현재 자발적으로 독신 상태 유지
 - ㉡ 자발적인, 안정적인 독신 - 결혼 의사 없음, 독신 선호 (예: 성직자 등)
 - ㉢ 비자발적, 일시적인 독신 - 결혼 의사 있으나, 현재 파트너 없음
 - ㉣ 비자발적, 안정적인 독신 - 결혼 의사 있으나, 파트너 찾기 힘든 상황으로 독신을 수용한 사람 등(유영주 외, 2000)
- ④ 독신에 대한 신화와 실제
- ㉠ 독신자들은 결혼을 원치 않는다 → 독신은 일시적인 과정이며 대부분의 독신자들은 결혼을 원하고

계획함

- ㉠ 독신자들은 이기적이다 → 독신자들, 특히 독신 여성들은 부모님을 돌보거나 가족을 위해 시간과 금전을 소비함
- ㉡ 독신자들은 여가 시간이 많고, 활동이 자유롭다 →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으나,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가 없거나 사회적 제약으로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음
- ㉢ 독신자들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 → 정상인과 별 차이 없음

(2) 입양 가족

- ① 입양의 정의: 아동의 친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혼외 임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찾아주는 것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국내입양아동
- ② 입양의 특징
 -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
 -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 가정을 제공
 -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 아동을 위해 더욱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됨
- ③ 입양 가족의 특성
 - 입양 가족은 가족 형성과정에 있어서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 양부모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도 있다.
- ④ 입양에 대한 견해
 - 입양에 대한 견해 조사에서,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입양을 적극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은 2018년 17.5%에서 2020년 19.9%로,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2018년 10.5%에서 10.9%로 각각 소폭 증가하였다.

<표 3> 입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8	100.0	17.5	10.5	39.9	32.1
2020	100.0	19.9	10.9	37.3	32.0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보고서-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⑤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 | | |
|-----------------------|-----------------------------|
| ㉠ 입양비용 지원 |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입양절차의 개선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 지원 | ㉤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
| ㉣ 육아휴직 및 공무원 입양휴가제 | ㉥ 공개입양의 활성화 |
| ㉤ 자조집단 활성화 | |

학습정리

1.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의식주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분거 가족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동거 생활을 6개월 이상 하는 가족으로 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 해외 취업자 가족, 수형자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3. 자발적 무자녀 가족은 생식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로, 무자녀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다양한 가족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미래에는 삶의 방식,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2) - 일·가정 양립: 맞벌이 가족 / 11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일(직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할 수 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2. 일과 가정의 양립

본 학습

1.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 많아지면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하고 가족원들의 적응 노력이 필요해졌다.

1) 일(직업)의 의미

- (1) 일은 경제적인 자원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수입원이 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자존감의 원천이 된다.
- (2) 일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감을 갖게 되고 직업을 통한 사회적 교류망과 소속감을 갖게 되며, 일의 보람과 자신의 유용성을 경험하게 된다.
- (3) 일과 가족이 일-공적 영역(주로 남성이 종사함)과 가족-사적 영역(주로 여성이 종사함)으로 분리되면서 남성에게는 성공 추구하고 경쟁력이 요구되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가족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2) 일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1) 일은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직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가족의 생활양식과 역할분담에 영향 미침)
- (2) 부부 중 한 사람이 일하는가, 두 사람이 일하는가에 따라 부부 권력과 가족 관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 (3) 취업, 이직, 승진 등의 시기는 개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시기, 자녀출산, 자녀독립 시기에 영향을 주며 개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4) 직업으로서의 일은 가사 노동에 비해 근무 시간과 일정 등에 융통성이 적어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출퇴근시간, 통근거리, 출장횟수 등) (유영주, 2008)

3) 일 관련 변수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고용시간의 영향: 일하는 시간 양과 일정 등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장기간의 근무시간과 융통성이 적은 근무일정 등은 취업 여성의 갈등을 유발한다.

(2) 소득수준의 영향: 소득은 어느 수준까지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 소득이 높아지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체감하는 곡선적 관계로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하다.

(3) 직업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 연결이론과 분리이론이 있다.

- 직업 만족이나 스트레스가 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연결이론) VS 직업과 가족은 별개이므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리이론)
- 직업 스트레스가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가족간의 심리적 스트레스 유발한다.

(4) 가족의 지지 및 가사노동 참여: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영향 미친다.

- 직업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부부 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부간 소득격차가 적고, 남편의 근무시간이 많지 않거나 융통성이 있고,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다.

(5) 자녀변수: 취업 시 자녀연령(자녀가 성장할수록 긍정적 영향), 자녀수가 영향 미친다.

-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역할갈등이 심하다.(유영주 외, 2008)

4) 맞벌이 가족의 적응

(1) 맞벌이 가족의 증가 :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였다.

- 여성의 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참여 욕구와 자아 성취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직업에 삶의 가치를 두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 출산율 감소와 가사노동의 기계화 및 간소화로 가정 내 여성의 일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참여가 자유로워졌다.
- 경제력(수입) 증대의 필요해졌다.

(2)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취업 주부의 역할 과중과 역할 긴장, 피로 문제(가사분담), 가족 관계 악화 등

(3) 맞벌이 가족의 적응

- ① 여성의 의식 전환 - 가계부양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부양자
- ② 남성의 가정 내 역할에 적극 참여 - 성별분업체계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 ③ 가족과 직업의 주기를 적절히 조절 - 자녀출산시기, 직업훈련시기 조정 등
- ④ 합리적인 가사 관리 - 합리적 가사노동, 가정기기 활용 등
- ⑤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에 따른 좋은 점을 인식하고, 부부가 대화와 결속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과 지도를 함
- ⑥ 국가와 사회의 맞벌이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보육시설 확충, 육아 휴직제, 유연하고 양성평등 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최규련, 2014)

5) 실업의 영향

- (1) 실업은 생활비를 줄이고 긴요하지 않은 지출을 생략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지속될 때 생계유지 문제를 초래한다.
- (2) 실직자는 자존감과 정체감이 저하되며, 소외감과 외로움, 무력감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 (3) 전체 가족원에게 불안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과 긴장, 폭력이 늘어나기 쉽고 부부간의 별거, 이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 (4)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변화가 나타난다. (가사분담, 자녀들의 경제활동 증가 등)
- (5) 실업의 부정적 영향은 실업 이전 부부간의 결속도와 대화 정도, 유대감이 높을 때, 가족의 친밀성이 높을 때, 축적된 자산이나 자원이 많을 때, 가족의 적응력이 높을 때 최소화 될 수 있다. (최규련, 2014)

2. 일과 가정의 양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

1)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 (1)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
- (2)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 (3) 가족친화제도
 - ①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②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③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④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조성한다. (가족친화법 제 2조, 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그림 1> 일·생활 균형 10대 핵심 실천 제안과제

일·생활 균형 10대 핵심 실천 제안과제

1	정시퇴근 YES! 퇴근 후 업무연락 NO!
2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한 직장문화를 만듭니다.
3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하며,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4	집안일을 함께하고 함께 쉽니다.
5	육아는 엄마·아빠가 공동으로 함께 합니다.
6	우리 사회의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에 솔선하겠습니다.
7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우리 회사에 맞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9	근로시간에는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일하겠습니다.
10	동료의 일·생활 균형을 존중하겠습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정보마당-자료실
(<http://www.ffsb.kr/ffsbod/bs/boardView.do>)

2) 생애주기별 일·가정양립 제도

-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균형)'에 필요한 맞춤 정책의 예

- (1) 전생애: 가족돌봄휴직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2) 결혼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사업
- (3) 임신·출산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진료비 지원
- (4) 보육·육아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 (5) 자녀교육기: 방과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한부모·장애·조손·다문화·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학습지원, 청소년 생활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받음
- (6) 기업(기관)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그림 2> 일·가정균형 관련 제도와 법령 - 가족생활과 워라벨

The screenshot shows the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to-find Life Law Information) website. The page is titled '워라벨과 생활법령' (Work and Life Balance and Life Law). It features a 'Work and Life Balance!' banner with icons for work, family, and life.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boxes listing various laws and benefit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such as '가족생활과 워라벨' (Family Life and Work-Life Balance), '다문화가족' (Multicultural Families), '상혼부부' (Sanghon Couple), '영유아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임산부' (Pregnant Women), '태아 및 신생아' (Fetus and Newborn), '한부모가족' (Single-parent Family), '노인복지' (Elder Welfare), '다자녀가구' (Multi-child Family), '아파트 분양받기' (Apartment Allocation), and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출처: 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워라벨' (<https://www.easylaw.go.kr>)

3) 육아 및 가족돌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또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은 근속기간에 포함함
- 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함
- ④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3) 가족돌봄 지원 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① 가족돌봄 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가족돌봄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③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그림 3>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정책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학습정리

1. 일은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부부 권력과 가족 관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2. 취업 등의 시기는 개인의 자존감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자녀출산 시기에 영향을 주며 개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3. 직업으로서의 일은 가사 노동에 비해 근무 시간과 일정 등에 융통성이 적어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4.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의 가족친화제도가 있다.

다양한 가족(3) - 이혼, 재혼, 한부모가족 / 12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이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3. 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이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
2. 재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
3. 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적응

본 학습

1. 이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

- 이혼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생존해 있는 결혼 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 결합 관계를 소멸하는 것이다.

1) 이혼 가족의 실태

- ① 1960년대 후반부터 조이혼율 서서히 증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함.
특히 1997년 이후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조이혼율이 높아져 2003년에는 최고치인 3.54를 기록한 후 약간 낮아졌으며, 이후 소폭의 증감 정도로 큰 변동 없음.

<그림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197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② 2010년 ~ 2020년의 조이혼율은 2.3건~2.1건

- 2020년 이혼은 10만 7000건, 2019년 대비 3.9%(-4천건) 감소함
- 2020년 조이혼율은(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¹⁾ 2.1건으로 2019년보다 0.1건 감소함

<그림 2>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10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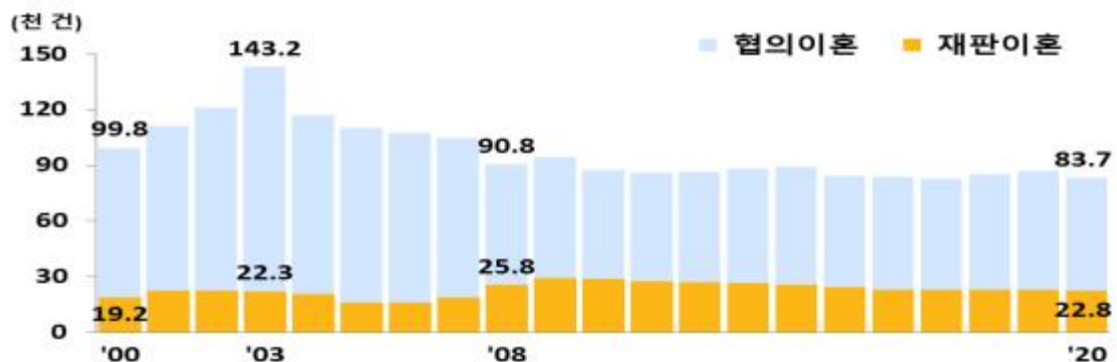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③ 종류별(협의·재판) 이혼을 비교해보면, 재판 이혼에 비해 협의 이혼의 비율이 높음

- 2015년~2020년에 처리된 총 이혼건수 64만8천건 중 재판이혼은 13만9천건(21.6%), 협의이혼은 50만 8천건(78.4%)임.
- 2020년 이혼건수 10만 6천건 중 협의이혼은 8만 4천건(78.6%), 재판이혼은 2만3천건(21.4%)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3%, 2.3%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협의이혼 비중은 0.3% 감소, 재판이혼 비중은 0.3% 증가함.

<그림 3>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추이(200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1)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이혼율=연간 이혼건수 ÷ 총인구(연앙인구) × 1000 (통계청, 통계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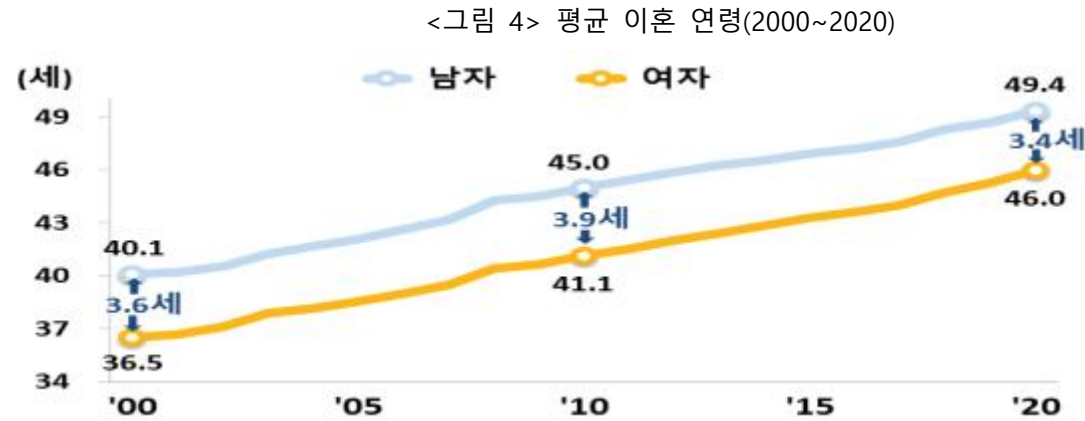
<표 1>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천 건,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증감률
계*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3.9
협의이혼 (건수(구성비))	84.6(77.5)	84.0(78.3)	83.0(78.3)	85.6(78.8)	87.4(78.9)	83.7(78.6)	-4.3(-0.3)
재판이혼 (건수(구성비))	24.5(22.4)	23.3(21.7)	23.0(21.7)	23.0(21.2)	23.3(21.1)	22.8(21.4)	-2.3(0.3)

* 미상포함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④ 성·연령별 이혼 실태

㉠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상승 추세임(2020년)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 성별 이혼 건수 및 이혼율 (2020년 이혼통계)

- 남자의 연령별 이혼은 60세 이상(2만 건, 18.3%), 40대 후반(1만 8천 건, 16.6%), 50대 초반(1만 7천 건, 15.8%) 순으로 많음(2021년, 통계청). 전년대비 이혼건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이혼은 감소, 60세 이상(9.6%)의 이혼은 증가함.
- 남자의 일반이혼율(15세 이상 남자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8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함.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남자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0대 후반이 8.0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초반(7.8건)과 50대 초반(7.7건) 순임. 전년대비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이혼율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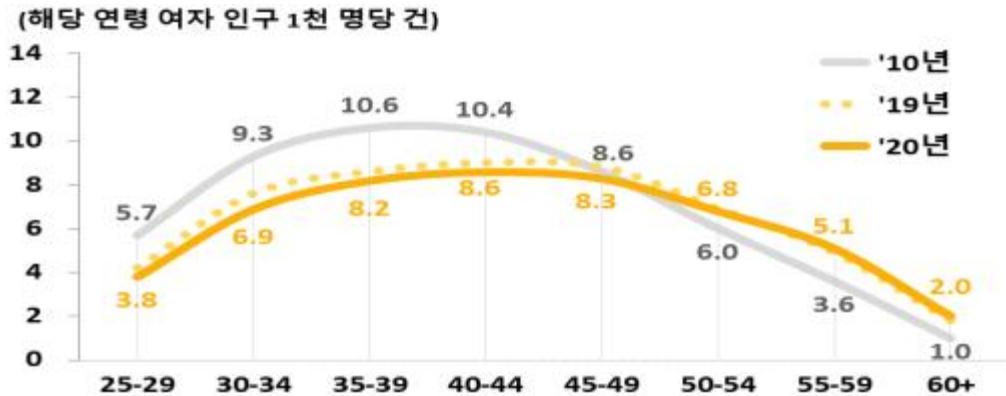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이혼율(남자)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 여성의 연령별 이혼은 40대 후반(1만 8천 건, 16.9%), 40대 초반(1만 6천 건, 15.3%), 30대 후반(1만 5천 건, 14.3%) 순임. 전년대비 40대 이하 이혼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의 이혼은 증가함.
- 여성의 일반이혼율(15세 이상 여자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7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함.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0대 초반이 8.6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후반(8.3건), 30대 후반(8.2건) 순임. 전년대비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이혼율은 감소함.

<그림 6> 연령별 이혼율(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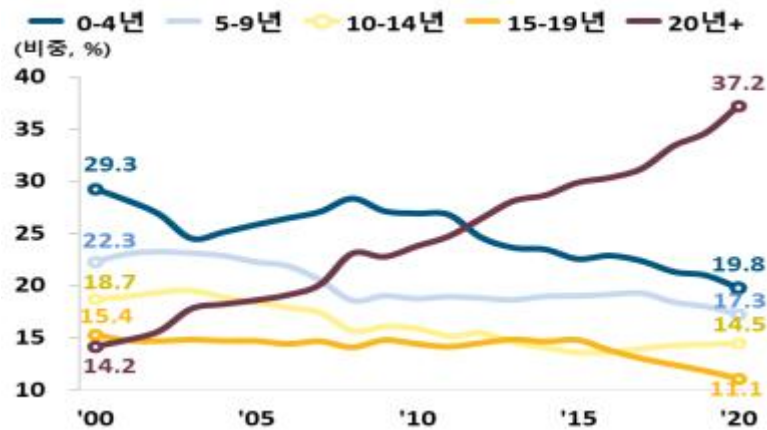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⑤ 혼인 지속기간 및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실태

㉠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2020)은 16.7년으로 전년대비 0.7년, 10년 전 대비 3.7년 증가함.
- 혼인지속기간 20년 미만 이혼은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대비 3.2% 증가함.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20년 이상 이혼이 37.2%로 가장 많고, 4년 이하 이혼이 19.8% 순으로 많음.

<그림 7>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200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㉔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구성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 5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3%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55.1%로 10년 전 대비 9.2%p 증가함.
-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2.5%, 2명은 16.5%, 3명 이상은 3.3%를 차지함.

<그림 8>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구성비(200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㉕ 이혼사유

- 이혼 사유는 전체 106,032건 중 '성격차이'가 45,676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195건(20.0%), '경제문제' 10,742건(10.1%), '배우자의 부정' 7,528건(7.1%), '가족간 불화' 7,523건(7.1%), '정신적·육체적 학대' 3,837건(3.6%), '건강문제' 594건(0.5) 순이며, 미상 8,937건(8.4%)이 나타났다. (통계청, 2017)

<표 2>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및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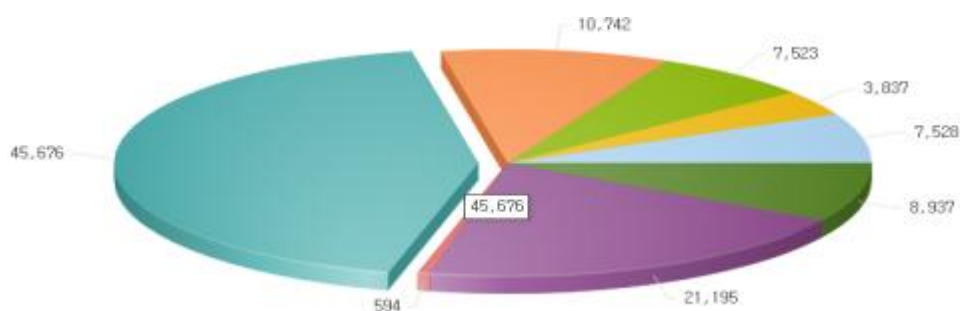
(단위: 건,

계	배우자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미상
106,032	7,528	3,837	7,523	10,742	45,676	594	21,195	8,937
(100.0)	(7.1)	(3.6)	(7.1)	(10.1)	(43.1)	(0.6)	(20.0)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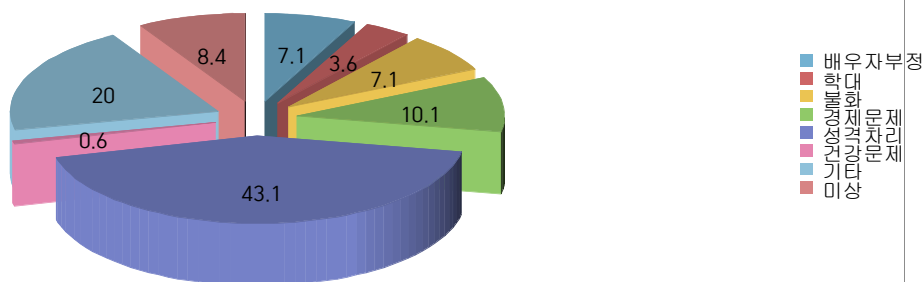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7), 인구동향조사(2017)

<그림 9>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건)

(단위:



이혼사유별 비율



2) 이혼 가족의 적응

-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이혼 당사자 부부 뿐만 아니라 이혼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혼 전과 이혼 후에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여러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 이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도움 외에는 별다른 지원 제도가 없으므로 정서적

지원 및 지지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1) 이혼 전 지원정책 활성화

- ① 이혼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실시
- ② 부부관계 회복과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조정과 중재
 - 이혼숙려기간 제도, 상담권고제도 등

(2) 경제적 지원제도

- 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 ②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 생계비 보조
- ③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3)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 ① 취학 전 자녀를 위한 종일반 보육프로그램 운영
- ② 취학 자녀를 위한 방과후 자녀생활지도 프로그램이나 이용시설 운영
- ③ 자녀 상담이나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 ①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② 이혼 후 심리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③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집단 운영

<양육비 이행 관리원>

1. 양육비이행관리원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둔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합의나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준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

2. 재혼 가족의 실태와 적응

1) 재혼 가족의 실태

(1) 재혼가족의 정의

- 재혼 가족 -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이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족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
- 계부모 가족 - 최소한 한쪽의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 (최규련, 2014)

(2) 재혼 가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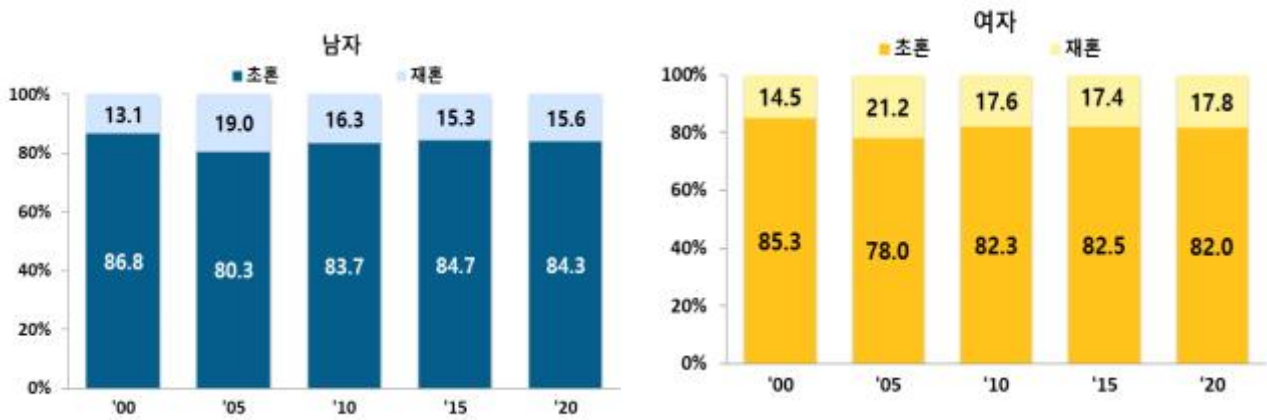
- 재혼남+재혼녀, 재혼남+초혼녀, 초혼남+재혼녀

(3) 재혼 가족의 실태

① 전체 결혼 중 재혼 - 약 21.5%(2020년)

- 2020년 전체 혼인은 21만3500건 중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16만 7천건으로 전체 혼인의 78.2%, 남녀 모두 재혼은 2만5200건으로 11.8%를 차지함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3.7%, 남자 초혼+여자 재혼'은 6.0%) 2020년 혼인은 2019년 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함.
 - 남자 : 전체 혼인 중 초혼 84.3%, 재혼 15.6%임
 - 여자 : 전체 혼인 중 초혼 82.0%, 재혼 17.8%임

<그림 9> 혼인종류별 구성비(200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② 평균 재혼연령

- 2020년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50.0세, 여자 45.7세로 2019년에 비해 남자는 0.4세, 여자는 0.6세 상승하였고 20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9세, 여자는 4.1세 각각 상승함.
- 남녀 간의 평균재혼연령 차이는 4.3세로 2019년에 비해 0.1세 하락함. (남녀 간의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5세임)

<그림 10> 평균 재혼연령(200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통계

2) 재혼 가족의 적응

(1) 재혼 가족의 특징

- ① 재혼 가족의 구조는 복잡하고 확대된 관계망으로 구성됨
- ② 계부모 자녀들은 두 가정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점이 더욱 복잡성을 증가시킴.(자녀들은 감정적 혼란을 겪기도 하고, 사별 또는 단절된 부모를 이상화하거나 계부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기도 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재혼 가족은 문화가 다른 가족원이 결합한 특성이 있음
- ④ 친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부부간의 유대보다 더 먼저 형성되었고 발달단계가 상이한 개인과 가족이 결합하였음
- ⑤ 초혼 가족과 달리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인생의 큰 스트레스 사건과 변화를 겪은 경험이 있음.
- ⑥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계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하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형성과 가족정체감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재혼 가족은 가족관계, 기능, 구조면에서 초혼 가족보다 적응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최규련, 2014)

(2) 재혼 가족의 어려움

- ① 충성심 갈등: '충성심 갈등'은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지면서 경험하는 갈등
예) 계부모를 제외하고 친부모와 동맹 맺음 → 재혼가족의 친밀감 형성 저해, 긴장과 갈등 증가
- ② 경계 모호와 역할 혼란: 계부모-계자녀 관계, 동거 혹은 동거하지 않는 친자녀 관계, 재혼 부부 관계 등
- ③ 경제적 자원관리 문제와 재혼 가족에 대한 편견

(3) 재혼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① 계자녀의 성별과 연령 - 계부모와 계자녀의 적응에 자녀의 연령과 성이 중요한 변인임.
 - ㉠ 발달적 전환기인 '청소년기 계자녀'에게 적응 문제가 많이 나타남
 - ㉡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유대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줄고 적응이 쉬움
 - ㉢ 재혼하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생활주기의 격차가 크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됨
- ② 가족체계 및 경계: 가족의 경계와 역할이 명료할 때 적응 쉬움
- ③ 부부 관계와 재혼 유형, 자녀요인
 - ㉠ 부부가 동질감으로 강한 유대 형성, 결혼만족도 높은 경우, 적응을 잘함
 - ㉡ 계자녀가 없는 경우 > 있는 경우에 적응 잘함.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 재혼 가족에서 출생한 자녀: 결혼 안정성을 높임 또는 갈등 원인
- ④ 기타 - 재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재혼 가족 유형, 계자녀의 동거 여부보다 부부간 상호작용방식, 갈등 해결방식, 경제적 안정, 원만한 친족관계,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명확성 등이 더 큰 영향 미침 (최규련, 2014)

(4) 성공적인 재혼 가족생활을 위한 적응 방안

① 재혼가족의 발달단계별 적응

- 재혼 결심단계 - 재혼 준비단계 - 재혼 초기단계 - 재혼 중기단계

→ 재혼 초기~중기 단계에 적절한 행동규범과 호칭을 정하고 경제관리 방법을 의논하며, 공간, 시간,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함 (최규련, 2014)

② 개인적 방안

- 전혼의 상실감 수용, 애도 기간 가짐, 전배우자나 그 가족이 협조적임,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원에게 비현실적 기대 갖지 않음, 단합된 부부 관계 유지, 계자녀 관계 및 계형제간 관계 원만함, 가족역할이 분명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갈등해결, 가족의례와 규칙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경우 적응을 잘함

③ 사회적 방안

- 재혼 가족수용, 편견 갖지 않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 건강한 재혼가족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④ 재혼 가족 자모모임과 지지집단 형성

⑤ 재혼 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 정비 (최규련, 2014)

3. 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적응

-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1인이 아동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으로 과거에는 결손 가정, 편부모 가정이라고 하였으나 이 용어가 결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라고 함. 한부모 가족에서 '한'은 하나로서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의미가 있음
- 한부모 가족의 정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사별, 이혼, 별거, 유기,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입소, 병역복무 혹은 미혼자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예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함

1) 한부모 가족의 실태

(1) 한부모가구 비율

- 전체 가구 2,148만5천 가주 중 한부모 가구수는 153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은 약 7.1% 정도임

<표 3>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천가구, %)

		2016	2017	2018	2019	2020
한부모가구 * 현황	전체 가구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한부모 가구	1,540	1,533	1,539	1,529	1,533
	한부모가구 비율	7.8	7.6	7.5	7.3	7.1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출처: 통계청(2020),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 2016~2020」

(2) 한부모 가족의 특성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① 혼인상태별 특성: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비율 감소(2010년 29.7% - 2018년 15.4%),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이며 미혼 4.0%, 별거 2.9% 순으로 나타남
 - 이혼이나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가족정책의 방향도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자립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다문화가족과 재혼가족의 이혼건수 증가 - 한부모가족 증가
 ⇒ 한부모 가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② 자녀수: 평균 1.5명 자녀양육, 자녀수 1명 55%, 2명 37.1%
- ③ 가구구성 :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에 비해 많음. 그러나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임. 한부모 가족 중 '모자(母子) 가구' - 51.6%, '부자(父子) 가구' - 21.1%, '모자+기타가수' 13.9%, '부자+기타가구' 13.5% 순
- ④ 소득: 월평균 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2018년 전체가구 평균소득 - 389.0만원)
- ⑤ 경제수준: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됨
- ⑥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⑦ 자녀양육: 초등학교 자녀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이용이 높아짐(47%→53.7%)
- ⑧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계속 높아짐.(2012년 30.4%→ 2015년 41.5%→ 2018년 46.0%) -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개편 및 교육 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 ⑨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 지급'은 증가(5.6%→15.2%)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한부모 가족의 적응

(1)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 ① 사회적 편견 문제: 한부모 가족을 편부/편모가족, 결손가족 등 부정적 시각으로 봄.
-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수용
- ② 경제문제: 배우자(부 또는 모) 부재로 인한 소득감소, 주택문제,母的 재취업 기회 제한, 父의

직업·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등

- ③ 정서적 문제: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의 역할과중 및 역할긴장,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 실패감, 사회적 위축감, 고립, 우울 등
 - 반면, 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일에 몰두, 자기계발, 이혼 후 성숙해짐 등 긍정적 면이 나타나기도 함
- ④ 부모-자녀관계 문제: 양육 한부모는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므로 시간부족,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거나 거부적 태도 보이기도 함 / 비양육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빈약해짐.
 - 자녀는 동일시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발달장애나 역할모델 결핍을 겪기도 함
 - ➔ 그러나 한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경제력이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경우, 前 배우자와 관계가 원만한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한부모-자녀 적응수준 높음 (최규련, 2014)

(2)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

- ①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 등
- ② 고용지원: 고용촉진, 고용지원연계,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 설치 등
- ③ 가족지원 서비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 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④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지원함 /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함
- ⑤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⑥ 국민주택의 임대 및 분양: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함
- ⑦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모자/ 부자/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3)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 과제

- ①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미비 -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어야 함
- ② 자녀양육비 법제화 하고(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등) 여성 한부모를 위한 직업 알선과 직업 교육의 다양화 필요
- ③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 적응 지원 필요 - 정서적 지원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④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적·심리적 상담기관 설립 - 적응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습정리

1. 이혼 가족의 적응을 위하여 이혼전 교육과 상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제도, 정부나 민간단체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민간 단체의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재혼 가족의 적응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전혼의 상실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재혼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편견 갖지 않는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한 재혼가족 모델 발굴과 재혼 가족 자모모임과 지지집단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혼 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 한부모 가족의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편견 개선, 경제적 지원, 고용지원,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국민 주택의 임대 및 분양,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4) - 다문화 가족 / 12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다문화 가족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특성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다문화 가족의 현황
2. 다문화 가족의 특성
3. 다문화 가족의 적응

본 학습

1. 다문화 가족의 현황

1) 다문화 가족의 정의

- 다문화 가족: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 (최규련, 2014)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통계청)
- 국제결혼가족: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구(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년)
 -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내국인(출생) :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국적회복자는 제외함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출생) 또는 내국인(귀화)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 다문화 대상자 :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중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을 의미함

<참고자료. 1>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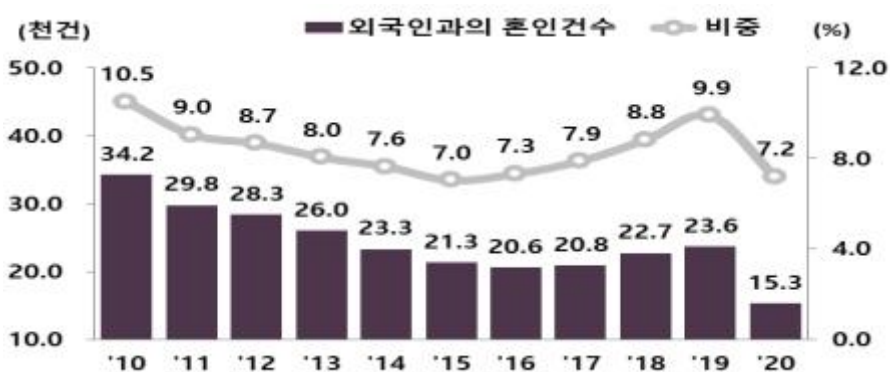
2) 다문화 가족의 현황

(1) 다문화 가족의 혼인 현황

①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외국인과의 혼인은(2020년) 총 혼인건수 21만 3,500건 중 1만 5,300건으로 2019년 대비 35.1% 감소하였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1,100건으로 전년대비 37.2% 감소,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4,200건으로 전년대비 28.8% 감소하였다.
- 2020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2%로 2019년보다 2.7%p 감소하였고,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72.4%, 외국 남자와의 혼인 비중은 27.6%를 차지한다.

<그림 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중 추이 (2010년~2020년)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7.2%(총 혼인 21만,3,500건 중 1만,5,300건)이며, 이 중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혼인한 경우가 5.2%,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 혼인한 경우가 2.0%이다.
-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9.3%), 외국인 남편(17.2%), 귀화자(13.5%) 순이다(2019년).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2020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2000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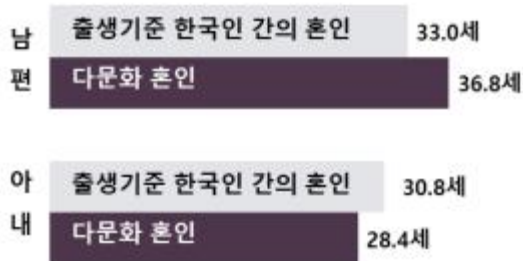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② 혼인 연령

- 2019년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8세, 아내는 28.4세로 2018년 대비 0.4세, 0.1세 각각 증가하였고,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 연상부부가 78.5%로 가장 많고, 남편이 10년 이상 연상인 부부는 42.0%로 2018년 대비 1.1%p 증가하였다.

<그림 4> 평균 초혼연령(2019년)



<그림 5> 부부 연령차별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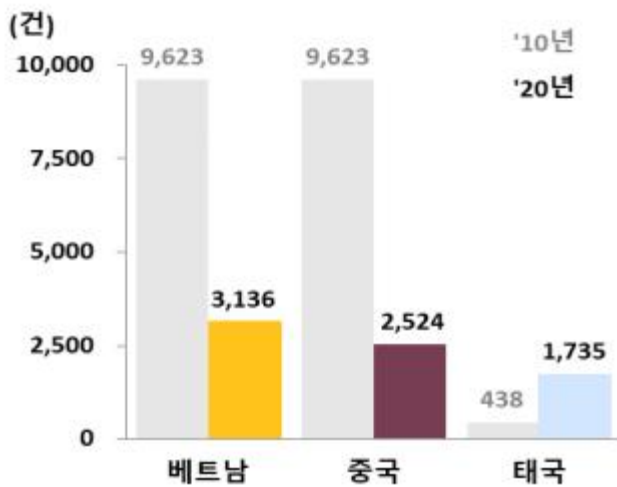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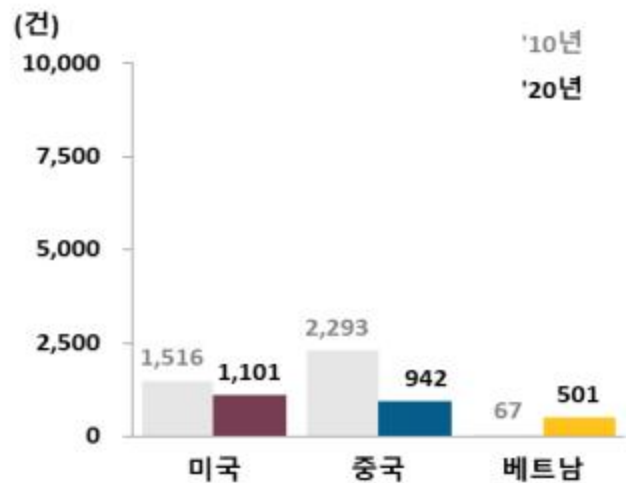
③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 2020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28.3%), 중국(22.7%), 태국(15.6%) 순이며, 2019년 대비 외국 여자와의 혼인건수는 베트남(-53.3%), 중국(-30.8%), 태국(-15.4%) 모두 감소하였다.
-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2020년) 미국(26.0%), 중국(22.2%), 베트남(11.8%) 순이며 2019년 대비 외국 남자와의 혼인건수는 미국(-25.0%), 중국(-33.0%), 베트남(-21.6%) 모두 감소하였다.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2010년, 2020년)



한국여자와 혼인한 외국남자의 국적(2010년, 2020년)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 다문화 가족의 이혼 현황

①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외국인과의 이혼은 총 이혼 건수 10만 6,500건 중 6,200건으로, 2019년 대비 10.5%(-1천 건) 감소하였다. 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4,400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 외국인 남자와의 이혼은 1,800건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하였다.
-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5.8%로(2020년) 이는 2019년 대비 0.4% 감소한 것이며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인 여자와의 이혼 비중은 70.9%, 외국인 남자와의 이혼 비중은 29.1%를 차지한다.

<그림 8>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및 비중 추이(2010년~2020년)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② 이혼 연령

- 2019년 다문화 가족 중 이혼을 한 남편의 평균 이혼 연령은 49.7세, 아내는 39.9세로 전년대비 0.3세, 0.6세 각각 증가하였고,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8.6년으로 2009년 대비 4.5년 증가하였다.

<그림 9> 평균 이혼연령(2019년)



<그림 10> 결혼생활 지속기간(2009년, 2019년)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3) 다문화 가족 자녀 현황

① 출생 및 출산 추이

- 2019년 전체 출생아 수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9%로 2018년 대비 0.4% 증가하였고,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4.2%), 귀화자(22.3%), 외국인 부(13.4%) 순이다. 2018년 대비 외국인 모, 귀화자는 각각 1.4%, 0.4% 증가, 외국인 부 1.9% 감소하였다.

<그림 11> 다문화 출생 추이



<그림 12> 다문화 출생 유형별 비중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2019년 다문화 출생을 한 모의 평균 출산연령 30.6세로 2009년 대비 2.9세 증가하였다.
- 외국인 및 귀화자의 모(母)의 국적은 베트남(38.2%), 중국(19.9%), 필리핀(6.1%) 순이며(2019년), 2018년 대비 베트남 비중은 2.6% 증가,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0.9%, 0.8% 감소하였다.

<그림 13> 평균 출산연령(2009년, 2019년)



<그림 14> 모의 주요 국적별 출생 추이



- 다문화 가구의 평균 자녀수 0.95명, 자녀의 평균 연령 8.3세이다. 연령 분포 상 6세 미만 영유아 39.1%, 초등학령기인 6~11세 37.2% 순으로 많다. 국제결혼 감소와 다문화가족 내 출산 건수 감소 추이로 추정해보면 자녀 평균 연령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19년)

<표 1> 다문화 가족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8	237,506	114,125	92,368	19,164	11,849
2019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출처: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자료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4) 다문화 가족의 가족관계 현황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① 부부관계

- '부부관계 만족도'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중 80.4%가 배우자와 관계에 '매우 만족'(53.6%) 또는 '만족'(26.8%) 한다고 응답하여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5점 척도 기준 4.31점)
- '부부관계 만족도'는 여성(4.26점)보다 남성(4.55점)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5년 미만인 경우 만족도(4.41점)가 나이 차이가 15년 이상인 경우 만족도 (4.23점)보다 높다.

② 자녀와의 관계

- 결혼이민자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55.3%) 및 '만족'(34.7%)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0.0%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보다 자녀와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44.9%) 및 '만족'(41.2%)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6.1%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족관계

-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55.0%) 및 '만족'(27.3%)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2.3% 이고, 한국인 아내 응답자중 전체 응답자의 84.1%가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60.2%) 및 '만족'(23.9%) 한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 다문화 가족의 특성

1) 다문화 가족의 특징

-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대다수가 결혼 생활을 위한 언어적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 부부간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 세대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커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

- (1)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부부갈등, 정보, 자원, 취업에서 소외됨
- (2)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과 자녀양육 문제
- (3) 사회의 편견과 차별
- (4) 결혼이민자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폭력 경험
남편의 음주 의존도가 높고, 남편이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이 적은 경우, 이주 여성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낮은 경우, 남편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
→ 가정폭력의 경험이 높았음
- (5) 부부간에 신뢰와 상호 존중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해결이 미흡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최규련, 2014)

3. 다문화 가족의 적응

1) 다문화 가족 적응의 위한 제안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② 다문화 가족의 아동 양육 지원 방안
- ③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제도 도입
- ④ 혈연중심의 가치관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을 탈피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 전개

2) 다문화 가족 적응의 위한 지원 정책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11조의 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참고자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 실시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

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외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학습정리

1.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2% 정도이며,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72.4%, 외국 남자와의 혼인 비중은 27.6%를 차지한다.(2020년)
2.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결혼생활을 위한 언어적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고 부부간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에도 세대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커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 가족의 아동양육지원,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제도 도입,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탈피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 전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 13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전통 가족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현대 한국 가족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전통 가족의 특성
2. 현대 가족의 변화

본 학습

1. 전통 가족의 특성

1) 혼인풍습

- 혼인(婚姻)은 남자 여자가 부부되는 일, 결혼(結婚)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
- 사돈은 혼인으로 인해 두 집안 사이에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한 두 집안 사이에서 당사자의 부모들끼리 혹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말. 또는 그러한 관계에 놓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1) 서류부가(婿留婦家) - 남자가 여자집에서 혼례를 거행하고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우리 고유의 혼인풍속이다. 부귀부가(夫歸婦家) 또는 남귀여가(男歸女家) 라고도 한다. 서류부가 혼속은 후대로 이어져 내려오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유입되어 친영을 가례(家禮)로 강조하였다.

<읽어보기 1> 고구려의 서옥제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 - 고구려에서는 처가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 사위부부가 살게 하고, 자녀를 낳아 장성하면 비로소 남자의 집으로 돌아갔음

『삼국지』1) 고구려 전기에 실린 고구려의 혼인풍속:

(~생략) 그 풍속에 혼인할 때에는 구두로 미리 약정하면 여자 집에서 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어 그 집을 '사위집(婿屋)'이라 부른다. 저녁 무렵에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잘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 부모는 그때서야 '사위집'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그 집 옆에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2) 친영(親迎) - 혼례를 남자집에서 거행하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맞아 오는 절차.

* 신랑이 장인 집에 가서 신부를 대동해와 본가에서 혼례를 올린 '친영'의 예:

-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혼인-친영의 예를 실시함

- 세종(1435년) 때 옹주의 혼례를 친영례(親迎禮)로 실시함

(3) 반친영 - 조선시대에 서류부가 혼속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속되어 오다가 명종 때에 혼례는 종전대로 신부 집에서 거행하되 사흘째에 신랑 집으로 가서 옛 혼속대로 행하자는 절충론인, 반친영(半親迎) 또는 삼일신행(三日新行)이 제창되어 관습화되었다. 18세기경부터는 반친영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면서 처가 체류기간도 1년 또는 2, 3년으로 짧아졌다.

전통 가족에서 '장가들러 가서' 신부집에서 혼례를 하고 신혼살림을 신부집에서 시작하던 혼인 풍습이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는' 반친영으로 변화하고 신부집 체류 기간이 짧아진 것은 유교(성리학)의 이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혼례 전통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 유교적 이념에 따라 사회 및 가족관계에서 평등한 질서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명확히 강조되고 남녀 지위에 차별이 생겼다.

• 가족 내에서도 남녀차별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다르고 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 남자가 여자집에 기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 예: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한다. /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4) 혼인풍속의 변화

• 전통 가족에서 혼인은 두 집안이 맺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대 가족에서 혼인은 두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 혼인 후 거주지를 신랑 또는 신부의 집으로 결정하기보다, 직장, 자녀양육, 집값 등 실질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의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게 된다.

2) 가족 형태 - 전통 가족의 시대별 특성

(1) 고대의 가족과 친족

- 삼국과 통일신라 가족생활에 대한 실증 자료가 매우 적어, 제한적 자료로 추정한다.
- 부계적(父系的) 원리가 우월하면서 비단계(非單系)의 원리가 작용된다.
 - 고구려: 서류부가혼, 서옥
 - 신라: 아들, 사위, 친손(자), 외손(자), 딸이 왕위 계승함
 - 통일신라: 서류부가혼

(2) 고려 시대의 가족

- 서류부가혼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
- 쌍변적 방계가족(雙邊的 傍系家族), 부계(父系)가 우위에 서는 비단계(非單系) 사회
 - 남편연상형 혼인이 다수임. 다처(多妻)의 지위가 동등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재혼이 자유로움.
 - 입양기록이 적음.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 입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아 입양 비율도 높음.
 - 호적(戶籍)은 자녀의 남녀구별이나 기혼·미혼 차별 없이 연령별 기재. 일부 가족은 출생순서대로 자녀를 기재하고 친손과 외손을 차별 없이 모두 기록한 가족기록 형태의 족보를 발행함.
 - 상속에서 친손과 외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생(甥), 질(姪), 사위, 사손(使孫) 등으로 계승됨.

(3) 조선 시대의 가족

- 조선의 통치 이념이 유교로 개편되면서 혼인풍습에 친영이 도입되고, 서류부가혼과 절충한 반친영으로 변화하였다.
 - 조선 초기 족보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출생순위대로 기재하고 친손·외손도 동등하게 기재했으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아들은 앞에 딸은 뒤에 기재하고 친손 위주로 기재하고 외손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 조선 중기 이후(17~18세기), 가족관계에 엄격한 유교윤리가 적용되었다. 가족의 중심은 수직적 부자관계이며, 남성우위 및 남녀의 역할분리, 가부장중심, 장남우위, 상하의 신분서열, 남아선호사상 등이 나타났다.
 - 조선 중기 이후, 양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입양 목적-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
 - 조선 중기 이후, 재산상속은 자녀 균분제에서 장남우대로 변화하고 남녀차별이 나타났다. 제사상속도 윤회·분할 봉사(奉祀)에서 장남이 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조상숭배 기풍이 강화되었다.

3) 가족가치관

-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가족중심적 사회였다.
- 가족주의 :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 지속 · 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 · 영속화 ·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을 지칭한다.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으로서 사회의 구성 논리이자 사회의 중심원리가 되고 있음을 뜻한다. (유영주 외, 2000. 재인용)

(1) 전통적 가족주의

- 유교가 도입되어 정착되었고 혼란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선 중엽 이후 유교사상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 가족구성원의 미분화성과 가통의 계승 발전을 중시한다.
 - 부계친의 혈연집단이 조직되고 강화됨.父子관계가 중심이 됨. 직계가족의 원리가 강함
 → 효사상, 남녀차별, 가부장적 사고를 확산시킴

(2) 도구적 가족주의

-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으로 불안정한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삶의 가치, 주요 원리로 작용한다.
- 가족은 불안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유일한 사회부양기제로 기능한다.
- '도구적 가족주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이루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지만, 개별 가족의 지나친 결속은 사회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로 재구성되어 '가족이기주의'로 변질되기도 한다.

(3) 정서적 가족주의

- 산업화 이후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업무지향적인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는 냉혹하고 타산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따뜻하고 온정적인 가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가족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정서적 연대로 가족간의 정서(sentiment)를 조건으로 강조한다.
 - 부부간의 낭만적 사랑, 부모자녀간의 사랑과 연대, 가정성(domesticity)을 중심으로 가족의 자율성과 응집성을 중시함
-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가치관 변화,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 도구적 · 정서적 가족주의가 혼재되어 있음 → 다양한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함(유영주 외, 2000)

2. 현대 가족의 변화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를 겪었으며, 서구 사회에서 100여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겪음으로써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한다.

1) 가족의 구조의 변화

(1) 가족 규모의 축소

-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원수가 감소하고 세대 구성이 작아졌다.

① 저출산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하)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합계출산율²⁾은 0.84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다.
-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2천3백명으로 전년대비 3만3백명(-10.0%) 감소하였다. 첫째아를 출산한 모(母) 평균연령은 2010년 30.1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져 2020년에는 32.3세로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3.9%로 2019년대비 0.5%p, 2010년 대비 2배 증가하였다.

<그림 1>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1970~2020)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그림 2>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2000-2020) <그림 3>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2010,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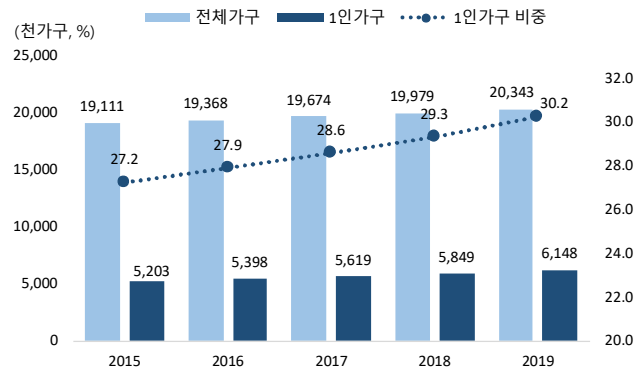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2)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통계청, 통계용어)

② 1인 가구 증가

- 결혼을 미루며 독립하여 혼자 사는 젊은 층,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2%, 2017년에 28.6%, 2019년에는 30.2%로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4> 1인 가구 비중



출처: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③ 평균 가구원수³⁾ 감소

- 전국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에서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 2020년 2.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5> 평균 가구원수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3) 평균가구원수 :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가구원수를 총일인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통계청, 통계용어)

④ 가족원수별 가구 구성비

-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었는데, 2010년에는 2인가구,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다.
- 4인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20년 15.6%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1.7%로 증가하였다. 최근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1인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 가족원수별 가구 구성비

(단위 : 천가구,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일반가구수 (천가구)		9,571	11,355	12,958	14,321	15,887	17,339	19,111	20,927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 (%)	1인	6.9	9.0	12.7	15.5	20.0	23.9	27.2	31.7
	2인	12.3	13.8	16.9	19.1	22.2	24.3	26.1	28.0
	3인	16.5	19.1	20.3	20.9	20.9	21.3	21.5	20.1
	4인	25.3	29.5	31.7	31.1	27.0	22.5	18.8	15.6
	5인 이상	39.0	28.6	18.4	13.4	10.0	8.0	6.4	4.5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2) 다양한 가족의 증가

-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증가하였다.

① 한부모 가구 증가

- 한부모 가구 수는 2016년 1,540천 가구 → 2018년 1,539천 가구 → 2020년 1,533천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7.8%, 2018년 7.5%, 2020년 7.1%로 7% 수준이다.
- 한부모 가구의 혼인 상태는 사별이 15.4%, 이혼 77.6%, 기타 7.0%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다. (여성가족부(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표 2> 한부모 가구 비율

(단위: 천가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가구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한부모	가구(비율)	1,540 (7.8)	1,533 (7.6)	1,539 (7.5)	1,529 (7.3)	1,533 (7.1)

자료 :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② 다문화가족 증가

-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였다. 2019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8%이다.(통계청, 2020)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2013년 이후 결혼이민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출생·성장하고 또한 중도입국자녀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며,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 5,178만명 중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359,610명이다.
- 2019년(2019년 11월1일 기준, 행정안전부) 다문화가구수는 358,803가구, 다문화가구의 가구원은 1,062,423명이다.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중 한국인 배우자 326,481명(30.7%), 자녀 261,606명(24.6%), 귀화자 174,592명(16.4%), 결혼이민자 173,085명(16.3%), 기타 동거인 126,659명(11.9%)이다.(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 가족 기능의 변화

(1) 가족의 고유 기능인 성적 통제기능 약화

- 결혼이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되고 피임방법의 발달, 성생활의 자유 등으로 가족의 성적 통제 기능 약화됨
- 부부간의 성역할 만족은 결혼생활의 만족에 주요 요인이 됨

(2) 가족의 기초 기능인 생산과 소비 기능의 변화

- 가족의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소비 기능은 강화됨

(3)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 학교 등으로 이관됨

- 학교 및 사회교육이 확장되었지만 가족 내의 양육 및 사회화 기능도 중요함

(4)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 안정화 기능이 중시됨

- 경쟁이 심화되고 인간 소외현상이 생겨 사회병리현상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 수행하는 애정적 기능과 정서적 지지가 중시됨

3)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지향

(1) 결혼 · 이혼 · 재혼에 대한 견해의 변화

- ① 결혼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8년 48.1%에서 2014년~2020년 51.2%로 3.1%p 증가함
 -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3.8%p 더 높는데, 특히 미혼 남녀의 경우 견해 차이가 18.4%p로 더 크게 벌어짐
- ② 이혼 -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48.4%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0.2%로 감소하는 추세임
 -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2) 37.8 → ('18) 46.3 → ('20) 48.4
 - 해서는 안 된다/하지 말아야 한다(%) : ('12) 48.7 → ('18) 33.2 → ('20) 30.2
- ③ 재혼에 대해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64.9%로 2018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남녀 모두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으나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5.1%p 더 높음

<표 3> 결혼 · 이혼 ·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¹⁾	결혼			이혼			재혼		
		해야 한다 ²⁾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³⁾	하지 말아야 한다 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²⁾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³⁾
2018년	100.0	48.1	46.6	3.0	33.2	46.3	16.7	12.4	64.6	14.9
2020년	100.0	51.2	41.4	4.4	30.2	48.4	16.8	8.4	64.9	17.3
남자	100.0	58.2	35.4	3.1	34.8	45.4	14.3	11.0	65.6	13.1
여자	100.0	44.4	47.3	5.6	25.7	51.2	19.2	5.9	64.2	21.4
미혼남자	100.0	40.8	48.0	5.0	19.5	51.6	19.4	7.3	69.8	7.5
미혼여자	100.0	22.4	62.4	10.5	8.9	56.4	28.7	2.4	77.4	8.5
13 ~ 19세	100.0	32.8	54.1	6.6	15.8	50.6	20.5	3.4	68.0	8.1
20 ~ 29세	100.0	35.4	52.0	8.1	13.8	55.9	24.2	4.7	76.0	7.8
30 ~ 39세	100.0	42.2	49.7	4.5	22.4	55.4	18.5	6.0	73.1	11.8
40 ~ 49세	100.0	44.1	49.3	4.2	24.0	56.9	16.3	6.1	69.9	17.4
50 ~ 59세	100.0	55.3	39.8	3.2	31.9	49.5	15.6	9.0	62.3	21.3
60세 이상	100.0	72.7	22.5	2.5	51.3	32.5	11.8	14.5	51.3	25.4

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포함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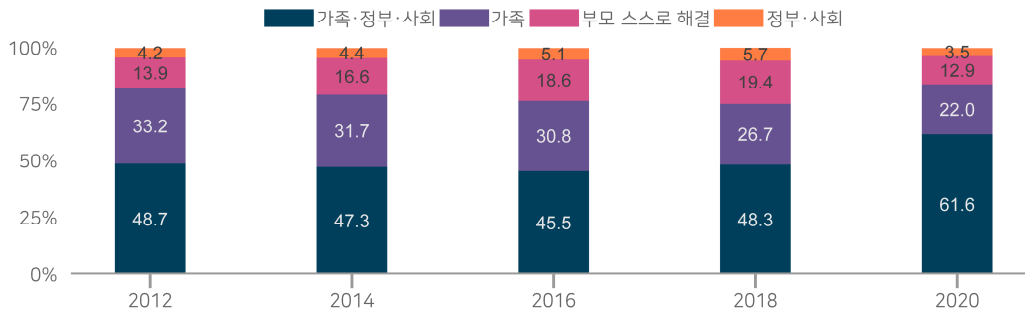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과 훈련 · 건강 · 범죄와 안전 · 생활환경)

(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61.6%로 2018년 대비 13.3%p 증가하였으나, 가족(22.0%), 부모님 스스로 해결(12.9%), 정부·사회(3.5%)는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함
-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12년 33.2%에서 22.0%로 크게 감소함

<그림 6> 연도별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표 4>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가족	부모님 스스로 해결	정부·사회	기타
2018년	100.0	48.3	26.7	19.4	5.7	0.0
2020년	100.0	61.6	22.0	12.9	3.5	0.0
남자	100.0	60.1	24.0	12.6	3.3	0.0
여자	100.0	63.1	20.0	13.1	3.8	0.0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3) 가족가치관의 지향

① 지나친 가족주의와 가족이기주의 극복

- 가족주의 - 개개의 가족 구성원보다 집단 전체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하고 적용하려는 사고방식
- 가족이기주의 -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나 공존보다 자기 가족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족의 사고방식 (예: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에 쓰레기를 자신의 집이나 지정된 곳이 아닌 남의 집 앞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② 다양한 가족가치관 수용 (최규련, 2014)

학습정리

1. 전통 가족의 특성 중 혼인풍습은 고유의 혼인풍속인 서류부가 혼속이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유입되어 친영을 가례(家禮)로 강조하면서 반친영으로 절충되었다.
2. 고대의 가족과 친족 관계에는 부계적(父系的) 원리가 우월한 비단계(非單系)의 원리가 작용하였고, 고려 시대의 가족관계도 쌍변적 방계가족(雙邊的 傍系家族)으로 부계(父系)가 우위에 서는 비단계(非單系) 원리가 작용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의 가족관계는 엄격한 유교윤리가 적용되었다.

3. 현대 가족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였다.
4. 현대 가족의 기능 중 가족의 고유 기능인 성적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소비와 생산 기능이 변화되었으며, 자녀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 학교 등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 안정화 기능이 중시되었다.
5.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나친 가족주의와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가족(1) - 건강 가족의 개념과 요소 / 13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건강 가족의 개념과 건강한 가족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2.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건강가족의 개념
2. 건강한 가족의 요소
3. 건강한 가족관계

본 학습

1. 건강가족의 개념

1) 건강의 개념 - '몸에 병이 없음', '튼튼함'

-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신체적 · 정신적 행복(well being)의 상태로 규정한다.
 - 신체적 건강: 불편함이나 무력감 없이 적절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정신적 건강: 생활에 대해 행복하고 희망적이며 정열적인 감정을 갖는 것, 불안감이나 신체적 이상증세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 최근에는 건강의 개념에 영적(spiritual) 정신상태도 양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Fliopoulos, 1990; 이선자 재인용, 2000)

2) 건강한 가족의 개념

- ① 건강한 가족(유영주, 1999) -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족이라고 정의.
- ② 건강한 가족(Olson & DeFrain, 2004) -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기여하는 가족이라 정의.
건강가족은 가족의 외적 구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족원 상호간의 내적 과정에 중점을 두며, 모든 가정은 잠재적 성장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성을 가지고 있음.

③ 건강 가정(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한 가족은 가정의 대내적, 대외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이며,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심리사회적이고 관계적 개념이 강조된다.

< 보충자료 1 > 건강가정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출처: 법령정보센터(건강가정기본법)

< 보충자료 2 > 건강가정기본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족가치, 가정의 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사회 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출처: 법령정보센터(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한 가족의 요소

- 건강한 가족적 접근을 통하여 건강가정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모델을 제공하여 가족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1) 건강한 가족 – 6가지 특성 (Stinnet, 1979)

- (1) 헌신: 가족원은 서로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꺼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 (2) 질적인 시간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원이 서로 몰입하고 질적인 시간을 보낸다.
- (3) 위기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건강가정은 위기가 있을 때 약화되거나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 (4) 종교적 태도 : 건강가정은 대부분 삶의 지표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의해 강조되는 가치와 신념을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

- (5) 긍정적 의사소통: 가족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적으로 논의한다.
- (6) 감사/ 존중: 가족원 서로가 감사와 존중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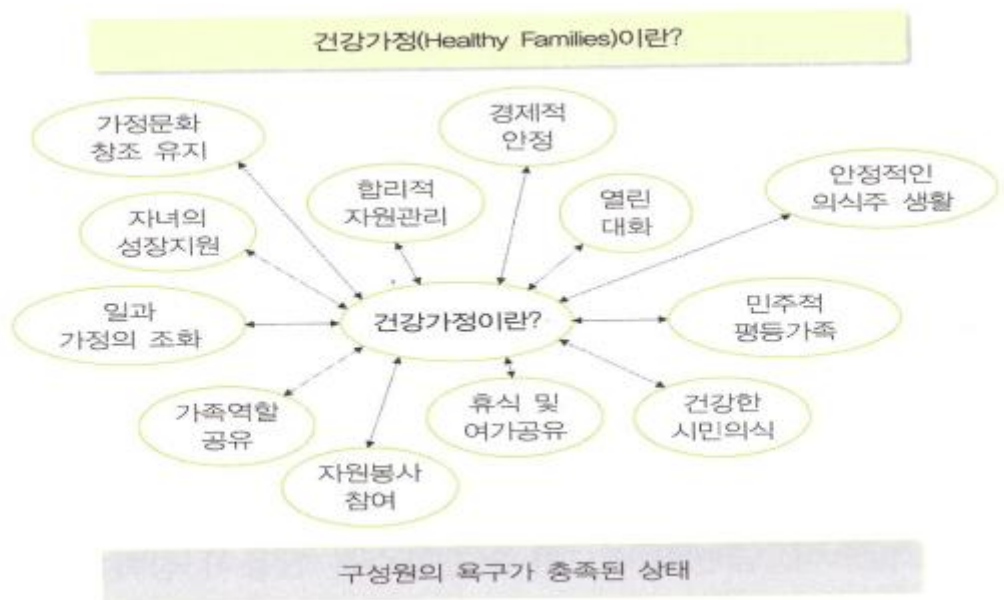
2) 건강한 가족의 특성 (유영주, 2004)

- | | |
|---------------------|----------------|
| (1) 가족원에 대한 존중 | (6) 가족원의 역할 충실 |
| (2) 가족원 간의 유대의식 | (7) 문제해결 능력 |
| (3) 감사와 애정, 정서적 안식처 | (8) 경제적 안정과 협력 |
| (4) 긍정적 의사소통 | (9) 사회와 유대 |
| (5) 가치관 공유 | |

3) 건강 가정의 특성 (조희금 외, 2010)

- | | |
|-----------------|-----------------|
| (1) 경제적 안정 | (7) 자원봉사 참여 |
| (2) 열린 대화 | (8) 가족 역할 공유 |
| (3)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 (9) 일과 가정의 조화 |
| (4) 민주적 평등가족 | (10) 자녀의 성장 지원 |
| (5) 건강한 시민 의식 | (11) 가정문화 창조 유지 |
| (6) 휴가 및 여가 공유 | (12) 합리적인 자원관리 |

<그림 1> 건강 가정의 특성



3. 건강한 가족관계

1)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필요성

-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여 대내적,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기초적 집단이므로 대내적 기능을 잘 수행할 경우 개인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대외적 기능을 잘 수행할 경우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2) 가족관계 실태 - 가족관계 만족도

-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58.8%가 만족하고 있으며(2020년), 2018년 보다 2.2%p 증가함
- 가족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69.2%), 자기 부모와의 관계(68.8%),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9.0%)임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표 1>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영역	연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가족관계	2018년	100.0	56.6	40.5	2.8
	2020년	100.0	58.8	38.2	3.1
배우자와의 관계	2018년	100.0	69.5	24.7	5.8
	2020년	100.0	69.2	24.2	6.5
자녀와의 관계	2018년	100.0	75.6	20.9	3.5
	2020년	100.0	76.4	20.1	3.5
자기부모와의 관계	2018년	100.0	66.9	28.5	4.6
	2020년	100.0	68.8	26.5	4.7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2018년	100.0	56.5	36.6	6.9
	2020년	100.0	59.0	33.4	7.6

출처: 통계청(2020), 2020 사회조사보고서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3) 건강한 가족관계 - 형성 방안

-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강화를 위하여 개인 및 가정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영주, 2001).

(1) 개인 및 가정적 차원의 방안 - 건강가정 수칙

- ①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한다.
- ② 서로 사랑하며 존중한다.
- ③ 자녀교육은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한다.
- ④ 건전한 가계 관리를 수립한다.
- ⑤ 노부모를 존중하고 친척과 원만한 관계를 수립한다.

⑥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긍정적 사고로 인내하고 협동한다.(유영주, 2001)

(2) 사회적 차원의 방안

- ① 지역사회, 단체, 학교, 종교기관에서 가족복지 사업 시행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복지센터 등 가족복지 사업 수행기관 운영
- ③ 전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교육 차원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사업 수행
- ④ 가족 친화 환경 조성

(3) 국가적 차원의 방안

- 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가족복지정책 제정 및 시행
- ② 건강한 가족 형성과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마련

4) 건강가정 지원 제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언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목적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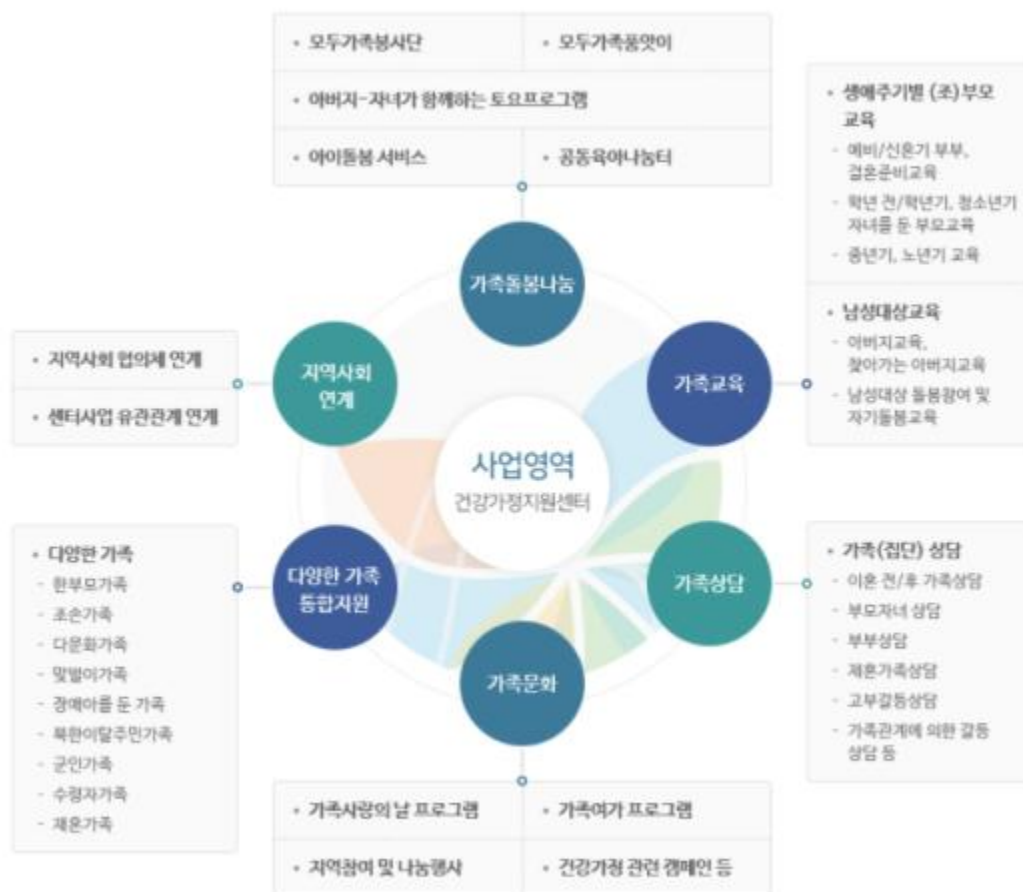
- ① 설립 목적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
- ② 특성
 - 국가 및 지자체는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해야 함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는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간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 - 주요 사업

-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의 맞춤 통합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시행
- ① 가족교육 : 부모, 부부 교육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 육아교육 등
- ② 가족상담 : 생애주기별 가족상담 등
- ③ 가족돌봄나눔 : 가족단위 봉사 등

- ④ 다양한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게 상담·교육·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 서비스 제공 등
- ⑤ 가족역량강화지원 :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키움보듬이, 지지리더 파견,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 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부모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 지역사회열린공동체 공간
- ⑦ 아이돌봄지원사업 :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보충자료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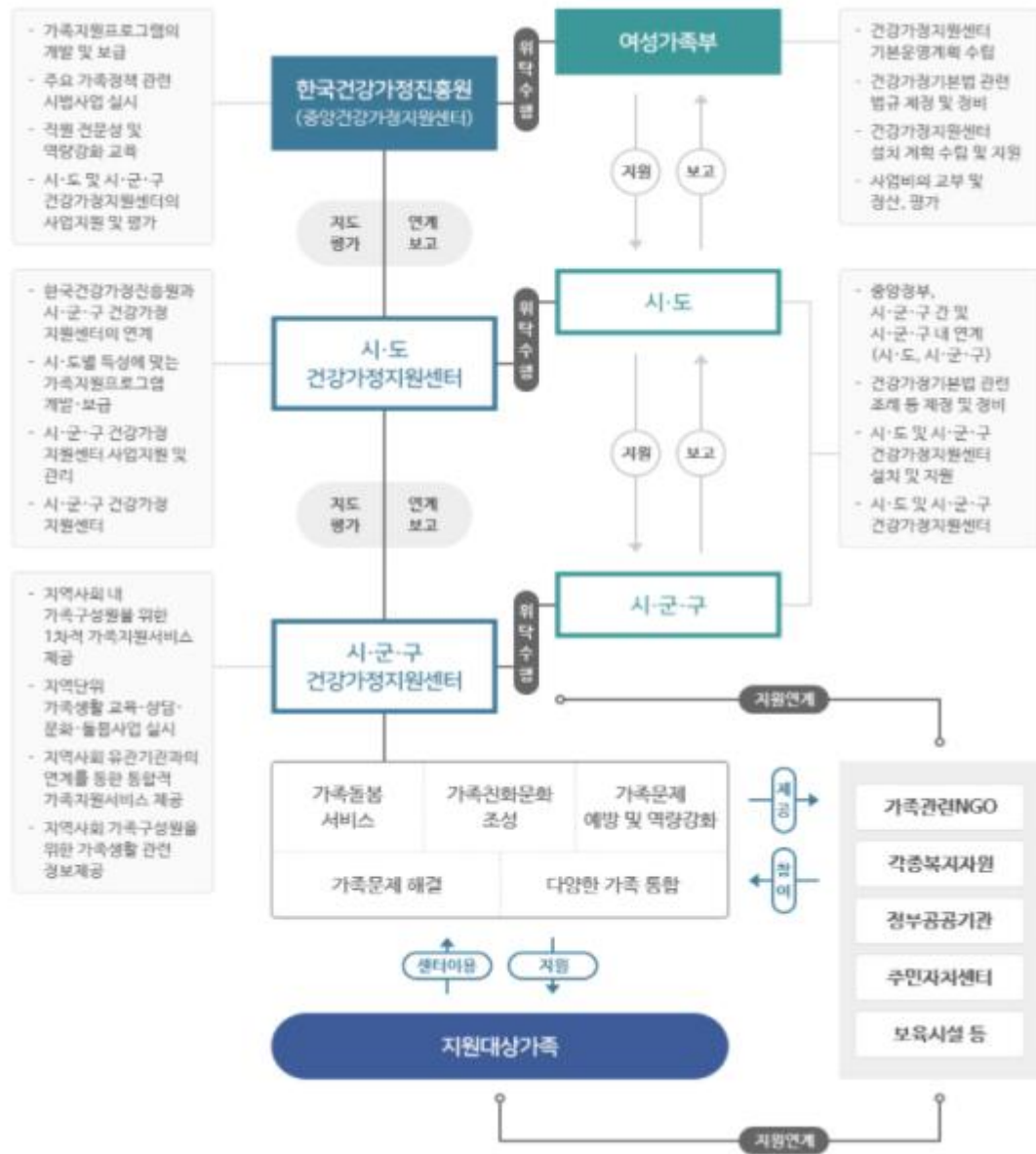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4)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달체계

- ①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
- 건강가정사 업무: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② 건강가정사업 전달체계
- 여성가족부-(수·위탁)-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대상 가족
 -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반 가족은 물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일탈청소년가족, 군인가족, 수용자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보미 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의 돌봄지원사업, 취약가족과 위기가족을 위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가족지원사업, 기타 타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충자료 4 > - 전달체계도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전달체계도

학습정리

1.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이다(유영주, 1999)
2. 건강한 가족의 6가지 특성(Stinnet, 1979)으로 헌신, 질적인 시간 함께 시간 보내기, 문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종교적 태도, 긍정적 의사소통, 감사/ 존중 등이 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강한 가족(2) -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 14주차 1차시

학습목표

1. 가족상담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상담을 가족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3. 가족생활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상담
2. 가족생활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본 학습

1. 가족상담

1) 가족상담의 개념

- 가족상담은 '가족'을 상담하고 가족의 상호작용 맥락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 (1) 가족은 가족원간의 관계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므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일정한 관계 패턴이 생기고 이러한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에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함으로써 개인의 증상이나 가족의 역기능을 변화시킨다.
- (2) 가족상담은 하나의 문제행동이 또 다른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끊는다. (예: 부모의 잔소리 ↔ 자녀의 반항)
- (3) 가족상담은 가족의 전반적인 잘못된 관계맥락을 수정하여 가족 상호작용 기능을 향상시켜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원만하고 편안한 가족관계는 가족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2) 가족상담의 필요성

- (1) 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 가족의 구조, 기능, 역할, 가치관 등이 변화하여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심리적 불화, 가족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짐.

(2)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 현대 사회의 물질추구와 이기주의는 가족의 심리적 관계의 붕괴, 인간성 상실 등을 초래하여 가족해체를 증폭시키고 있음.

→ 가족해체 예방을 위하여 가족위기 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상담기회를 가져 가족의 회복을 돕고 가족해체에 따른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함.

3) 가족상담의 적용

(1)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족

- 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불편해 하고,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위축되는 경우
- ②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가족원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또는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이 전도되어 있는 경우)
- ③ 가족원의 부적응으로 인해 가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 경우
- ④ 가족 간에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지속되고,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가 더 확대될 경우
- ⑤ 예기치 않은 외부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긴장에 빠져 있는 경우
- ⑥ 죽음, 이별, 입양 등 앞으로 가족에게 닥칠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이 재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부부갈등이나 세대간의 갈등, 형제간의 경쟁 등 가족관계 맥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

(고성혜 · 성미혜, 2007)

(2) 가족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입 및 가족관계 변화

- ① 접수 상담 및 탐색 : 내담자나 가족이 기관에 상담 의뢰
 - 상담자는 내담자 및 가족과 라포 형성
 - 개인 및 가족의 발달사, 사회적 관계망,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가족의 문제 진단
 - 가족에 대한 정보와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목표와 계획 설정
- ② 문제 사정
 - 접수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조직화하고 분석
 - 개인 및 가족의 문제와 맥락을 파악(문제가 언제 나타났는지, 문제에 대한 반응, 과거 치료 경험 여부와 치료 형태 등)
 - 가족 및 맥락에 대한 사정(가족생활주기, 의사소통 방식, 가족구조, 가족의 역할, 가족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
 - 문제의 정확한 사정을 위해 다양한 기법 사용(가계도, 생태도, 심리검사 도구 등)
- ③ 치료적 개입
 - 초기 단계에서 탐색과 사정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상담기법 활용하여 개입방법을 구체화 함.
- ④ 평가 및 종결

- 종결: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내담자나 상담자의 상황 변화로 종료되기도 함.
가장 이상적인 종결은 설정된 목표가 달성됨에 따른 종결임.
(가족상담 목표의 예: 갈등해결, 가족관계 개선, 상호작용 패턴이 기능적으로 변함 등)
-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고,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수립
- 평가: 개인의 부적응이나 가족 상호작용 등 설정된 목표의 개선 정도를 평가
- 사후관리: 종결 후 사후평가 및 면접

2. 가족생활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생활교육의 개념

-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고안된 의도적인 교육활동이다.
- 개인과 가족생활을 증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의도적이고 평생교육적인 활동이다.(유영주 외, 2018)

<보충자료 1>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예방적이고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평가, 훈련 및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 가족생활교육사는 더 생산적이고 만족한 삶을 위해 개인과 가족을 위한 예방과 교육을 하는 직업이다. (미국가족관계학회(NCFR), 2002, 정현숙, 2016; 재인용)

2)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 (1) 재사회화 과정 -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가족문제로 재사회화 과정으로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다. 가족은 새로운 가족생활기술을 발달시키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2) 전문가의 도움 필요 - 사회의 변화, 다양한 가치관 등장으로 (가정)교육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정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기술과 능력을 배워야 한다.
→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화, 다원화, 개성화가 추구되며 정보화 사회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열린교육이 확산될 것이다. 또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적응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유영주 외, 2018)

3)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 (1)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함 - 가족 문제를 예방하거나 가족문제의 발생빈도, 기간, 강도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증진함 – 개인과 가족의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과 가족생활을 강화 또는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순기 외, 2021)
 →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원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도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원들이 겪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여 가족의 복지 향상과 안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사회 차원에서는 문제의 예방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 (유영주 외, 2018)

4) 가족생활교육의 내용(9가지 영역)

- 미국가족관계학회(NCFR)는 평생발달적 관점에서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9가지 영역으로 정립하고 교육대상별,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 (1) 사회속의 가족(families in society):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교육, 정부, 종교, 경제 등)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예) 다양한 가족구조와 기능, 친족관계,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학적 경향, 가족과 중요 사회 기관(정부, 종교, 교육, 경제 등)간의 호혜적인 영향 등
- (2) 가족역동성(internal dynamics of families):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
 예) 갈등관리, 의사결정과 목표설정, 가족 스트레스/위기(이혼,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 (3) 인간성장 발달(human growth and development): 가족생활주기 동안 가족원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 과정의 욕구충족에 대한 이해
 예)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성격적 발달에 대한 이해 등
- (4) 인간의 성(human sexuality): 건강한 성적 적응을 위한 가족생애 동안 성적 발달의 생리적 · 심리적 · 사회적 특성 이해
 예) 출산과 관련된 생리학, 성적인 가치와 의사결정 등
- (5)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관계의 발달과 유지에 대한 이해
 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듣기.의사결정 같은 대인간 의사소통기술, 관심, 존중,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 맺기
- (6) 가족자원관리(family resource management): 자원(시간, 돈, 물적 자산, 에너지, 친구, 이웃, 공간 등)의 할당과 발달을 위한 가족과 개인의 의사결정 이해
 예) 목표, 자원, 계획, 의사결정, 수행 같은 개념의 이해, 가족자원관리 등
- (7) 부모교육과 지도(parent education and guidance): 부모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예) 단계별 부모됨, 가족생활주기별 부모 역할
- (8) 가족법과 공공정책(family, law and policy): 가족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과 가족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이해
 예) 결혼, 이혼, 가족지원에 관한 법, 공공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 (9) 윤리(ethics): 인간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질, 윤리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
 예) 사회적 태도와 가치구조의 이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다양성과 가치선택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존중,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서 윤리적 시사점을 인식하는 것 등(정현숙, 2016)

5)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의 비교

-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과 가족상담(Family Therapy) 등이 있다.
-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목적은 같으나 대상, 교육방법, 정보방향, 구조화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표 1>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비교

	가족생활교육	가족치료/상담
목 적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강화하기	
대 상	기능적인 개인이나 가족	문제 있는 가족/부부
교육방법	인지적 학습	치료기법에 따라 차이
정보방향	지도자 → 참석자	내담자 → 상담자
구조화정도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	치료기법에 따라 차이
자격기관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가족생활교육사(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치료사(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상담사(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출처: 정현숙(2016), 가족생활교육, p24 부분 발췌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정의

- 프로그램은 교육적 의미로는 일정한 목표를 향해 학습자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사전에 체계화시켜 놓은 교육내용(지식, 정보, 기술, 교과) 이다.
 → 학습 목적과 목표, 대상, 활동 및 학습과정, 학습방법, 장소, 시기, 학습자 조직, 매체 등 각 요소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습 대상자의 학습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자원과 지도 및 평가 전략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일련의 계획표

2) 프로그램 개발

- 학습자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추어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 움직임이다.
- (1) 프로그램 구성 범위에 따른 분류 - 단일 / 연속적 / 통합적 / 종합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2)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분류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부교육 프로그램(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등),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노인교육 프로그램,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3) 프로그램 개발 절차 - 유영주와 오윤자 모형(1998)

- 유영주와 오윤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계획, 설계, 실행, 평가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 ① 프로그램 계획 단계 -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행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 수립
 - ② 프로그램 설계 단계 - 요구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 내용,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본 계획 설계
 - ③ 프로그램 실행 단계 -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
 - ④ 프로그램 평가 단계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효과에 대한 평가, 교육자에 대한 평가 등 포함)

3)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지도안을 작성하고 지도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 프로그램 계획서 -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목표, 내용, 과정, 행동, 자료, 평가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제안한 계획서

- 기승전결의 흐름을 응용하여 도입부분, 전개부분, 심화(발전)부분, 정리의 4단계로 작성하기도 하고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작성하기도 한다.
 - ① 도입 :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본시 활동에 대한 소개
 - ② 전개 및 심화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의 / 활동
 - ③ 정리 : 교육 및 활동의 핵심 부분 요약과 평가연속적인 프로그램인 경우, 과제 제시나 다음 회기에 대한 예고를 함.

(2) 프로그램 지도안 작성 - 프로그램 지도안(강의계획서)의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형태, 교육 내용, 교육자의 개성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실시기관에 따라 특정 형식의 지도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 프로그램 지도안 작성 내용
 - ① 프로그램 / 회기 제목
 - ② 프로그램 목표
 - ③ 교육내용 - 강의 및 활동(또는 교수-학습)의 세부적인 내용
 - ④ 평가방법과 과제 제시
 - ⑤ 시간과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사항 표기

(3) 프로그램 실시

- ① 프로그램 실시: 교육자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의도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 교수자의 교수행위와 학습자의 학습행위 그리고 운영요원의 운영 및 관리행위에 의해 이루어짐.
- 교육자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좌우되므로 교육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격려자, 공동학습자, 활동조정자, 촉진자 등의 역할을 해야 함.
- 학습자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과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

② 프로그램 실시 과정

- 프로그램 실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정리 단계 세 단계로 진행
 - ㉠ 준비 단계 : 인적 체제(교육자, 참가자, 진행자 등)와 프로그램 실시 조건(교육장소 및 배치, 필요한 교구 준비, 자료준비, 기록준비, 참석자들에 대한 통지 등)을 정비하고 당일 프로그램을 전개해 갈 지도안 편성과 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
 - ㉡ 실시 단계 :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되는 단계로 각 회기는 도입, 실행과 심화, 종결의 과정으로 진행됨. 여러 가지 상황 변화(기상조건, 교육자의 사정, 학습참여자들의 상황변화 등)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
 - ㉢ 정리 단계 : 프로그램 실행이 가져온 성과와 그 의미를 기록·정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단계.

4) 프로그램 평가

- 교육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프로그램 평가의 내용

-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효과성에 대한 평가, 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 각 단계의 종료 후 또는 전체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실시함.
- 프로그램 전체 목적과 각 단계의 목표와의 연계성, 각 단계의 목표와 각 단계의 내용과의 연계성, 각 단계의 내용과 각 단계의 활동과의 연계성,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선정, 강의 시간과 활동시간의 분배 등에 대한 평가를 함.

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 참가자가 프로그램이 목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정도를 측정함.
- 교육자와 학습자에 의해, 각 단계의 종료 시,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실시함.
- 교육자는 목표나 목적에 대한 학습자의 변화 정도를 관찰하여 평가하고, 학습자는 각 단계 종료 시 자기보고 자료를 통해 평가함.

- 대개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평가로 사전·사후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의 1:1 면접을 통한 질적 평가를 함.

③ 교육자에 대한 평가

- 교육자로서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총체적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함.

< 보충자료 2 > 프로그램 지도안(강의계획서)의 예
다양한 가족의 이해 교육⁴⁾ 강의계획서

주제	다양한 가족의 이해		일시	0월 0일	대상	1학년
학습 목표	1. 현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한다. 2. 다양한 가족의 강점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알 수 있다. 4.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	1학년 2반	담당 강사	000
학습 자료	다양한 가족에 대한 ppt자료, Work sheet(활동지)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강사		학생			
도입	◎ 인사 나누기 ◎ 생각 이야기하기 -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파악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한다. 질문: 우리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 인사 나누기 -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다.(가족 풍선그리기)		5분	활동지- 가족 풍선
전개	◎ 다양한 가족에 관한 영상이나 사진보며 가족의 강점과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다양한 가족 예시 1-2)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3) 다문화 가족 4) 조손 가족 5) 핵가족 ◎ 다양한 이웃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표하기 ◎ 우리 가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 표하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시를 보고, 가족의 강점과 어려운 점에 관해 발표한다. - 다양한 가족 예시 1-2)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3) 다문화 가족 4) 조손 가족 5) 핵가족 - 이웃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역할) 발표하기 - 우리 가족에서 나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표하기		30분	* 다양한 가족의 예시 - 드라마, 책 등의 가족을 제시함 *활동지- 가족을(이웃 가 족, 나의 가족)을 위한 나의역할

4) 프로그램 예시 - '다양한 가족의 이해'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는 2011년 7월 인천시 초등학교 1, 2학년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한국 가족상담교육연구소-김순기, 이영자, 전보영 실시)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강의계획서 중 일부입니다.

정리	<p>◎'우리의 약속' - 작성 지도하기 다양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우리들의 약속' 작성하기</p> <p>◎'나의 약속' - 작성 지도하기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나의 약속' 작성하기</p> <p>◎ 학습정리 및 마무리 인사하기</p>	<p>- '우리의 약속' 작성하기 이웃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우리의 약속'작성하기</p> <p>- '나의 약속' 작성하기 나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나의 약속'작성하기</p> <p>- 학습정리 / 인사나누기</p>	5분	*활동지- '우리의 약속'/ '나의 약속'
평가	<p>-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있는지 이해하였는가?</p> <p>- 다양한 가족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는 나의 이웃임을 이해하였는가?</p> <p>-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과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역할을 스스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p>			- 관찰 및 발표, 활동지 작성

학습정리

1. 가족상담은 '가족'을 상담하고 가족의 상호작용 맥락'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가족 문제해결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2.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의도적인 교육활동으로 가족의 재사회화를 위해 필요하다.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 학습자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사전에 체계화시켜 놓은 교육내용 (지식, 정보, 기술, 교과) 또는 일련의 계획표이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가족(3) - 가족문화, 가족복지 / 14주차 2차시

학습목표

1. 가족문화의 개념과 건전한 가족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미래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가족문화의 개념
2. 건전한 가족문화
3. 가족복지

본 학습

1. 가족문화의 개념

1) 문화의 개념

- 문화(Culture)라는 말의 어원은 농경시대 "밭을 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들이 수렵과 채취를 위해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며 농사짓고 살게 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즉,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후 문화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신활동, 특히 학문, 문학, 예술, 종교, 도덕 등 수준 높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문화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 문화는 학습되고 전수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지배하는 온갖 형태의 생각, 느낌, 행동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이다. (박명희 외, 2006)

2) 문화의 속성

- (1) 문화는 공유된다 : 문화란 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 특성이다.
- (2) 문화는 학습된다 :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문화를 배우고 집단의 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 또는 문화화(enculturation)라고 하고, 문화화에 의해서 문화는 대대로 학습되고 전승된다.
- (3) 문화는 축적된다 : 한 세대의 문화는 다른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세대에서 이루어진 지식은 전달매체를 통해서 축적된다.
- (4) 문화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 문화는 지식 . 신념 . 예술 . 법 . 도덕 . 관습 등의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긴밀하게 관련된 '복합적 전체'이다.

- (5) 문화는 항상 변한다 : 문화는 그 문화를 담당하는 세대들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계승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을 수반한다.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회 내부적 요인과 사회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변동의 사회 내부적 요인은 발명에 의한 문화혁신 등이 있고, 사회 외부적 요인은 다른 문화의 영향 등이 있다. (유영주 외, 2009)

3) 생활문화

- (1) 생활문화의 개념 : 생활문화는 문화 중에서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각 집단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생활문화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생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상징적 재생산 혹은 사고방식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
- (2) 가정생활문화의 개념 : 가정생활문화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치나 태도 등의 의식적 측면과 실제의 의·식·주생활, 시간관리, 경제 및 소비, 아동사회화, 가족관계 등의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3) 생활문화의 구성요소
- ① 사고방식 - 의식, 가치, 가치관, 가치정향성(value orientation) 등으로 나타난다.
 - ② 생활양식 - 추상적인 개념인 생활양식은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우리 주변에서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실천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생활양식은 가족, 의·식·주, 소비, 여가생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

2. 건전한 가족문화

- 가족의 건강성이 향상·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가치·규범 같은 내재적인 가족문화가 건전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가족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의·식·주, 여가, 소비, 가족생활문화와 같은 표현적인 생활문화가 전통문화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 가족문화사업

-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시행하여 가족생활문화를 발전시키고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을(제29조 가정의례) 명시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여 가족여가문화 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사업,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사업, 합리적인 소비문화 사업,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사업,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가족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보충자료 1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가정의례)

-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가족문화사업의 실제

(1) 가족문화사업의 예 1 – 서울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즘아빠패키지]

- ① 주제: 쉬고 싶은 아빠즈 – 일하는 아빠 모여라!!
- ② 참여자격: 서울에 생활권을 둔 일하는 아빠 (맞벌이 우선접수)
- ③ 진행내용: 아빠생활, 직장생활로 지친 아빠들만을 위한 2일 완성 힐링 패키지
 - 1회기 2021.10.15.(금, 19:30~21:00) - 오프더레코드 아빠 공감 토크쇼
 - 2회기 2021.10.16.(토, 10:00~12:30) - 아빠만을 위한 목공수업 (재료키트무료)
- ④ 참여장소: zoom 온라인모임방 입장이 가능한 모든 장소

(2) 가족문화사업의 예 – 서울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 가구 프로그램]

- ① 주제: 2060 세대통합! 소통과 함께 하는 집밥 만들기 '같이 먹고 가'
- ② 대상: 서울 생활권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 (20~60대), 은평구민 우선 선정
- ③ 일시: 2021년 10월 21일~11월 25일 매주 목요일 19시 30분~21시 (총 6회기)
- ④ 참여방법: 비대면 온라인 진행 (cisco webex)
- ⑤ 내용: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프로그램

⑥ 비용: 무료

(출처: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familyseoul.or.kr) 홈페이지)

<보충자료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2021년 10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족교육, 문화프로그램, 가족상담 안내

가족교육

[동대문구] 예비부부들을 위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도봉구] 원가족과의 건강한 특질을 위한 문화교육 '힐시아름'

[동작구] 자존감을 높이는 베틀데와 법 & 체험활동 'PAPA로요교실'

[관악구] 딸 키우는 아빠즈의 요즘속 아파카지 '딸아빠즈'

문화프로그램

[성북구] 1인가구 요리프로그램 '갈자와 재발견'

[관악구] 아바스트레스 육공으로 타파 힐링퍼커지 '쉬고 싶은 아바즈'

[은평구] 2060 세대통합! 소통과 함께하는 집밥 만들기 '같이먹고가'

[종로구] 1인가구 자기표현감 향상 프로그램 '혼자 커피 마시러 갑니다'

가족상담

[관악구] 2021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2인1살 가족상담 신청접수중 (비대면확성상담)

[서대문구] 2030 청년 집단상담 <아무튼, 마음챙김>

[도봉구] 부부의 건강한 관계증진을 위한 '결혼검진' 접수중

[성동구] 온라인 태교 프로그램 '도달도달 보듬맘' 모집

출처: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familyseoul.or.kr) 홈페이지)

3. 가족복지

- 가족복지는 전체로서의 가족(family as a whole)을 중시하고 가족의 역동적 체계 속에서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는다.

1) 가족복지의 개념

- (1) 가족복지의 개념 -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합시키고 적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집단의 노력으로 수행되는 조직적인 활동 (전준우, 1988)
-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내의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family wellbeing)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 선택들 (Zimmerman, 1995)
- (3) 가족복지사업(family social work)의 개념 -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하고 가족구성원의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적·사적 기관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 (미국 사회복지사업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2) 가족복지의 영역

(1) 정책 영역: 가족정책

- 가족의 관심사가 공적 사회 정책에 반영되고, 정부정책은 직·간접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미침.
- ① 가족 친화적 (family friendly)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양성평등 부부관계에 기초한 정책, 가족의 전체성에 초점,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함. (북구 유럽 국가들)
- ② 소극적 가족정책: 가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책임이 협소함.
국가는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고 빈곤 가족 등에 대해 선별적 지원함.(독일, 영국 등)
국가가 실질적 개입을 줄이고 가족과 친족책임을 우선시 하는 국가도 있음.

(2) 서비스 영역: 가족중심적 서비스(family-centered service)

- 가족이 서비스의 중심에 있고, 가족단위를 지지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됨.
- 대표적으로 가족지지 서비스와 가족보존 서비스가 있음.
- ① 가족지지 서비스(family supportive services): 가족생활 지지, 강화,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가족에게 연계함
- 가족 내 학대, 유기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 ② 가족 보존 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s): 학대나 유기문제를 가진 가족을 원조하기 위해 고안됨. 불필요한 시설배치를 예방함. 단기보호제공, 부모훈련 등 제공.
- 모든 아동은 영구적이고 안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여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다양한 서비스, 안전한 가정을 제공함

(3) 실천영역

- 인간, 가족, 환경들 사이의 상호교류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춤.
-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인간체계인 가족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원조될 수

있음.

< 가족복지실천의 특성 >

- ① 가족이 관심의 단위임
- ② 가족과 전문가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고려함
- ③ 가족의 선택을 중시함
- ④ 가족의 강점을 주요하게 고려함
- ⑤ 문제를 제시한 성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변화함
- ⑥ 각각의 가족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 ⑦ 민주적 과정과 성평등을 촉진시킴

3)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 가족복지정책 -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 (최성재, 1992)

(1)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Kamerman & Kahn, 1978)

- 정책 목적의 명료성이나 의도의 명시성에 따라 명시적/묵시적 가족복지정책으로 구분
- ① 명시적 가족정책(explicit family policy) - 정책의 수혜 대상이 명확히 가족이고, 가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책. 예) 아동보육, 가족계획, 가족상담 등
- ② 묵시적 가족정책(implicit family policy) - 가족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 정책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예) 조세정책, 이민정책 등

(2) 가족의 기능 지원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 가족의 욕구(소득안정 및 주거안정, 모성보호, 건강보장, 양육, 보호, 건강가정형성, 성.심리사회적 욕구 등)를 충족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

<표 1> 가족의 기능 지원 및 욕구에 기초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의 기능 / 욕구	가족복지정책 예시
경제적 기능 (소득안정 및 주거안정의 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 주택관련 지원
노동력 재생산 기능 (모성보호의 욕구, 건강보장의 욕구)	근로자 건강 . 교육 . 상담프로그램 등
양육 및 보호의 기능 (양육의 욕구, 보호의 욕구)	육아휴직제, 자녀교육지원 등
성적 . 정서적 기능 (성.심리사회적 욕구)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부부상담 등 (대인사회적 서비스)
사회 통제의 기능 (건강가정 형성의 욕구)	가족관련법 (상속, 증여, 이혼, 입양, 가정폭력 등)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이 요구됨.
- 2000년대 들어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시행은 가족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고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함.
-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고,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개편함.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업무,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의 기능을 수행함. (김혜경 외, 2014)

① 가족복지의 정책 방향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장
예)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확대, 일·가정의 양립지원 등
-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변화
예) 건강가정지원법,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 가족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함

② 가족복지 관련법의 변화

- ㉠ 1989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1989년 '모자복지법', 2003년 모·부자복지법,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87년 제정) 일부 개정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친화법)' 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㉖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㉗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㉘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제정)을 '양성평등기본법'(2014년)으로 전부 개정)

→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가족복지정책 과제

(1)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 강화

→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책 마련

(2)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등 증대

- 1997년 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증가함, 소득양극화,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격차가 벌어짐

→ 소득보장, 세제혜택, 실업수당 증액,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확대, 긴급복지제도,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3)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가족 내 양육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 필요

→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 및 노동 시장의 구조변화, 가족수당 제도 도입 등

(4)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노동시장과 가족 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는 가족복지 정책 재정립

→ 돌봄 노동 가치인정: 출산 크레딧 부여, 이혼 시 분할연금 인정, 보육시설 확대 등

(5) 분절되어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통합화 필요

- '가족단위 복지' 업무 - 여성가족부 / 아동, 노인 대상 업무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담당.
- 가족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소속 /

학습정리

1. 문화는 학습되고 전수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지배하는 온갖 형태의 생각, 느낌, 행동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이다.
2. 가족의 건강성이 향상·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가치·규범 같은 내재적인 가족문화가 건전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가족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의·식·주, 여가, 소비, 가족생활문화와 같은 표현적인 생활문화가 전통 문화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3. 가족복지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의 역동적 체계 속에서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합시키고 적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집단의 노력으로 수행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